

요한계시록 이야기  
승리자 그리스도



## 요한계시록 4장 1-11절

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 요한계시록 4장 1-11절

[4] 또 보좌에 둘러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5]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천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6]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 요한계시록 4장 1-11절

[7]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9]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 요한계시록 4장 1-11절

[10]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 우리 주 하나님이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 요한계시록 4장 1-11절

##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

- '거장의 손이 닿을 때'(Touch of the Master's Hand)라는 영시가 있다.
- 내용은 대략 이렇다.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이** 있었다. **3불**까지 부르는 사람이 있었고 더 이상은 없었다. 이때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고 보물을 다루듯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 구석구석을 닦았다.

# 요한계시록 4장 1-11절

##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

- 그리고 줄을 조여 음을 맞춘 다음 연주를 시작하였다.
- 노인의 연주는 아름다운 천사의 음악처럼 청중을 황홀하게 만들었다. 한 곡을 끝내고 노인은 감회 깊은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잘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 40년 만에 너를 만져보는구나.” 하고는 다시 연주를 시작하였다.

# 요한계시록 4장 1-11절

##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

- 경매는 갑자기 활기를 띠게 되었고, 결국 이 바이올린은 3천불에 낙찰되었다는 내용이다.
- 이 시에서 노인의 손은 분명 큰손이다. 이 노인과 같은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은 건설의 손이요, 치유의 손이요, 구원의 손이다. 우리 인간들의 삶을 조종하는 손이다.

# 요한계시록 4장 1-11절

##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

- 시편 99장 1절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 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고 노래하고 있고,
- 시편 103장 19절은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고 노래하고 있다.

## 요한계시록 4장 1-11절

요한 계시록이 독자에게 하고 싶어 한 말

-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고 말한다.

계시록 4-6장은

-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한 내용이다.

## 요한계시록 4장 1-11절

- 보좌방의 환상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두 팔로 감싸 안으시고 온 관심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내용이다.
-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결말지어 주신다.



## 요한계시록 4장 1-11절

-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였고,
- 전도서 9장 1절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 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였다.
- 그러므로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 요한계시록 4장 1-11절

##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

-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 이것이 계시록 4-6장의 주제이다.
- **계시록 1-3장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좁은 틀 속에서 다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 **계시록 4-6장은** 하나님과 우주라는 보다 큰 틀 속에서 다루어졌으며, 고난 당하는 성도에게 보다 넓은 안목의 세계관을 심어주고 있다.

# 요한계시록 4장 1-11절

##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

- 이 **세계관**은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다.
- ‘세계는 보다 큰 하나님의 뜻 속에서 움직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극한 시련 속에서도 좌절할 수 없다.’는 역설적인 암시가 담겨 있다.
-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 요한계시록 4장 1-11절

##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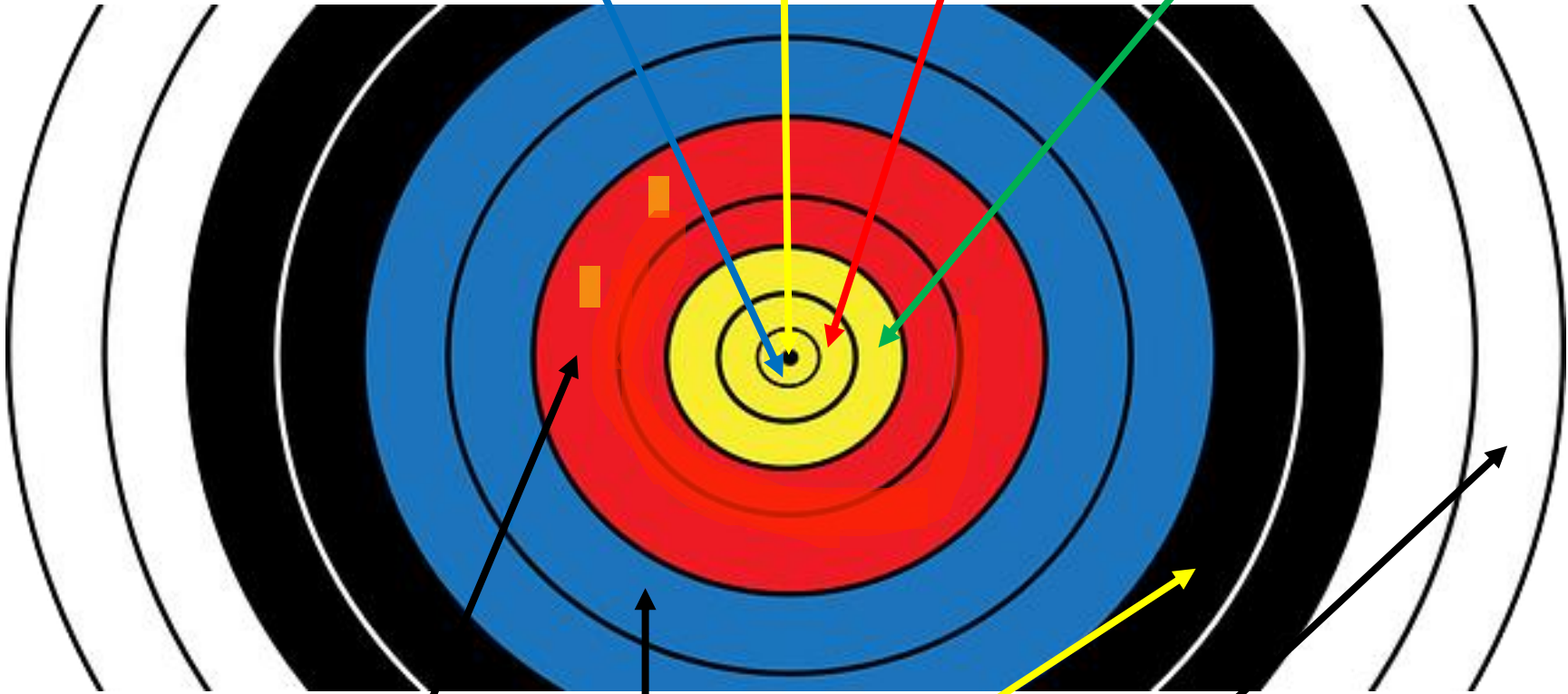
-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속에는 연단과 훈련이 있을 뿐이지, 결코 실패나 패배가 없다.
- 고린도전서 15장 57-58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며, 우리의 수고가 주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였다.

# 요한계시록 4장 1-11절

##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

- 계시록 4장에는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에 관한 환상이 나타나 있다. 이 환상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다.
- 신학자 윌리엄 헨드릭센은 계시록 4장의 하늘 보좌 방과 그 주변 전경의 위치 그리고 온 우주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격 표적지 모양의 그림을 사용한다.

재스퍼 보좌 루비 에메랄드=무지개



네 생물 24장으로 천사들 천지만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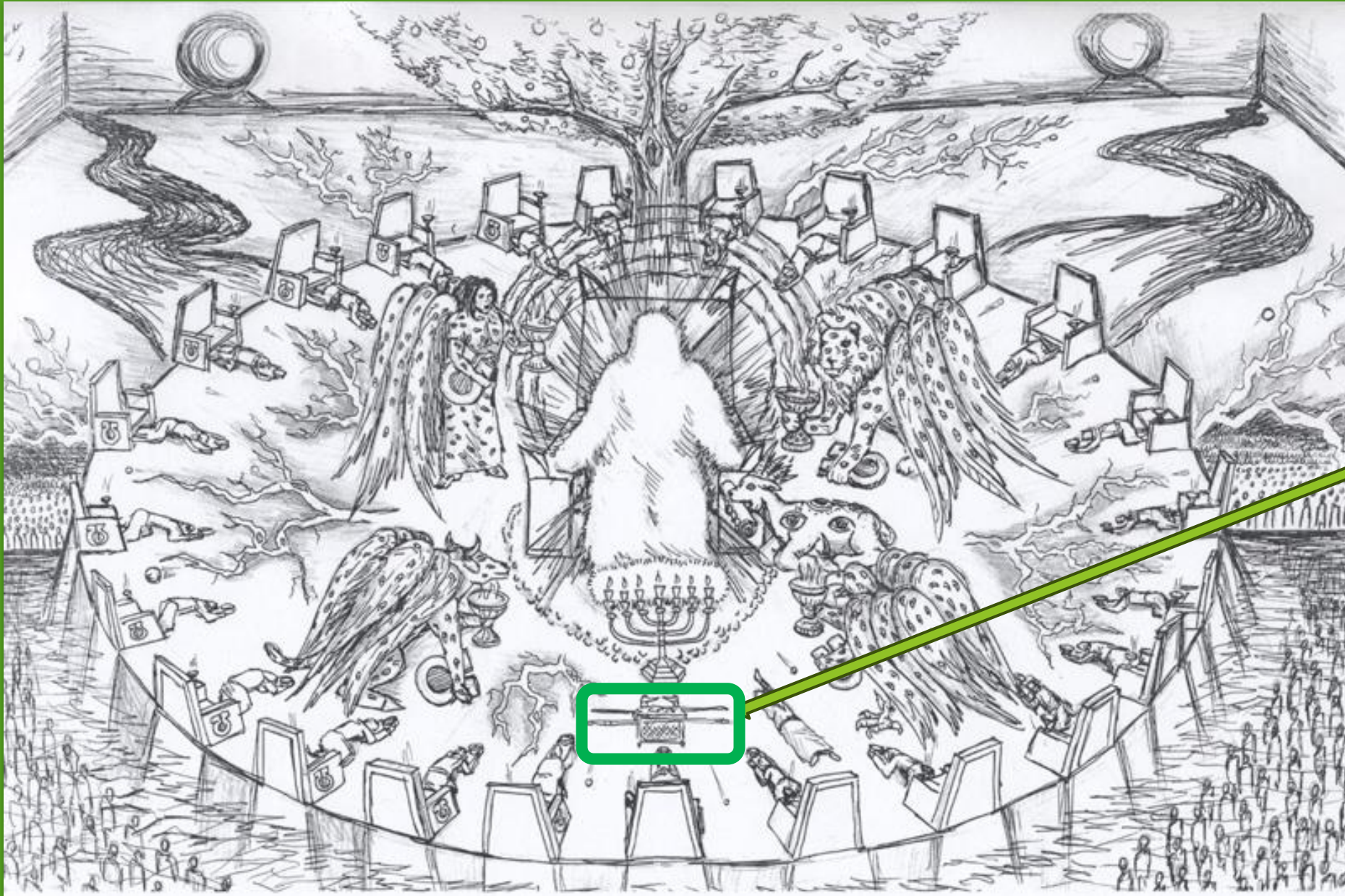
보좌방과 온 우주



### 하늘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계 4-5장)

성소와 지성소가 후장으로 나뉘지 않는다 성소 바닥이 수정처럼 맑고 깨끗하다. 대신에 삼라만상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경배와 찬양을 바친다. 중앙에 백옥과 홍옥 같은 신 야훼께서 보좌(법궤)에 좌정하시고, 그 둘레에 비치옥 같은 무지개 아우라가 펼쳐져 있으며, 여섯 날개와 수많은 눈을 가진 네 생물(케루빔)이 밤낮으로 삼성창을 부른다.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로 밝힌 메노라가 있고, 보좌 둘레에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장로(신구약시대 하나님의 종들의 대표)가 금관을 벗어 바치며 엎드려 야훼께 경배와 찬양을 바친다. 인류의 속죄를 위해 일찍이 죽임을 당했던 어린양 예수님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야훼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좌정하여 계시신다.





법궤가  
보좌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림

## 요한계시록 4장 1-11절

- 중심의 가장 작은 원에서부터 바깥쪽 가장 큰 원에 이르기까지 **일곱 개의 원**을 그려서 4장에 나오는 인물과 가구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
- **계시록 4장 3절**을 보면, 가장 작은 **중심 원 중앙에 보좌(법궤)**가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데, 그 앉은 모습이 푸른 보석 재스퍼(jasper)와 붉은 보석 루비(ruby) 같고, 그 보좌 둘레에는 에메랄드(emerald) 같은 **무지개 아우라**가 있다.

# 요한계시록 4장 1-11절

##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

- **계시록 4장 6-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번째 원**에는 스랍(seraph) 혹은 **그룹(cherubim)**으로 알려진 네 생물이 동서남북에 위치하고 있다.
-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황소**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다.

## 네 생물의 임무

경호  
의전  
경배  
전차



- 비교 -  
고대근동  
수호신들  
라마수

하늘 지성소 보좌지방의 경호 생물 케루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  
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케루빔들은 경호 임무뿐 아니라, 밤낮 쉬지 않고  
삼성창을 부르며 야훼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린다(계 4:6-9).

무지개 아우라  
벽옥(재스퍼),  
홍옥(루비),  
비치옥(에메랄드)

# 요한계시록 4장 1-11절

##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

- 이 네 생물은 각각 **세 쌍의 날개**를 가졌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다.
-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 또 장차 오실 분이시다!**”고 외치고 있다.

## 요한계시록 4장 1-11절

- 이 장면은 **이사야 6장 1-3절**에서도 볼 수 있다.
- 이들 생물들이 부르는 노래는, 오늘날의 개신교 예배에서는 거의 자취를 감췄지만, **상투스(sanctus)** 또는 **삼성창(三聖唱)**이라 하여 4세기 초부터 그리스도교 예배의식에 첨가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네 생물까지가 보좌가 놓여 있는 **단상의 모습**이다. 이 단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 계단을 올라야 한다.

- **계시록 4장 4절과 10-11절**을 보면, 단상 아래에 **다섯 번째 원**이 있고, 그 원에는 **보좌 스물 네 개**가 있고, 그 보좌에는 **장로 스물 네 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월계관을 쓰고 앉아 있다.
- 이들 스물 네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향하여 엎드려서 영원무궁하도록 살아 계신 분께 경배 드리고, 자기들의 월계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은 주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습니다.”고 외치고 있다.

## 요한계시록 4장 1-11절

- **계시록 5장 11-12절**을 보면, **여섯 번째 원에는 수를 알 수 없는 수천수만의 천사들이** 있고, 그들은 큰소리로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
- **계시록 5장 13절**을 보면, 마지막 **일곱 번째 원에는 우주와 모든 생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도 큰소리로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다.

**우주의 통치자  
역사 배후의 큰손  
하나님은 패배 당하지 않으신다.  
God Won't Be Defeated.**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패배 당하지 않는다.  
Christians Won't Be Defeated.**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 요한계시록 4장 7-9절

[7]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9]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 생물 또는 케루빔

첫째, 케루빔(Cherubim)은 지성소를 경호(警護)하는 생물이다.

1) 창세기 3장 24절은 케루빔들이 에덴동산 동쪽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자들로 나온다.

2) 보좌를 경호하는 두 케루빔(법궤, 출 37:6-9) 또는 지성소를 경호하는 네 생물(하늘 지성소, 계시록 4장)로 표현되었다.

- 같은 맥락에서 성막 지성소 앙장과 휘장에 케루빔들(Cherubim)을 수놓아 새겼고(출 36:8,35),
- 케루빔들이 성막지성소(10x10x10규빗, 6평)와 솔로몬성전지성소(20x20x20규빗, 24평)를 지켰다(출 37:6-9, 왕상 6:23-28).



성막 성소 출입구 휘장과 지성소 출입구 휘장의 모습. 지성소 휘장과 널판을 덮는 제양장에 수놓아진 케루빔의 모습은 사람(또는 짐승)의 얼굴과 짐승의 몸체에 세쌍(또는 두쌍)의 날개를 가진 생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수놓아진 케루빔의 실제 모습은 그림과 달랐을 수 있다.



### 솔로몬 성전 지성소 상상도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20x20x20규빗)는 성막 지성소(10x10x10규빗) 크기의 네배였다. 케뤼빔의 날개가 여섯 개씩이었으면 더 좋을 상상도이다. 지성소의 네 케뤼빔은 야훼의 전차이다(대상 28:18).

3)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이자 발판이었으며 속죄소였다.

-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삼상 4:4),
-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삼하 6:2, 대상 13:6),
-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시 80:1),
-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시 99:1),



법궤와 속죄소  
출처: Moshe Levine's book,  
"The Tabernacle". Published by  
Soncino Press, Brooklyn, NY.

-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사 37:16),
- “여호와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대상 28:2),
-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시 132:7, 99:5).
- “증거궤 위 속죄소”(출 25:22, 출 30:6, 레 16:2).

4) 고대근동세계에 케루빔과 유사한 경호 생물 곧 **라마수** (Lamassu)와 **마르두크**(바빌론의 수호신), **스핑크스**가 있었고, 헬라 세계에는 **그리핀**(Griffins)이 있었다.

- 라마수는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서 약 4천 년 전 등장한 아시리아제국 도시의 성문이나 궁전을 지키는 수호신이었다.
- 대영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아시리아관 입구 양쪽면의 라마수(Lamassu)는 4.3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상이다. 정면은 우뚝 선 모습이지만 측면은 걷는 모양새다.



라마수(Lamassu) 석상(넵루드 출토)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주전 721-705) 궁전 코르사바드  
(Khorsabad)의 수호신, 대영박물관 소장.  
라마수는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약 4천년 전에 등장한  
아시리아 제국 도시의 성문이나 궁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 아시리아인들은 수염 달린 사람의 얼굴에 사자나 황소의 몸통에 세 쌍의 새의 날개를 한 석상인 라마수를 만들면서 다리를 하나 더 만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 다리는 다섯 개다. 그렇지만 정면에선 두 개, 측면에서는 네 개만 보이도록 했다.
- 이 때문에 라마수를 정면에서 보면 두 다리로 근엄하게 서 있지만, 지나가면서 보면 영락없이 네 다리로 걷는 모습이다.

- **라마수**는 성이나 궁궐에 사악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물리치는 **수호신**이었다.
- **신격(神格)을 상징하는 황소의 뿔 세 쌍**이 새겨진 관을 쓰고, 턱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라마수는 대부분 한 쌍을 이루어 왕궁이나 성벽의 입구에 서서 사악한 기운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벽사(辟邪)의 기능**을 한다.
-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 해태(해치)**에 비교될 수 있다. 마을 입구에 세워지며, 귀신을 쫓는 마을의 수호신 구실을 한다.

- 라마수는 페르시아에 공물을 바쳐야했던 속주의 사절들이 통과하던 ‘만국의 문’ 앞에도 서 있다.
- 페르시아 궁전의 만국의 문은 23개 지역의 사절단이 페르시아 황제를 알현하기 위해 통과했던 문으로써 페르세폴리스에 그 유적이 남아있다.
- 사람의 얼굴을 한 수호신 라마수, 마르두크, 스팅크스는 현신인 황제들의 두상이다.
- 황제들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수호신이었던 것이다. 보통 머리에 황소의 뿔 세 쌍이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페르시아 궁전의 '만국의 문'을 수호하는 라마수  
'만국의 문'은 23개 지역의 사절단이 페르시아 황제를 알현하고 공물을  
바치기 위해 통과했던 문으로서 페르세폴리스에 그 유적이 남아있다.



むな目。ろあで標軍將ろ見で口入の村くよてし旅を舍田の鮮朝  
れさか驚は人ふ會出てめ始。ろけつみ睨てした相形いし恐し出き  
俗風の鮮朝。ろす心安てい聞と呪の除疫悪はれこ、がる

장승에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란 사상이 담겼다.



화재를 막고  
정의를  
수호하는  
신수(神獸),  
해태(덕수궁)  
혹은 외뿔과  
비늘 몸체를  
가진 사자  
(unicorn-  
lion),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고  
안다는  
상상 속의  
동물 신.  
해치(獬豸  
/獬廌)로  
도 불린다.

- 고대 헬라의 미케네 문명시기의 그리핀(Griffins)은 케루빔처럼 보좌 좌우를 지켰으며, 보통 **독수리 머리와 날개에 사자 몸통**을 하고 있다.
- 그리핀들은 사람의 얼굴에 황소 몸통을 한 수호신 라마수, 사람의 얼굴에 사자 몸통을 한 수호신 스핑크스, 야훼성전의 지성소 보좌(법궐)를 수호하는 케루빔에 비교된다.



크노소스 궁전 북동쪽 입구에 소재한 보좌방  
 보좌 좌우를 그리핀(griffins)들이 지키고 있다. 보통 그리핀들은 독수리  
 머리와 날개에 사자 몸통을 하고 있다. 프레스코화나 석조물에 그리핀들이  
 묘사되기 시작한 것은 쇠망한 미노스문명을 접수한 미케네 문명시기  
 (c. 1450 BC)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핀들은 사람의 얼굴에 황소 몸통을  
 한 수호신 라마수(Lamassu), 사람의 얼굴에 사자 몸통을 한 수호신  
 스팅크스, 야훼성전의 지성소 보좌(법궐)를 수호하는 케루빔에 비교된다.



크노소스 궁전 보좌방의 그리핀  
 보좌 좌우를 그리핀(griffins)들이 지키고 있다. 보통 그리핀들은 독수리  
 머리와 날개에 사자 몸통을 하고 있다. 프레스코화나 석조물에 그리핀이  
 묘사되기 시작한 것은 쇠망한 미노스문명을 접수한 미케네 문명시기  
 (c. 1450 BC)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핀들은 사람의 얼굴에 황소 몸통을  
 한 수호신 라마수(Lamassu), 사람의 얼굴에 사자 몸통을 한 수호신  
 스팅크스, 야훼성전의 지성소 보좌(법궐)를 수호하는 케루빔에 비교된다.



독수리 머리에 사자 몸통을 한 미케네 그리핀(Griffin) 부조(c.1300 BC)



여성 형상의 그리스 스팅크스(주전 5-2세기, 놀라 이탈리아)

## 생물 또는 케루빔

둘째, 케루빔은 하나님의 전차를 끄는 생물이다.

- “수레 곧 금 그룹들”(대상 28:18),
- “그룹을 타고 다니심이어,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시 18:10),
- “그룹을 타고 날으심이어,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삼하 22:11),

## 생물 또는 케루빔

둘째, 케루빔은 하나님의 전차를 끄는 생물이다.

- “여호와와 그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겔 10:15-20).



에스겔이 본 환상: 네 생물과 수레바퀴(에스겔 1, 10장)

## 생물 또는 케루빔

셋째, 하나님 의전(예배, 경배, 찬양 등)을 담당하는 생물이다(계 4:6-9, 사 6:1-4).

- 케루빔들은 여섯 날개의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며**, 그 둘로는 **날면서 밤낮 쉬지 않고 삼성창을 부른다**.



케류빔,  
세라핌,  
천사들.

시칠리아,  
체팔루 성당,  
AD  
1200년경

## 생물 또는 케루빔

넷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생물이다.

1) **계시록 4장 6-9절의 네 생물**은 앞뒤 날개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 날개 세 쌍, 삼성창 및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양, 각각 사자 얼굴, 송아지 얼굴, 사람 얼굴,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다(이사야 6장과 비교).



케류빔:  
여섯 날개와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있음

시칠리아,  
체팔루 성당,  
AD 1200년경

## 생물 또는 케루빔

2) 에스겔 1장의 네 생물은 각각 네 얼굴, 날개 두 쌍, 곧은 다리, 송아지 발바닥, 사방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을 가짐. 넷의 정면 얼굴은 사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쪽은 독수리. 날개 둘은 몸을 가렸고, 둘은 펴서 서로 연결하였다.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번개모양같이 왕래, 생물들 곁에 바퀴가 하나씩 총 네 개,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에스겔이 본 네 생물(by Sweet Media)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다리는 곧은 다리요...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변 구리 같이 빛나며...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날개는 늘어져서 각기 들쭉 서로 연하였고, 또 들은 몸을 가렸더라”(겔 1:6-11).



에스겔이 본 환상: 네 생물과 수레바퀴(에스겔 1, 10장)



날개 달린 바퀴에 앉으신 야훼  
에돔-유대인들이 주조한 쿼터 쉐켈 (주전 333, 영국박물관)로서  
뒷면에 날개 달린 바퀴에 앉으신 야훼께서 왼손에 새를 바치고  
계신 모습과 하단 오른쪽에 수염을 기른 유대인 얼굴을 새겼다.



마차<sup>를</sup> 탄 아스타<sup>를</sup> (AD 222-235년, 시돈, 이스라엘 북부<sup>를</sup> 관)  
전면<sup>을</sup> 둘러<sup>어</sup>에 IVLIA MAESA AVG (Severus Alexander의 모친, 율리아  
마이사 아우구스타, AD 160-224)라 새겼고, 후면<sup>을</sup> 둘러<sup>어</sup>에 COL AVR PIA  
METR SIDON (colonia Aurelia Pia Sidon, 페니키아의 옛 명칭)과  
중앙에 네 개의 올리브<sup>를</sup> 가지<sup>를</sup> 장식<sup>한</sup> 아스타<sup>를</sup> (Astarte)의 전차<sup>를</sup> 새겼<sup>다</sup>.



마다인<sup>2</sup>을 탄 아스타르트(AD 116-117년, 시돈)  
 전면에 도시<sup>2</sup>를 이고 헤일<sup>2</sup>을 쏟 여신 티케(Tyche, 도시의 번영과 운명을  
 지키는 수호신)<sup>2</sup>를 새겼고, 후면<sup>2</sup> 돌리에 ΣΙΔΩΝΟΣ ΠΕΡΑΣ (거룩하고  
 불가침<sup>2</sup>한 시돈)와 날짜 ΚΚΣ (227년)<sup>2</sup>를 새겼으며, 중앙에 아스타르트  
 (Astarte)의 전차<sup>2</sup>를 새겼다.

● 네 생물의 임무: 경호, 의전, 경비, 전차

이들 네 생물 가운데 좌정하시고,  
네 생물을 타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며,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셨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 [1]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찢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 [2]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나,
- [3] 하늘 위어나 땅 위어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 [4]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5]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7]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8]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9]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10]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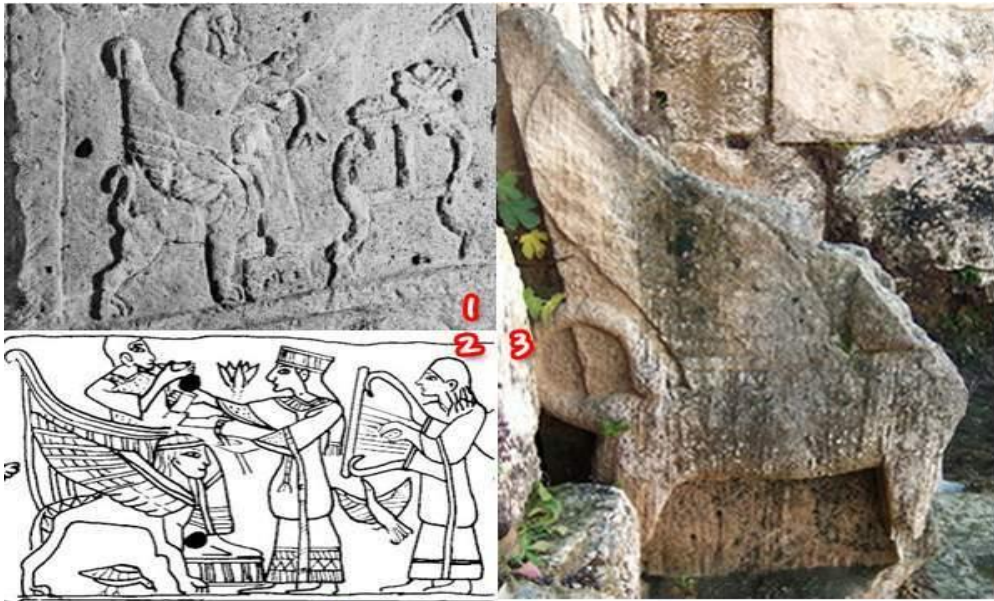
[11]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13]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경호 생물 스피нк스를 부조한 의자들과 하나님의 보좌(법궤)  
 1번은 페니키아 비블로스의 왕 아히롬(Ahirom)의 석관(c. 1000BC),  
 2번은 이스라엘 므깃도에서 출토된 상아음각, 3번은 시돈의 에스문 신전  
 에서 발견된 가나안의 여신 아스타롯의 석좌 및 법궤 덩어리에 세운  
 케루빔 케루빔 안 공간이 하나님의 보좌요, 발판이며, 속죄소였다.



피라미드 입구를 지키는 거대 스피нк스  
 이집트 기자(Giza) 지역에 고왕국 제4왕조(주전 2613-2494)  
 파라오들이었던 쿠푸(Khufu), 카프레(Khafre), 멘카우레(Men-  
 kaure)의 무덤으로 알려진 세 개의 피라미드 입구에 세워져 있다.

# 계시록 1-6장의 구조

## 1-3장 천상의 그리스도와 고난 당하는 지상의 교회들

- **천상의 환상:** 1장의 인자 = 멜기세덱 계열의 영원한 대제사장, 만왕의 왕, 신실한 예언자 그리스도
- **지상의 환상:** 2-3장 일곱 교회 =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세운 교회들

# 계시록 1-6장의 구조

## 4-6장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갈등하는 세상사

- **천상의 환상:** 4-5장의 보좌방 =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천상의 참 성전에서 이뤄지는 참 예배
- **지상의 환상:** 6장의 일곱 인 = 갈등(葛藤)하는 세상(世上史)



계시록 4-5장의 24장로(Otth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고, 아래 가운데에 있는 인물이 사도 요한이다.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 천상에배의 내용

- 4장은 천상의 보좌방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에게 초점이 클로즈업되어졌고,
- 5장은 두루마리와 어린양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 4장은 창조주 하나님,
- 5장은 예수 그리스도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 천상에배의 내용

- 4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고 있고,
- 5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 뿐 아니라, 그들을 백백하게 둘러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어린양'에게 찬양과 경배를 돌려보내고 있다.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 천상에배의 내용

- 5장 13-14절에서는 온 우주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 모두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려보내고 있다.
- 계시록 4-5장은 천상과 지상의 모든 피조물, 곧 온 우주만물이 예배해야 할 대상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이란 점을 보여주고 있다.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 천상에배의 내용

- 결국 성삼위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로부터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들** 이시다.
- **그 밖에 것들**, 곧 영계의 천사들, 마귀, 귀신들,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천상천하의 만물들은 예배를 받을 자들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할 자들이다.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 천상예배의 내용

- **예배와 경배는 피조물들의 당연한 의무.**
- **예배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는 반역자이다.**
- **반역자들의 예: 루시퍼 ( לְלוֹקִי הֶלְלֵל, Lucifer, ‘샛별’,  
겔 28:12-19이하, 사 14:12-19이하). 비교: 벨레로폰  
(Bellerophon)**



밀턴의 실락원의 삽화(귀스타프 도레)



벨레로폰의 추락(1620년경, Tobias Verhaecht)  
 신(아테나)의 은총을 입을만했었을 때에는 그 신으로부터 능력(페가소스)을 덧입고 영웅이 될 수 있었으나 오만하여 신(제우스)의 미움을 샀을 때에는 하늘 높은 곳에서 추락하여 앞을 보지 못하고 한쪽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아테나가 벨레로폰에게 황금 고삐와 페가소스를 인도하는 부조  
 (1859년, 이탈리아 로마, 작가 미상). 벨레로폰이 겸손한 자였을 때 신(아테나)으로부터 능력(페가소스)을 덧입는 은혜를 입고 리물 키마이라를 죽이는 영웅이 되었으나 우쭐하여 교만한 자가 되자 신(제우스)이 그의 능력을 거둬들이어 높은 하늘에서 추락시키자 앞을 보지 못하고 한쪽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어 인적이 드문 오솔길만 다니며 외롭게 살아야 했다.

## 에스겔 28:14-16(두로 왕을 묘사)

- [14]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cherub) 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 [15]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 [16]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 이사야 14:12-15(바빌론 왕을 묘사)

- [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 [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 [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 [15]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벨레로폰과 비교

-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의 **예언 혹은 희망 시구(詩句)**에는 당대와 그 이전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단편적으로 담겼을 수 있다. 그런 단편들이 유대교의 **에녹서**에서 확대 재생산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계시록 5장 1-5절은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에 관한 것이다.

- 이 책의 내용은 6장에서 설명되었는데, **인류 역사의 악순환**을 담고 있다.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 일곱 인 두루마리

- **첫째,** 이 책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 있다.
- 인류의 역사는, 그것이 정복과 번영이든, 전쟁과 죽음이든, 기근과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든, 순교와 평화이든,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 있다.
-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역사를 계획하시고 경영하시는 주관자이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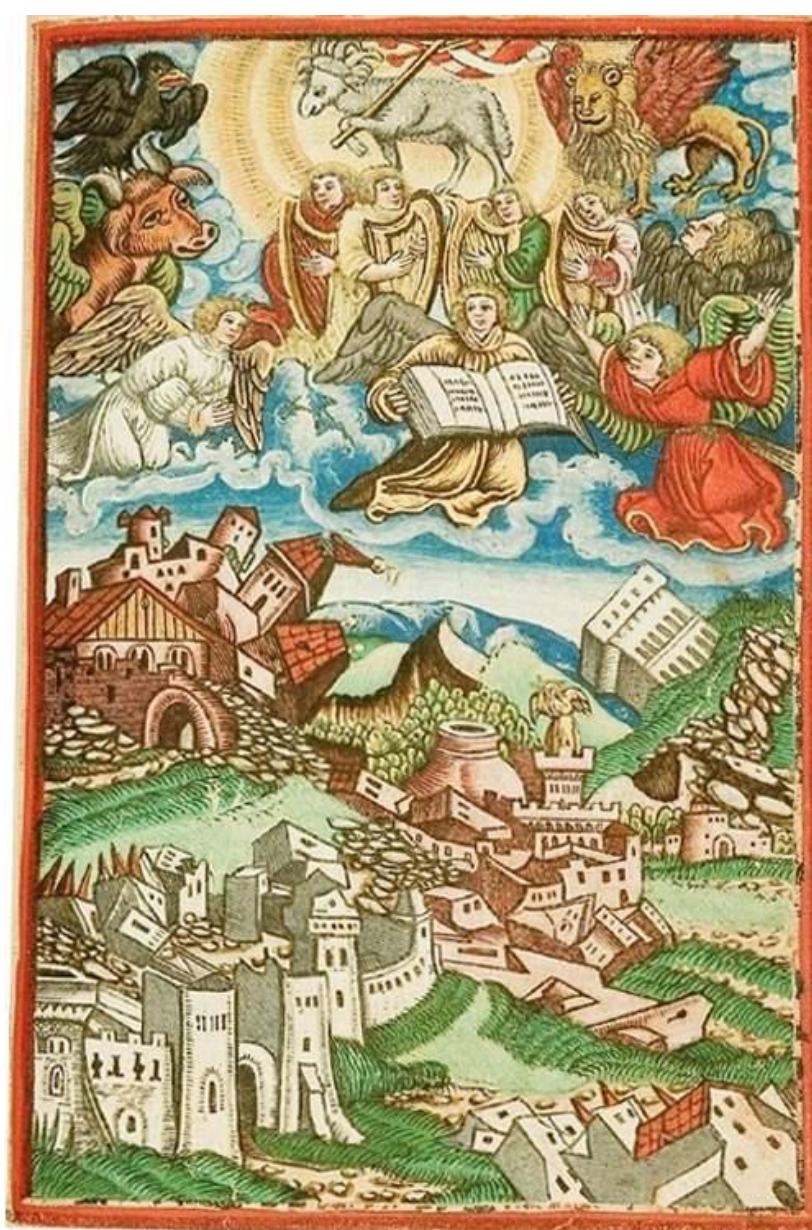
**제우스 니케(승리)  
(그리스 올림피아)**



**아테나 니케(승리)  
(오스트리아 비엔나)**



계시록 4-5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보좌해방의 네 생물과  
 24장로들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4-5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네 생물과 24장로와  
 천사들과 우주만물이 주께 경배하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 일곱 인 두루마리

- 그 점을 인정하고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신앙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잘못되어가도 하나님이 정해 놓은 시간, 곧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실 때(카이로스)를 믿음과 인내로써 기다리게 된다.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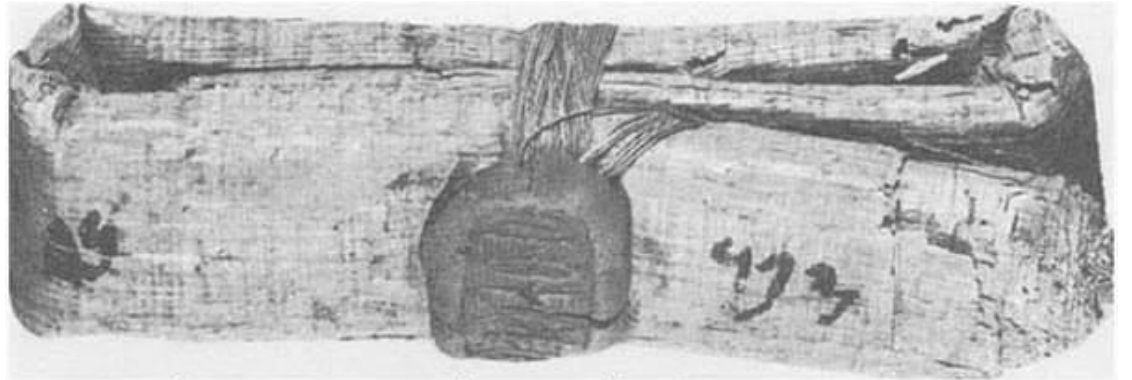
- 이런 맥락에서 계시록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눈을 떠 바로 인식하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신실한 믿음과 불굴의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계시록은 끝내 이긴 자들이 받을 축복과 잠시 동안의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받을 무서운 응보(네메시스)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상세히 보여준다.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 둘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두루마리 책은 안팎으로 글이 가득하고, 일곱 인으로 봉해졌다.
- 이것은 책의 권위와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준다.
- ‘일곱 인으로 봉해졌다’는 말은 두루마리 책을 일곱 개의 끈으로 묶고, 그 일곱 개의 매듭에 진흙을 이겨 바르고 각각의 진흙매듭에 인장을 찍었다는 뜻이다.



일곱 인 두루마리 형태를 시연한 사진들



이집트 엘레판티네에서 발견된 인봉된 주전 5세기 파피루스 문서  
엘레판티네는 바빌론에 유다왕국이 멸망할 당시에 유대인들이  
노예로 끌려갔던 곳이다. 이 문서꾸러미는 1907-08년에 발견되었다.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 일곱 인 두루마리

- 종이봉투와 풀이 없던 2천 년 전 그리스 로마시대의 사람들은 문서를 보낼 때, **끈과 진흙과 인장을 사용**하였고, 통에 넣어 인편으로 보냈다. 문서를 봉인한 이유는 수신자 이외의 사람들이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 기밀을 유지하고, 수신자의 권한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 일곱 인 두루마리

- 셋째, 두루마리 책을 개봉하여 그 내용을 밝혀낼 자격자가 유일하게 어린양 그리스도 뿐이다.
- 하나님의 역사 경륜의 큰 뜻을 공유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No other name broke the sevenfold sealed Scroll than the name of Jesus.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 일곱 인 두루마리

-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마치 어린양이 성막 뜰 제단 앞에서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당하였듯이,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신 어린양이시며, 독생자 하나님이시다.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 일곱 인 두루마리

- **넷째, 두루마리 책은 법궤 속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리스도교 예배의 두 가지 핵심 가운데 하나인 **말씀선포 즉 설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법궤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다.**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 일곱 인 두루마리

-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사와 무관하지 않다.  
고통 당하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관심과 구원을 위한 종합 계획이 담긴 책이 성경이다.
- 그 책의 내용을 풀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이자 **예언**이다.

##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부른 찬양

“주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땅 위에서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 [1]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찢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 [2]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나,
- [3] 하늘 위어나 땅 위어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 [4]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5]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7]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8]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9]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10]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11]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13]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 계시록 5장 6-12절은 어린양에 관한 것이다.  
4-5장은 천상예배 곧 그리스도교예배에  
관한 것이다.
-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속에서 책을 받아’ 일곱  
인들을 하나씩 차례로 부수고 개봉하여 성도들에게  
전달할 **자격자는 어린양**이다.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 일곱 인 두루마리

- **첫째,** 어린양은 주의 만찬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어린양의 피 흘림이 빠진 예배 곧 주의 만찬이 빠진 예배는, 성막과 성전 예배의 관점에서 볼 때, **예배**가 아니라, 유대교 회당예배 성격의 **기도회**이다.
- 주의 만찬이 빠진 예배는 **반쪽 예배**이다. 주의 만찬이 빠진 예배는 1부 '말씀의 예배'만 드리고, 2부 '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 것과 같다.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 일곱 인 두루마리

- **둘째**, 어린양은 보좌와 네 짐승과 장로들 사이에 서서 그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신다.
- 이것은 천상 예배 곧 그리스도교 예배의 중요 부분의 하나인 **찬양**을 말한다.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 일곱 인 두루마리

- 셋째, 어린양 예수님이 승리하신 자요, 자기 피로써 성도를 사신 자요,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갖고 있다.
- 일곱 뿔은 전능을 상징하고, 일곱 눈은 전지를 상징한다.
-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표현한 것이다. 또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는 역설(고후 12:10)**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받아 우리에게 전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드러내 보이신 **독생자 하나님**이시다.
- **넷째**, 어린양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거문고(=찬양)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기도)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린다(=예배).**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 일곱 인 두루마리

-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휘장 입구에 **분향단**(출 30:1-10; 37:25-29)이 놓여 있었다.
- 가로, 세로가 각각 대략 45CM, 높이가 90CM의 **조각목**(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 상자인데, 정금으로 썼다.
- **향은**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만들어 사용했다.



- 분향은 기도를 상징한다(시 141:2, 계 8:3,4).
- 출애굽기 30장 7-8절을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아침때)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사를 지며, 또 저녁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라는 말씀이 있다.
- 이것은 분향단의 향불이 꺼져서도 안 되고, 중단돼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듯이,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살전 5:17). **Pray steadfastly.**

- 계시록 5장 13-14절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천상예배의 클라이맥스 장면이다.
- 4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고 있고,
- 5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 뿐 아니라, 그들을 백백하게 둘러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까지 합세하여 ‘어린양’에게 찬양과 경배를 돌려보내고 있다.

- 5장 13-14절은 종합적으로 온 우주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 모두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려보내고 있다.
-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 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하였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다.

# 요한계시록 5장 1-14절

## 일곱 인 두루마리

- 예배를 받으실 분은 성 삼위 하나님 뿐이다.
- 참여배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주의 만찬과 찬양과 기도이다.
- 지상에서 드러지는 예배와 기도는 마치 향기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  
(찬양)  
하고

힘쓰니라(행 2:42).

떡(빵)  
을  
떼며

오로지  
기도  
하기를

## 천상 예배자들의 대열에 포함되려면...

- 요한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함을 볼 수 있어야 한다.
- 헨델처럼 믿음의 귀를 열어서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장엄한 찬송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시다.
- 하나님은 인간역사를 시작하신 분, 간섭하시는 분, 끝을 내실 분이시다.
-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 죽음과 행불행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폭풍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폭풍을 벗어나 안전한 포구에 도달할 수 있다.

- 4장 5-6절에서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을 켜 금 등대와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 5장 6절에서 어린양은 보좌와 네 짐승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신다. 이 어린 양 예수님은 승리하신 자요,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을 펴거나 읽기에 합당한 분, 피로써 성도를 사신 분,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 어린양에게 뿔 **일곱**과 눈 **일곱**이 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일곱 뿔, 일곱 눈 = 전능 전지한 성령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속성)

- 일곱이란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이므로 절단코 문자적인 일곱으로 해석될 수 없다.
- 따라서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하나님의 일곱 영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성령을 말한 것이다.
- **뿔은 고대 근동세계에서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뿔 가진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고, 제단에도 뿔로 장식을 했다.
- **일곱 눈은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상징한다.** 어린양에게 뿔 일곱과 눈 일곱이 있다는 말은 부활 승천한 **예수님에게 전지전능한 성령이 계시다는 뜻이다.**



폭풍을 잔잔케 하신 그리스도  
(Bernhard Plockhorst, 1825-1907)



일곱 벌과 일곱 눈으로 표현된 어린양과 가시관을 쓰신 그리스도  
일곱 벌과 일곱 눈을 가진 어린양은 약함이 강함이라는 역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가시관을 쓰신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는  
완전한 능력이고, 완전한 지혜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인자(1장)의 모습과 어린양(5장)의 모습은 **폭풍을 잔잔케 하실 능력의 예수님을 강약(強弱) 혹은 약강(弱強)으로 표현하였다.**

- 계시록 4-5장은 인류의 역사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 즉 **천상의 백악관**의 모습을 보여준다.
-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가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을 다스리신다.**
- **그러므로 이 우주는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다.**
- 이 우주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아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된다.

-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는 목적 없이 진행될 수 없고, 돌고 도는 윤회의 역사일 수 없다.
-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지배아래 진행된다.**
-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막을 내리게 되고, 새 인류를 위한 역사의 막이 오르게 된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0% 안전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승리자 그리스도



## 요한계시록 6장 1-17절

[1]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렛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3]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 요한계시록 6장 1-17절

[4]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5]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 요한계시록 6장 1-17절

[7]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9]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 요한계시록 6장 1-17절

[10]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기록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12]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 같이 되며,

[13]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15]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16절, “보좌에 앉으신 이”는 야훼  
하나님, 보좌는 법궤를 말한다.

- 법궤는 하나님께서 딛고 서신 발판이자 속죄소였다.
-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삼상 4:4),
-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삼하 6:2, 대상 13:6),
-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시 80:1),



법궤와 속죄소  
출처: Moshe Levine's book,  
"The Tabernacle". Published by  
Soncino Press, Brooklyn, NY.

-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시 99:1),
-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사 37:16),
-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대상 28:2),
-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시 132:7, 99:5).
- “증거궤 위 속죄소”(출 25:22, 출 30:6, 레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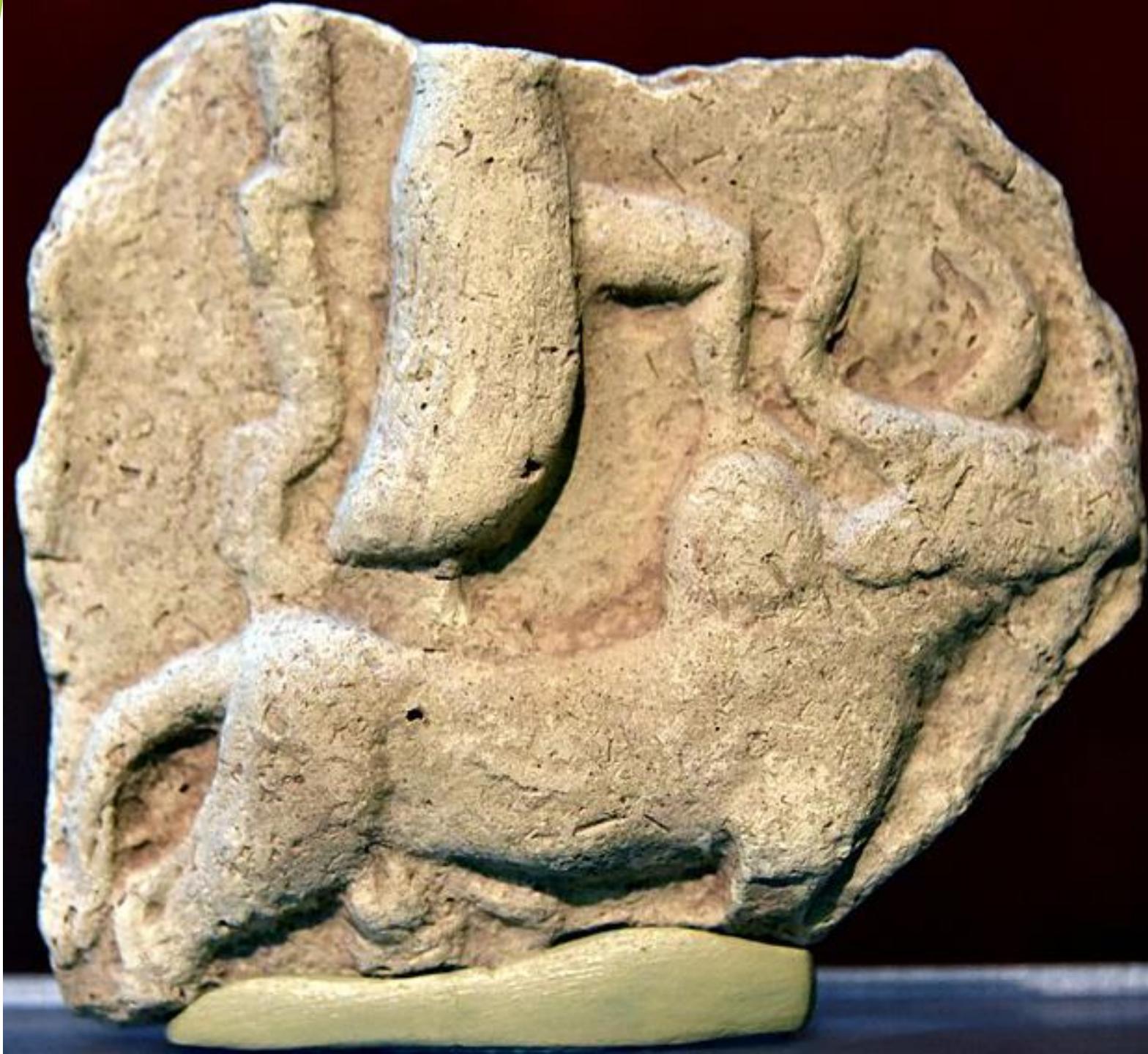


황소(발등상) 등에  
올라선 **바알(Baal)**  
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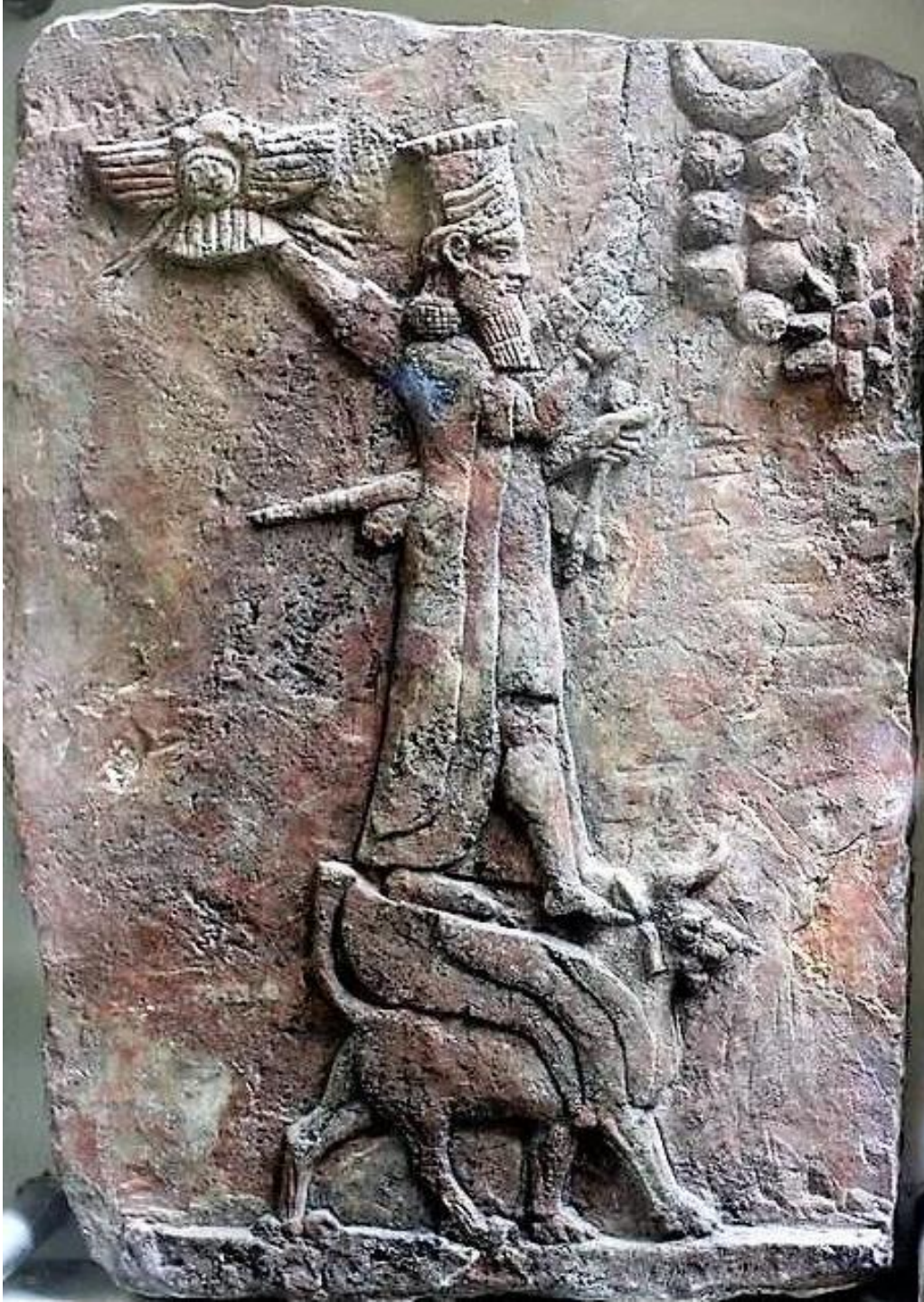
**아다드(Adad/Hdad)**가  
번개를 휘두르는  
모습<시리아 북부  
아르슬란 타쉬(Arslan  
Tash)의 아시리아  
비석(8 BC, 루브르  
박물관).

**바알/아다드=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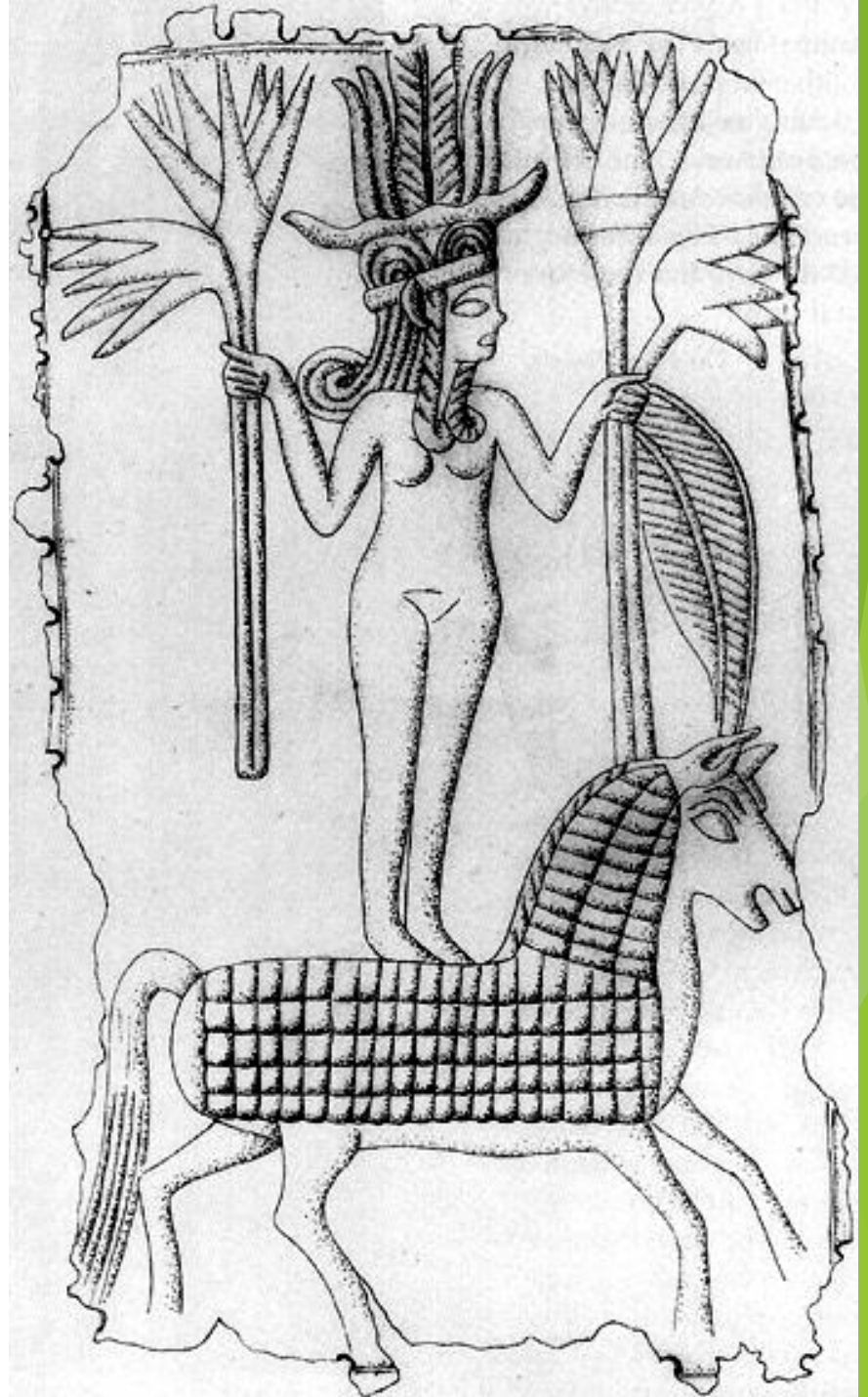


황소(발등상)  
등에 올라선  
**바알** 혹은  
**아다드(하다드)**  
를 묘사한  
테라코타. (주전  
18-16세기,  
이라크  
술레이마니아  
(Sulaymaniyah)  
박물관



- 황소(발등상) 등에 올라선 신상은 **황제**였을 것이다.
- 황제는 **제국의 번영과 안녕을 보장하는 수호신**이었다.

라기스에서  
발견된  
금박에 새겨진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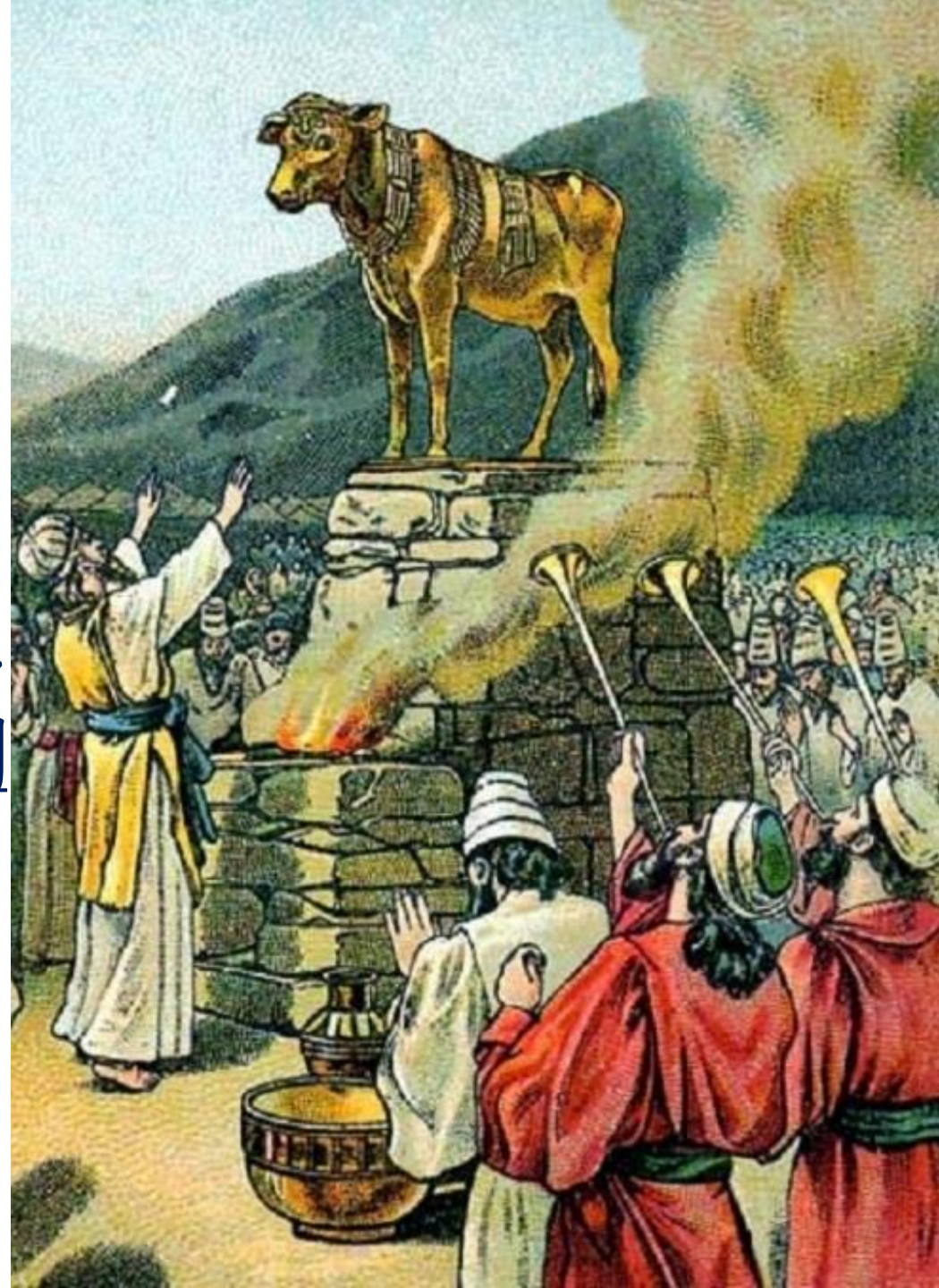
짐승들(발등상) 등에  
올라선 메소포타미아의  
신 아누(Anu)와 그의  
왕실 가족을 묘사한  
부조





고대근동에서 황소는  
신들의 발등상이었다.  
황소 등에 선 **바알 혹은  
아(하)다드**는 제국의  
수호신 황제(왕)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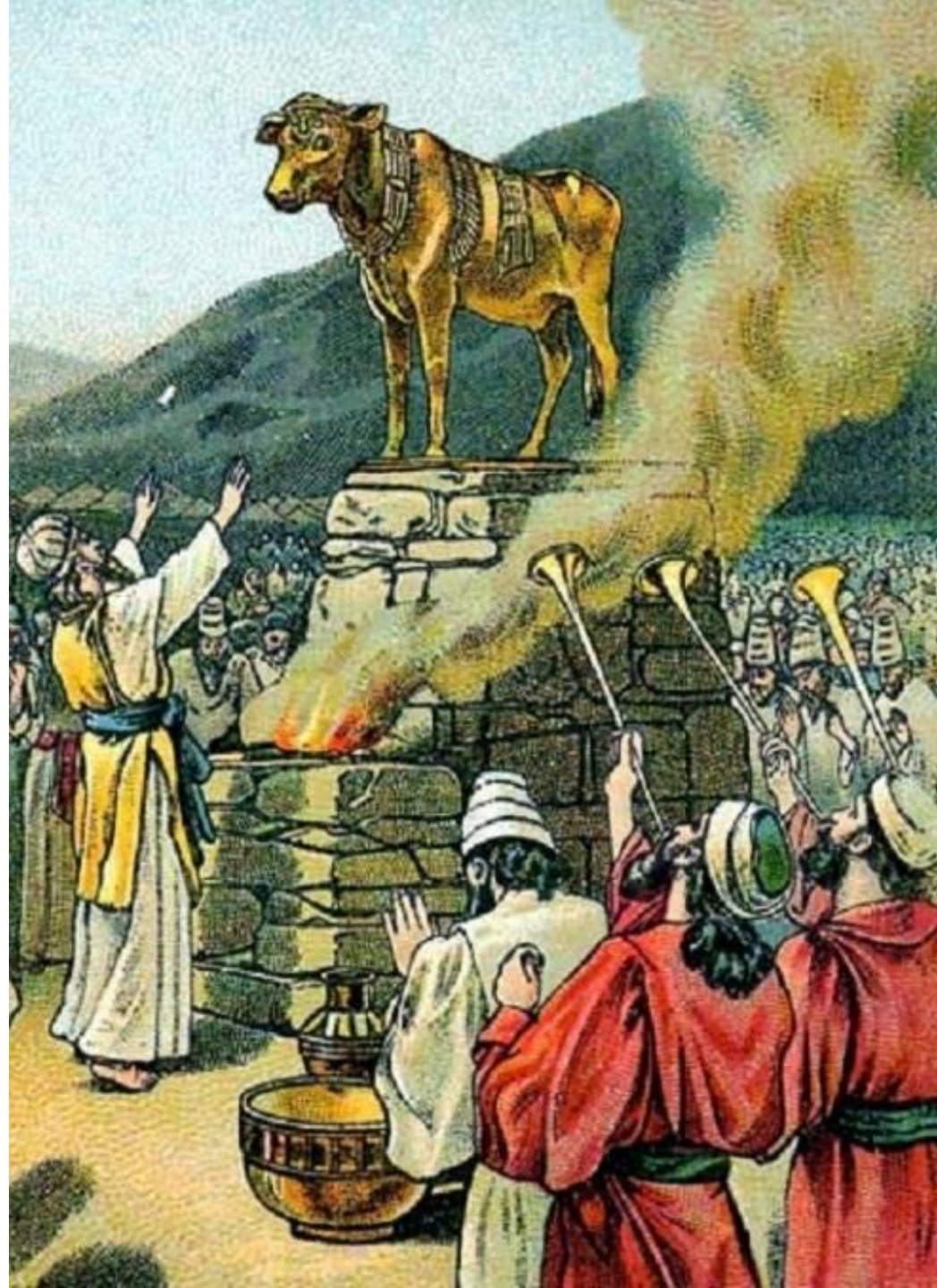
아론과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등 위에 우상이  
없는 것은 금송아지가  
우상제조가 금지된  
야훼의 발등상이기  
때문이였을 가능성이  
크다(시 132:7).





← **법궤**  
**발등상(보좌)**과  
금송아지 →  
**발등상(보좌)의**  
**차이**

← **언약(말씀)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황금(풍요)의** →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차이**



법궤와 속죄소

출처: Moshe Levine's book,  
"The Tabernacle". Published by  
Soncino Press, Brooklyn, NY.

## 요한계시록 6장 1-17절

- 계시록 6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린양 예수님을 통해서 일곱 매듭을 묶고 봉인한 책을 펼쳐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준다.
- 이 일곱 봉인의 비밀은 ‘인 재앙’으로 불린다.
- 여기에는 네 가지 색의 말이 등장하는데, 첫째 인에 나오는 흰말은 승리, 둘째 인에 나오는 붉은 말은 전쟁의 파괴, 셋째 인에 나오는 검은 말은 기근의 피해, 넷째 인에 나오는 청황색 말은 죽음(음부)을 상징한다.

## 요한계시록 6장 1-17절

- 다섯째 인은 신앙인들의 순교, 여섯째 인은 천재지변, 일곱째 인은 평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지상에서 펼쳐지는 역사의 악순환을 드라마틱하게 그림(영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 이 같은 일들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있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계시록 6장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난 환상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6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난 환상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6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고,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난 환상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6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을 펴낼 때 나타난 환상을 묘사하였다.

# 계시록의 분리와 반복

- 계시록은 천상과 지상의 내용을 교대로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점차 그 강도를 높여가는 게 특징이다(참고: 출애굽 직전 열 가지 표적/재앙).
- 6장에 나오는 일곱 인재앙보다 8-9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재앙의 강도가 더 강하고, 일곱 나팔재앙보다 15-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재앙의 강도가 더 강하다.
- 계시록은 희망과 절망의 내용을 교대로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점차 그 강도를 높여가는 게 특징이다.

# 계시록의 분리와 반복

- **1장에서** 인류의 희망이신 천상의 그리스도를 인자의 환상으로 보여준 후에 **2-3장에서**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4-5장에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세상을 이기신 ‘어린양’의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보여준 후에 **6장에서** 고통 당하는 세상사를 보여준다.

## 계시록의 분리와 반복

- 그리고 **7장에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있다’(계 7:10)는 것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세상이 주는 환란을 이기고 나서 낙원에서 누릴 참 안식을 보여준 후에 **8-9장에서** 하나님과 그 어린양을 배척하고 반역한 자들이 받게 될 보응(Nemesis)을 보여준다.

# 계시록의 분리와 반복

- 14장에서 또 다시 천상에서의 축복을 강도 높게 보여준 후에 15-16장에서 더욱 강도 높은 지옥에서의 보응(Nemesis)을 보여준다.
-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19장 이후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인류의 궁극적인 희망인 지복의 세계를 보여준다.
- 이런 점에서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희망의 책이다.  
반면에 불신자들, 배신자들에게는 저주의 책이다.

## 요한계시록 6장 1-17절

- **6장은** 온 인류가 다 함께 세상에서 겪는 절망에 관한 글이다. 특히 일곱 인들은 지상에서 펼쳐지는 '죽음의 향연' 또는 '역사의 악순환'에 관한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의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이지, **세상의 끝을 말한 것은 아니다.**
- 계시록의 끝은 인류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하티크바(Ha-Tikvah) 곧 다가올 세상에 대한 희망이다.

## 요한계시록 6장 1-17절

- 계시록은 인류에게 절망을 보여 주려 한 게 아니라, 희망으로 활짝 열린 미래를 보여주려 한 것이다.
- 그러므로 계시록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여 주는 데서 출발하여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가 세우실 영원한 참 안식의 세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을 보여줌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 요한계시록 6장 1-17절

## 네 필의 말과 기마 자들

- 계시록은 많은 부분에서 구약성경과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계시록 6장은** 제5장에서 언급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있었던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공개되는 곳**이다.
- **구약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두루마리 책과 공개된 네 마리 말들에 대한 글이 있다.

# 네 필의 말과 기마 자들

- 에스겔 2장 9-10절에 보면,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고 하였고,
- 스가랴 6장 1-8절에는 **백마, 홍마, 흑마 그리고 얼룩 점박이 말**들이 나온다.
- 에스겔 2장의 두루마리 책은 계시록 5장의 두루마리 책과 어떤 분명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 스가랴 6장의 네 종류의 말들은 계시록 6장의 네 마리 말들과 분명한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 에스겔 2장

[8]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9]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 계시록 10장

[9]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 네 필의 말과 기마 자들

-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은** 백마와 그 말을 탄자의 거듭된 **승리**를 말하고 있다(1-2절). 백마를 탄자는 활을 가졌고 승리를 상징하는 관을 쓰고 있다.
- 이 장면은 프랑스의 조각가 부르델(1861-1929)이 1910년에 조각한 **‘활 쏘는 헤라클레스,’** 주전 333년에 터키 이소스(Issus)에서 치러진 **알렉산더와 다리우스 3세의 전투장면**을 묘사한 모자이크 그림, 또 이 전투를 리얼하게 재구성한 **영화 ‘알렉산더’**는 영웅들의 폭발적인 힘과 정열을 최대치로 보여준다.



부르델(1861-1929)의 활 쏘는 헤라클레스 및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



**메두사를 새긴 갑옷을 입고 부케팔로스를  
몰고 이수스 전투(333BC)에 나선 알렉산더**

- 그리고 계시록 6장 2절에서 **첫째 인의 백마 탄자는** 그가 활을 가졌고, 승리의 관을 썼다는 점에서 **헤라클레스와 알렉산더 대왕을 연상시켜준다.**
-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과 14절에서는 **최후의 승자인 그리스도와 그 뒤를 쫓는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있다.
- 만약 이 백마 탄자가 그리스도시라면, 유대교적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군주적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는 복음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해주는 것이 된다.
- 그러나 만약 이 백마 탄자가 역사적인 영웅호걸들의 상징이라면, 크고 작은 국제분쟁들을 상징하게 된다.

## 요한계시록 6장 1-17절

-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군주적 메시아가 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셨다는 점이고, 그 점이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를 다르게 만드는 주된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란 점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은** 복음서와 서신들에서 언급된 구세주로서의 메시아를 말하기보다는 **심판주와 재림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군주적 메시아 상을 보여주고 있다.**

# 요한계시록 6장 1-17절

## 네 필의 말과 기마 자들

- 계시록 6장에서 **둘째 인은 홍마와 기마 자가 땅에서** 평화를 걷어 버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큰 칼의 권세를 갖고 있음을 말한다(3-4절).
- 여기서 **붉은 말은 내란과 동란과 같은 동족간의 전쟁**을 말한다. 이런 전쟁들은 모든 나라들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역사의 악순환이다.

# 요한계시록 6장 1-17절

## 네 필의 말과 기마 자들

- 계시록 6장에서 셋째 인은 흑마와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음을 말한다(5-6절).
- 여기서 **검은 말과 저울은 기근**을 상징한다(렘 14:2).
- 기근과 연관된 저울질에 관한 내용은 구약성서 여기저기에 많다(겔 4:9-16, 레 26:26).
- 저울질은 배급을 위한 것으로써 주린 배를 채울 수 없는 적은 양과 관련된다.

# 요한계시록 6장 1-17절

## 네 췌의 말과 기마 자들

- 6절에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말씀은 기근으로 인해서 평상시보다 열 배 정도 곡물가격이 치솟은 것을 말한다.
- 노동자가 하루 벌어 살 수 있는 밀의 양이 한 사람이 먹을 양 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 요한계시록 6장 1-17절

## 네 썰의 말과 기마 자들

- 세 식구 정도의 가족이 먹기 위해서는 밀보다 맛과 영양이 떨어지는 보리를 사야 한다.
-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는 말은 기근이 뿌리 깊은 나무들이 말라죽을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 올리브유는 성령님의 임재를, 포도주는 부활을 상징한다.

# 요한계시록 6장 1-17절

## 네 필의 말과 기마 자들

-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뿌리를 깊게 내린 성도라면, 엘리야처럼 극심한 기근을 당해도 타격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
- 계시록 6장에서 **넷째 인은 청황색말과 기마 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뒤따르고 있음을 말한다(7-8절).**

# 요한계시록 6장 1-17절

## 네 필의 말과 기마 자들

- **청황색은** 시체의 색깔로써 전쟁과 기근을 제외한 **각종 질병과 사고들로 인한 죽음**을 상징한다.
- **이상의 네 종류의 말들과 그 기마 자들은**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들으로써 사람들을 죽인다. 그러니까 **인류의 사분의 일이** **국내외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각종 사고와 맹수의 공격을 받아 죽게 된다는 것이다(8절).**

## 그러나

- 계시록은 성도들에게 ‘희망의 책’이다.
- 계시록의 끝은 인류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Ha-Tikvah)이다.
- 하티크바(Ha-Tikvah) 곧 ‘다가올 세상에 대한 희망’이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 요한계시록 6장 1-17절

[1]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렛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3]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 요한계시록 6장 1-17절

[4]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5]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 요한계시록 6장 1-17절

[7]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8]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으로써 죽이더라.

[9]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 요한계시록 6장 1-17절

[10]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기록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12]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 같이 되며,

[13]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15]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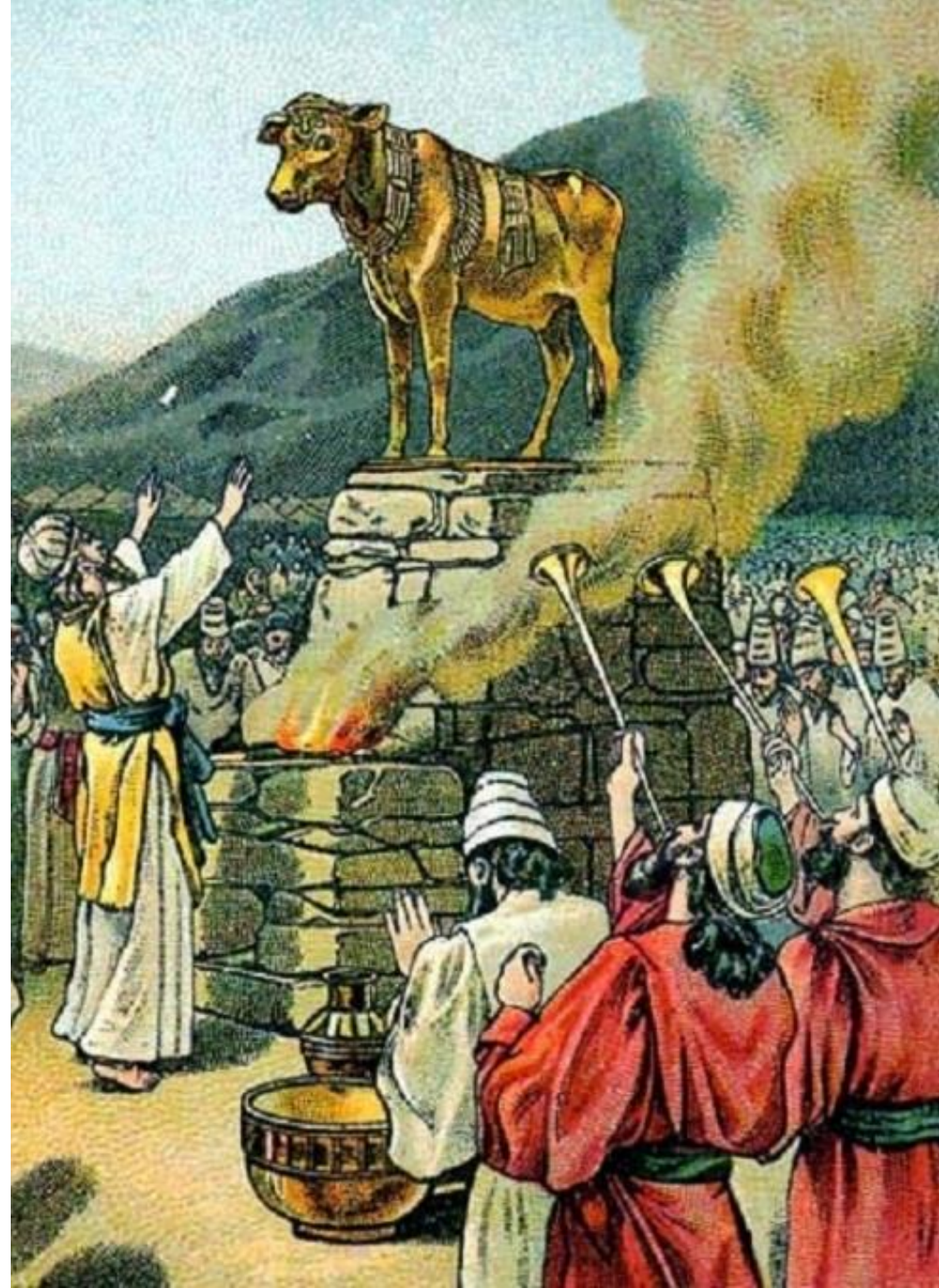


법궤와 속죄소

출처: Moshe Levine's book, "The Tabernacle". Published by Soncino Press, Brooklyn, NY.

← 법궤  
발등상(보좌)과  
금송아지 →  
발등상(보좌)의  
차이

← 언약(말씀)의  
하나님을 믿는  
신본 신앙과  
황금(풍요)의 →  
하나님을 믿는  
인본 신앙의 차이





## 스가랴 5:1-4의 날아가는 두루마리

- 솔로몬 성전  
지성소의  
한 면을  
채울 수 있는 크기

날아가는 두루마리(슌 5:1-4)  
 두루마리의 크기는 길이 이십 구빗(9m), 너비 십 구빗(4.5m)  
 으로서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가 기록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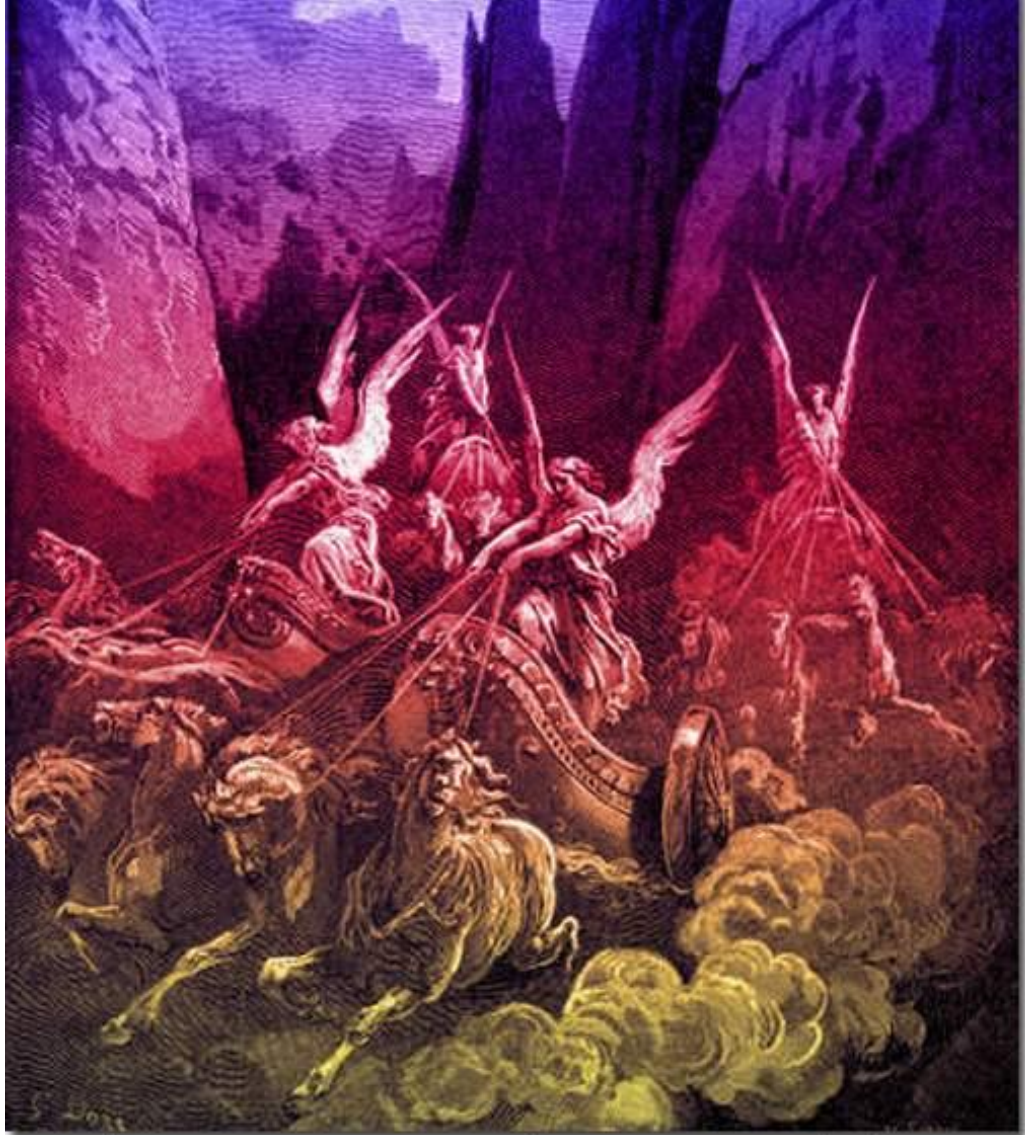
## 스가랴와 계시록의 말들 비교

순서	슌1:8-17	슌6:1-8	계6:1-8
1	붉은 말과 사람	병거와 붉은 말들	백마와 활 가진 자
2	붉은 말	병거와 검은 말들	붉은 말과 칼 받은 자
3	자줏빛 말	병거와 백마들	흑마와 저울 든 자
4	백마	병거와 어둥지고 건장한 말들	청황색 말과 사망

## 스가랴 1:8-17, 6:1-8의 말들은

- 계시록의 말들과 큰 관련이 없어 보임

스가랴 1장 8-17의 말들과 기마 자는 땅을 두루 살피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스키랴 6장 1-8절의 말들과 기마 자들은 땅에 두루 다니는 하늘의 네 영들(바람들)이다. 계시록 6장 1-8절의 말들과 기마 자들은 네 생물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 스가랴의 말들은

- 계시록의  
말들과  
큰 관련이  
없어 보임

두 뿔쇠로 된 산 사이에서 나온 네 대의 병거(숙 6:1-8)  
이 병거들은 하늘의 영(바라함)들로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라는  
천사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건장하였다.

# 요한계시록 6장 1-17절

## 네 필의 말과 기마 자들

-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 인은 순교자들과 그들의 탄원을 말한다(9-11절).
- 순교자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8-9장에서 펼쳐질 일곱 나팔재앙이다.
-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은 천재지변(天災地變) 혹은 천체의 파멸과 최후심판을 말한다(12-17절).

# 요한계시록 6장 1-17절

## 네 필의 말과 기마 자들

- 일곱 인들 가운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지상에서 펼쳐지는 역사의 악순환을 그린 것이고, 여섯 번째 인은 천재지변 혹은 처참한 천체와 지구의 파멸을 말한다. 큰 지진이 나고, 해와 달과 별이 죽고, 하늘과 산과 섬들이 사라진다.
- 17절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견딜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 요한계시록 6장 1-17절

## 네 필의 말과 기마 자들

-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은 8장 1절에 나오는데, 반시간 정도의 침묵을 말한다.
- 앞선 여섯 개의 인들에서 언급된 ‘죽음의 향연’ 또는 역사의 악순환을 배경으로 천상과 지상 모두에 적용되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 이 점은 일곱 번째 나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반시간 정도의 침묵은

- 제7장에 언급된 대로 큰 환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구원 받은 성도들이 죽은 후 **낙원에서 누리는 참 안식**을 말한 것일 수 있고,
- 폭풍전야의 고요처럼 세상을 심판하는 일곱 나팔 재앙이 내리기 직전의 **무거운 침묵(폭풍 직전의 고요)**을 말한 것일 수도 있으며,
- 인류역사의 악순환에도 불구하고 늘 그랬던 것처럼 **일시적인 평화로움**을 말한 것일 수도 있다.

## 반시간 정도의 침묵은

- 따라서 **안식, 평화, 혹은 죽음을 의미한 것일 수 있다.**
- 중요한 것은 일곱 나팔재앙이나 일곱 대접재앙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 받은 성도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란 점이다.**
- **그것은 마치 고센 땅에서 고통 당하던 히브리인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안식의 상징인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완고한 이집트인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과 같다.**

# 일곱 번째 인을 떼신 이후의 일

- 일곱 번째 인을 떼신 이후의 일을 보면(8:1),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받고(8:2), 나팔 불기를 예비하는 장면(8:6)과
- 다른 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 담는다.
- 이 향들은 성도의 기도들과 함께 보좌 앞 금단에 드러질 것들이다(8:3).

# 일곱 번째 인을 떼신 이후의 일

- 향의 연기와 성도들의 기도들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8:4).
-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보좌 앞에 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거문고(찬양)와 향(기도)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갖고 있는데, 금 대접에 담긴 향은 성도의 기도들 이라고 하였다.
- 5장 8절과 8장 3절을 종합해 볼 때, 금향로에 담긴 향은 예배의 향, 곧 향기로운 예배 그 자체이거나 성도의 기도들이거나, 또는 금향로 속에 예배의 향과 성도의 기도들이 함께 담긴 것을 말한 것일 수 있다.

## 일곱 번째 인을 떼신 이후의 일

- 이것은, 광야시대 때, 성막 뜰 제단에서 피어나는 제물(예배)의 향기와 성막 지성소 앞 금향로에서 피어나는 향(기도)의 연기가 합하여 지성소 서편 끝 법궤 뚜껑 위 시은소, 곧 하나님의 보좌에로 피어 들었던 것의 원형과 실체로써 천상성막 지성소의 보좌를 옹위한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의 손에 들려진 금향로에서 피어나는 향은 다름 아닌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상달되어지는 것임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이다.

- 그 한 예로써 소개된 기도가 주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제단 아래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한 것이다(6:9).
- 이 탄원은 6장 10절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이다. 이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상징인 흰옷을 주시며 11절에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하셨다.
- 그리고 바로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곱 나팔재앙이다.

## 계시록 4-6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님은 온 우주만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 **둘째,** 인류역사는 국내외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이다.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파멸이다. 따라서 세상에서 안식을 구하는 자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 당할 것이다.

- **셋째**,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자이고, “마음의 눈”이 열린 자이며(엡 1:17-18), 귀가 열린 자이며, 깨닫는 자이다.
- **눈을 떠서 우주의 주관자이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세상을 이기신 어린양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잘못되어져 가도 **하나님이 정해 놓은 시간**, 곧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실 때(카이로스)를 믿음과 인내로써 기다리게 된다.

# 계시록은

- ▶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특별한 자인** **것을 알고** 끝까지 참고 이긴 자들이 받을 **축복과**
- ▶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특별한 자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잠시 동안의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받을 무서운 **응보(네메시스)**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상세히 보여준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 요한계시록 7장 1-17절

[1]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 요한계시록 7장 1-17절

[4]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5]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갓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6]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7] 시므온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잇사갈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 요한계시록 7장 1-17절

[8] 스블론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일만 이천이라

[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 요한계시록 7장 1-17절

[11]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3]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시록 7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천사들과 지파별로  
12,000명씩 인침을 받은 144,000를 묘사하였다.



계시록 7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천사들과 지파별로 12,000명씩 인침을 받은 144,000를 묘사하였다.

# 요한계시록 7장 1-17절

## 구원받은 천상의 백성

- 계시록 7장은 천상의 환상이다.
- 지상에서 펼쳐질 일곱 나팔재앙을 피한 구원받은 큰 무리에게 주어진 안식에 관한 환상이다.
-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고 한 것처럼, 이들 **천상에 운집한 셀 수 없는 무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 요한계시록 7장 1-17절

## 구원받은 천상의 백성

- 이 환상에서 **천상의 구원받은 백성과 지상의 저주받을 백성이 구별되고, 철저히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시 103:12), 하늘의 백성과 땅의 백성이 멀리 떨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 계시록 7장 1절에 **네 천사**가 나온다.
- 그들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네 바람을 붙잡고,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 요한계시록 7장 1-17절

- 여기서 ‘땅의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 지구를 말하고,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2절) 자들이다.
- 그들은 여섯 번째 나팔재앙 때에 놓일 유프라테스 강에 매여 있던 네 천사들과 관련된다.
- 중요한 것은 영원한 멸망을 상징하는 **그 어떤 재앙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된 자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고, **생사회복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 요한계시록 7장 1-17절

- 참고로 출애굽 사건 때 **피, 개구리, 이 재앙만**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인들과 함께 겪었고 나머지 6개 재앙은 이집트인들만 당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연단을 위한 고난을 당할지 인정 결코 재앙을 받지 않는다.**  
**그들의 몫은 영생의 복이지 저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 이 점에서 우리는 3절의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 두 백성의 분리의 모형

- **첫 번째 모형은** 노아의 방주와 홍수심판에서 볼 수 있다(창 6-8장).
-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사람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는 안전한 **방주에 피신**하여 재앙을 면하였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홍수로 재앙**을 당했다.
- 구원의 방주에 탄 하나님의 사람들과 창일한 물속에서 참담하게 죽어 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여기서 **대홍수는 영멸재앙의 모형**이다.

## 두 백성의 분리의 모형

- 두 번째 모형은 **소알로 피신**한 롯과 두 딸과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타는 소돔과 고모라**에 남은 불행한 사람들에서 볼 수 있다.
- 천사들의 경고를 받고 안전한 곳에 피신한 롯과 두 딸의 안도와 불세례를 받아 타 죽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 여기서 **소돔의 멸망은 영멸재앙의 모형**이다.

## 두 백성의 분리의 모형

- 세 번째 모형은 출애굽 사건 때 여섯 가지 재앙을 면한 **고센 땅에 분리된 히브리 민족**과 열 가지 재앙들을 고스란히 당한 **이집트인들**에서 볼 수 있다.
- 고센 땅의 히브리인들이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어린양의 피**는 계시록에서 말한 ‘**인침**’과 깊은 관련이 있다. 양의 피를 발라 장자들과 모든 만배의 죽음을 면한 히브리인들의 안도와 시체들을 앞에 놓고 통곡하는 이집트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 여기서 **장자재앙은 영멸재앙의 모형**이다.

## 두 백성의 분리의 모형

- 네 번째 모형은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해변에 운집하여 부르는 해방의 노래, 구원의 노래와 붉은 바다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이집트 마병대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 여기서 홍해의 물은 영멸재앙의 모형이다.
- 계시록은 이런 대조적인 모습들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시편 1편의 노래처럼,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준다.

## 요한계시록 7장 1-17절

- 신약성경에는 **‘인침’** 곧 **‘도장 찍음’**이란 말이 여러 번 쓰였다.
- 바울은 구원의 상징인 천국 **‘기업’**(땅)의 **‘약속’**(약정서)의 **‘보증’**(선수금)과 **‘인침’**(인감 찍음)으로써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13-14절과 고린도후서 1장 21-22절에서 말씀하셨다.
- 따라서 **‘인침’은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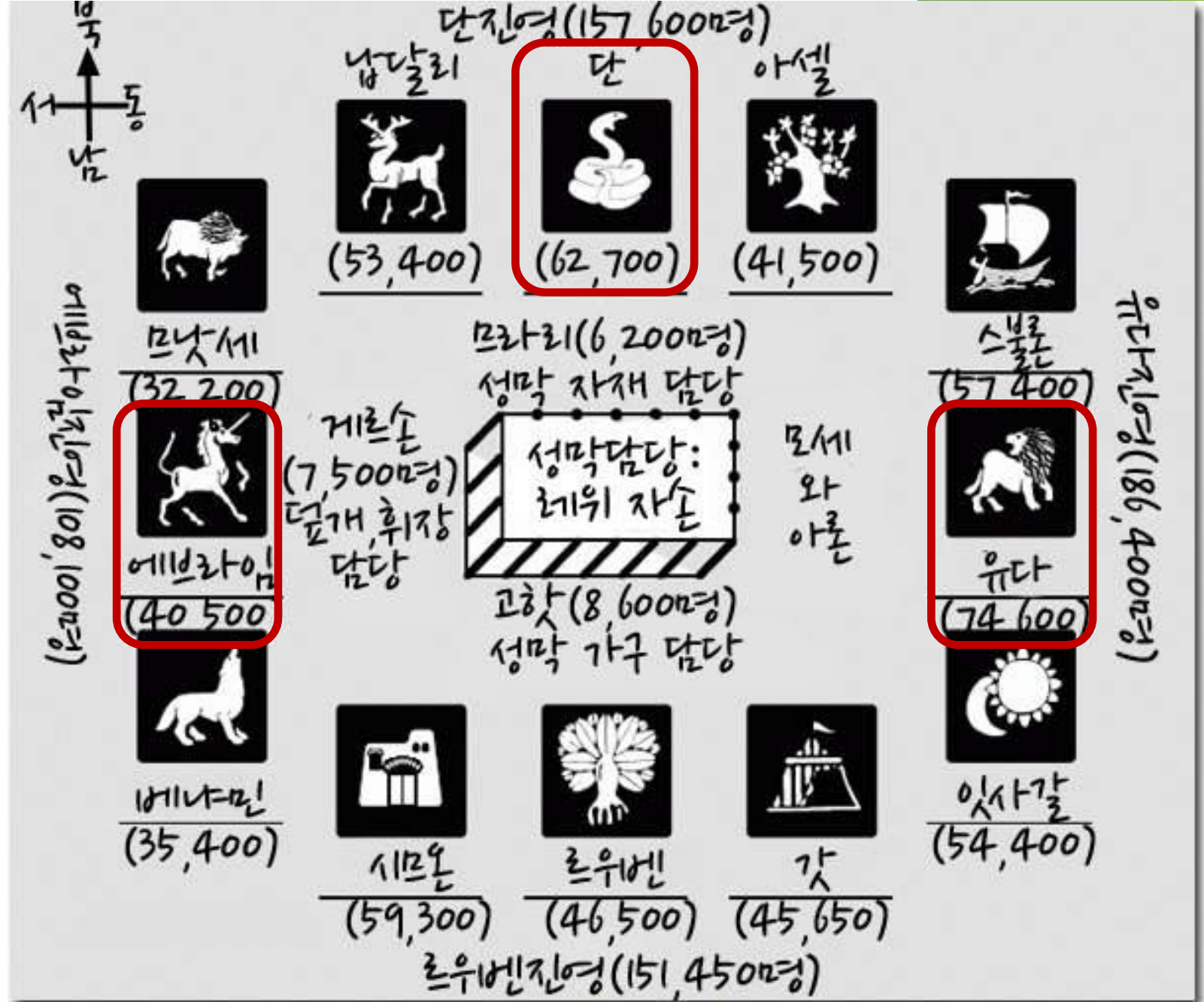
## 요한계시록 7장 1-17절

-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고 한 것처럼, **‘인침’은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 계시록 7장 4절에 유대인 열두 지파에서 인 맞은 자가 십사만 사천 명으로 나온다. 각 지파마다 일만 이 천 명씩 선별되었다.
-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숫자로 볼 것인가** 그것이 문제이다.

# 요한계시록 7장 1-17절

-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역사적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어왔다.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민 13:11)로 불렸고,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넣어 지파 족장으로 삼기도 하였다.
- 계시록 7장에서는 레위와 요셉이 들어간 대신에 **단과 에브라임**이 빠졌다. 블레셋으로 인해서 단은 북왕국 최북단에, 에브라임은 북왕국 최남단에 정착한 지파였다. 에브라임은 강한 남왕국의 유다 지파와 경계한 북왕국에서 가장 강한 지파였다.

**요셉**과  
**레위**과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간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



이스라엘 12부족의 진영 배치도 (민 2-3장)

## 요한계시록 7장 1-17절

- 단 지파의 경우, 확실히 무슨 문제가 있었던 같다. 다른 지파들은 후손들이 생존해 있는 반면, 단 지파만큼은 지금도 행방이 묘연하다고 한다.
- 단 지파가 단군의 조상일 것이란 억측도 있지만, 우스개로 하는 말이지 사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 ‘십사만 사천’은 뒤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동일 집단일 수도 있고, 다른 집단일 수도 있다.

## 요한계시록 7장 1-17절

- 만일 다른 집단이라면, '십사만 사천'은 열두 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뽑힌 유대인 집단일 것이고, '십사만 사천'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은 집단이라면, '십사만 사천'이 문자적인 숫자이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 144,000은  $144 \times 1000$ 에서 나온 숫자인데, 계시록 21장 17절을 근거로 볼 때, 144(큐빗)는 새 예루살렘 성벽의 두께이고, 1,000은 '영원'을 뜻한다.

# 요한계시록 7장 1-17절

## 구원받은 천상의 백성

- 또 144는 12x12에서 만들어진 숫자이다. 구약의 열두 지파와 신약의 열두 사도를 의미할 수 있다. 또 12는 3(하나님)x4(세상/땅)에서 나온 숫자일 수 있다. 3은 성 삼위 하나님을, 4는 세상과 땅을 의미한다.
- 중요하고 명백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구원 받을 사람이 각 지파에서 공평하게 문자적인 12,000명씩 144,000명만 선택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 따라서 ‘십사만 사천’은 9절에 언급된,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와 동일한 숫자이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10절)고 외치며,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다(계 15:2-3).

- 구원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는 자들로서 다음과 같이 신앙을 고백한다고 볼 수 있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 요한계시록 7장 1-17절

[1]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 요한계시록 7장 1-17절

[4]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5]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갓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6]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7] 시므온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잇사갈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 요한계시록 7장 1-17절

[8] 스블론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일만 이천이라

[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 요한계시록 7장 1-17절

[11]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3]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의 상층부의 한 장면  
 그리스도와 성모를 옹위한 인물들은 모두 사도와 순교자들과 성인들이다. 성모  
 밑에 뜨거운 석쇠 위에서 고문을 받고 순교한 라우렌티우스를 건너편에  
 산 채로 살가죽을 벗기는 참형을 받고 순교한 바돌로매가 칼과 인피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미켈란젤로는 그 인피에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  
 넣었다. 그리스도의 좌측에 예수님의 염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로마병사  
 롱기누스, 그 아래 모세와 열쇠를 쥐는 베드로, 베드로 앞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모친 헬레나, 베드로 뒤편에 바울, 베드로의 발밑에 요세움을  
 묘사하였다. 베드로의 얼굴은 당시 교황 바오로 3세의 초상이라고 한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의 상층부의 한 장면  
그리스도와 성모를 옹위한 인물들로서 사도와 순교자들과  
성인들이다. 십자가 주변에 요한, 막달라 마리아,  
니고데모가 묘사되었고, 3-4세기 성인들인 세바스티아누스,  
알렉산드리아의 카타리나, 아르메니아의 성인 블라시오 등이  
요셉과 함께 묘사되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의 하층부의 음부의 성도들이  
천사들의 나팔소리를 듣고 부활하는 모습.  
부활한 성도들은 천사들에게 이끌려 천국으로 올라간다.

## 환란과 재앙의 차이

- **‘십사만 사천’**은 14절의 말씀처럼, **큰 환란**을 당하였지만, **춘향이처럼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다.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희게 뻐 사람들**이다.
-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재앙’**하고 다르다. **환란**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 잠시 받는 **시련**을 말하는 것이고, **재앙**은 불신자들이 당할 **저주**를 말하는 것이다.

- **7장의 성도들은** ‘대 환난’을 잘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다. 그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섬긴다.
- 이들 **승리자들이 받을 보상과 위로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친히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며,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신다는 것이다. 여기서 **배고픔, 목마름, 태양열, 눈물은** 큰 환난의 내용이자 상징들이다.

## 환란과 재앙의 차이

- 순교사를 보면, 박해 중에 성도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배고픔**이다. 곤장, 주리 틀림, 각종 고문, 옥살이보다 **더 고통스런 것이 배고픔과 목마름**이라고 한다.

### **비교: 이사야 49장 10절**

-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 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 요한계시록 7장 1-17절

-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메시아상은 유대교인들이 고대하는 **‘군주적 메시아상’** 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
- 복음서에 나타난 메시아상은 모성적이고 어린 **십자가에 못 박힌 어린양 구세주**이다. 이 메시아상은 유대교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기독교만의 독특한 메시아상이다.

## 요한계시록 7장 1-17절

- 계시록에서의 **메시아상**은 어린양으로 설명되기는 했어도, 부성적이고 강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 재림주**이다.
- 천상 보좌방의 어린양으로 묘사된 것만 아니라면, **유대교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상과 거의 비슷하다.**
- 그렇더라도 **다른 점**이 더 많다.

## 요한계시록 7장 1-17절

- 첫째, 유대교인들의 **종말론**은 내세적이지 않고 **현세적**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묘사된 천상의 메시아를 수용하기 어렵다.
- 둘째, 유대교인들의 **종말론**은 우주적인 것보다 **민족적**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묘사된 우주적 메시아를 수용하기 어렵다.

## 요한계시록 7장 1-17절

- 셋째, **유대교인들의 종말론은** 모세나 다윗과 같은 **순수 인간 메시아**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천상에서 내려오는 메시아를 수용하기 어렵다.
- 넷째, **유대인 또는 유대교에 경도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재림 직후에 **유대왕국으로써 천년왕국이** 출범된다고 믿는다.

-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재림 직후에 있을 문자적 또는 유대적인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다.

성도들은 죽은 후 낙원에서 복락을 누리며, 주의 재림 직후 즉시로 새 하늘과 새 땅 곧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 따라서 계시록 7장의 장면은 성도들이 보상과 위로를 받는 낙원의 상황을 보여준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구원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하면서 천국생활을 맛보고, 죽어서 낙원에 이른 후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천사'들과 더불어 밤낮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섬기게 된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어린양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면, 그분과 함께 모든 성도들도 부활하여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분의 뒤를 따라 지상으로 내려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에서 새 인생을 출발하게 된다.

## 환란과 재앙의 차이

- 요한이 살았던 때에는 로마제국이 천하를 지배하던 때로써 신사참배와 같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 받던 때였다.
- 일본은 왕이나 무사들의 영을 신(神)으로 섬기는 신사(神社 じんじゃ)를 읍과 면 단위에까지 만들고 전 국민을 참배케 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살아있는 왕(王)을 천황(天皇 てんのう)이라 칭하며 사진에 경축일마다 절을 하게 하였다.

## 환란과 재앙의 차이

- 이는 조선인의 충성을 시험하고, 군국주의의 정신적 단결을 도모하려 함이었다.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1938년에 장로교 총회와 감리교 연회, 구세군 등이 각각 신사참배를 결의하였고, 이후 일본에 굴욕적으로 복종하였다.
- 이때에 주기철 목사를 비롯하여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 다가 순교하였다.

## 요한계시록 7장 1-17절

- 또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한 관동대지진 때에는, 마치 64년 네로 황제 때에 발생한 로마시의 대화재 때에 죄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된 것처럼, 죄 없는 우리 동포들이 6일 동안에 무려 6,433명이나 일본인들의 죽창과 흉기에 찔려 죽었다.
- 이와 같이 로마제국은 황제들을 신으로 섬기게 하였고, 살아있는 황제까지도 신으로 모시게 하였다.

## 요한계시록 7장 1-17절

- 요한이 죽기 직전에 로마제국을 통치한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다. 도미티아누스는 죽은 네로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신으로 착각했던 사람이다.
-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주(主)와 신(神)’으로 부르게 하였다. 전 로마제국에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성전이 만들어지고, 황제를 ‘주와 신’으로 고백하게 하였다. 이것을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 요한계시록 7장 1-17절

-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능력의 그리스도를, 4-6장에서 하나님을 우주의 통치자로 보여주고자 했다.
- 그것은 마치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하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큰 태풍이 불어 닥친 것처럼, 황제숭배와 박해라는 큰 폭풍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배고픔과 채찍 맞음과 옥에 갇힘과 맹수에게 찢김과 십자가에 못 박힘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깃발아래 머물 것이냐, 황제의 깃발 아래로 옮겨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보다 위대하신 분, 머지않아 악의 세력을 제압하실 분, 박해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분, 게임을 승리로 이끄실 슈퍼스타, 죽었으나 다시 사신 분, 무덤에 묻혔으나 무덤을 박차고 다시 사신 분,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도들의 인내를 지켜보시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놓고서 하나님의 출전명령만을 기다리시는 분,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성도를 구원할 J장군 그리스도를 확실히 보여주고자 했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 요한계시록 8장 1-13절

- [1]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 [2]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 [3]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 [4]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 요한계시록 8장 1-13절

[5]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가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6]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 버리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 요한계시록 8장 1-13절

- [8]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 [9]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지더라.
- [10]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 [11] 이 별 이름은 쓴 썩이라. 물의 삼분의 일이 쓴 썩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 요한계시록 8장 1-13절

[12]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받아 그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니, 낮 삼분의 일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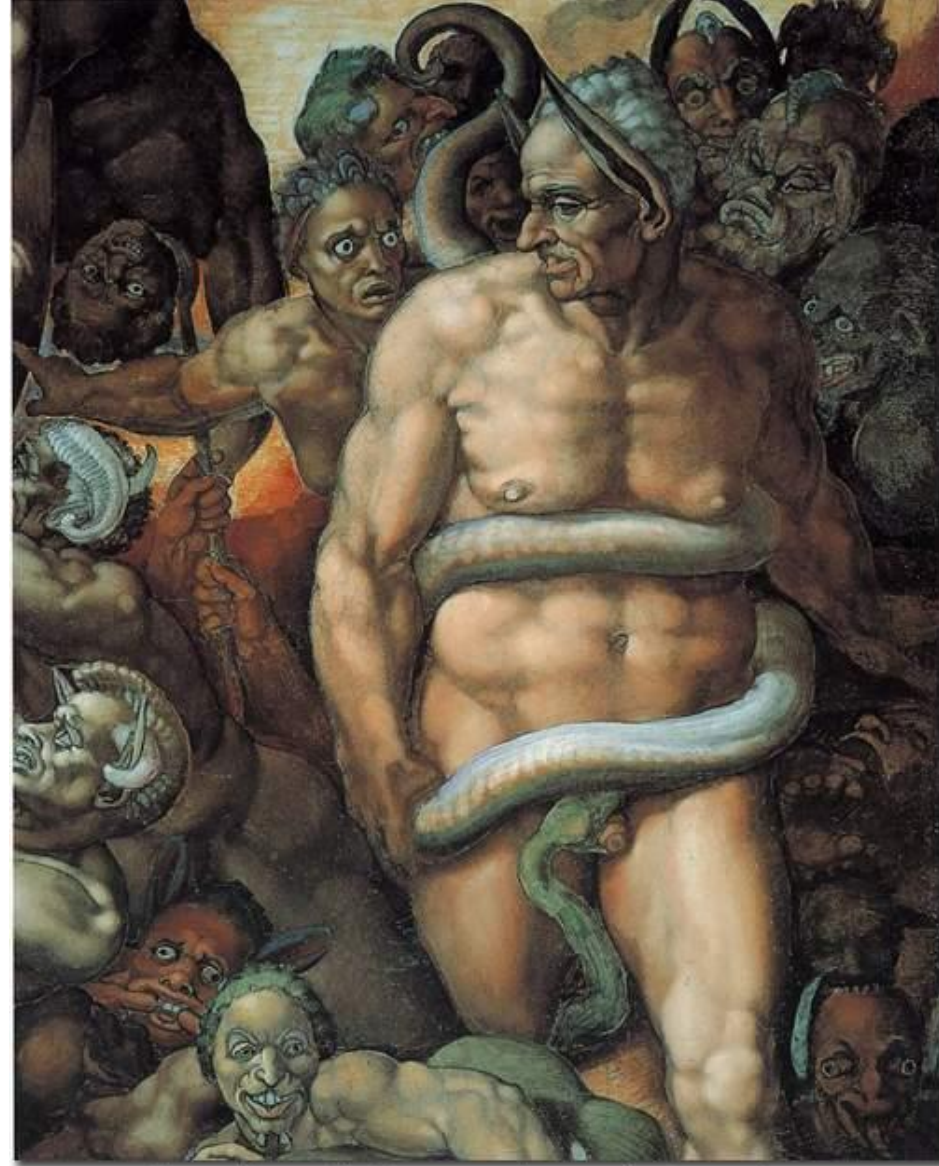
[13]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의 중간층의 한 장면로 대영의 '생각하는 사람'처럼 묘사된 한 남자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이마에 땀이 난 저승사자들이 그의 다리를 단단히 휘감고 그를 지옥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그의 곁과 아래에 그려진 사람들도 우측 천사들의 나팔 소리에 저승사자들에 의해서 지옥으로 끌려내려지고 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의 하층부의 지옥의 모습  
상단의 그림들은 중간층에 묘사된 생명영적과 천사의 나팔  
이며, 이마에 뿔이 난 저승사자들에게 붙들려와 벉사공  
카론에게 넘겨진 영혼들이 바닥이 없는 소가죽 배에 실려  
지옥의 수문장 미노스에게 넘겨지는 장면이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의 하층부의 지옥의 모습  
지옥의 수문장 미노스와 마귀들의 모습이다. 미노스는 당나귀  
귀를, 마귀들은 뱀을 갖고있다. 뱀이 미노스의 몸을 휘감은 채  
그의 고추를 깨물고 있다. 미켈란젤로는 미노스의 얼굴로 교황의  
의전관이었던 추기경 비아시오 체세나의 얼굴을 그려넣었다.

## 게임의 역전(逆傳)

- 요한은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인자(어린양) 같은 이**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했다.
-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 곧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천재지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며, 악이 선을 이기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는 현실에서 몹시 당황해하고, 힘들어하며, 좌절하는 성도들에게 하늘 보좌방의 하나님과 어린양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 게임의 역전(逆傳)

- 게임을 진두지휘하시며 1-3쿼터의 열세를 역전시킬 슈퍼스타 또는 비밀병기를 숨겨놓으신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확실히 보여주고자 했다.
-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최후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

## 게임의 역전(逆傳)

- 1998년 1월 10일 잠실체육관에서 벌어진 대우 제우스(Zeus: 번개 신)와 SK 나이트(Knights: 기사들)와의 게임에서 대우는 3쿼터까지 60-72로 지고 있었다.
- 그러나 이 경기는 **슈퍼스타 우지원**이 4쿼터에서 17점을 몰아넣음으로써 대우가 SK를 91-88로 이겼다.
- 3쿼터까지 불과 5득점에 그쳤던 우 지원은 팀이 77-81로 뒤지던 종료 3분을 남기고 터닝슛과 골밑돌파로 1분10초 만에 83-83 동점을 만들었고, 종료 1분5초 전에 외곽포를 터트리 85-83으로 전세를 역전시켰으며, 87-85로 쫓기던 14초 전에 자유투 2개를 모두 골로 연결시켜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 게임의 역전(逆傳)

- 한편 미국에서는 그곳 시간으로 같은 날 시카고 불스(Bulls: 황소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Warriors: 전사들)가 시합을 치렀다.
- 시카고 불스는 홈경기장의 이점과 트레이드 파문을 일으키며 두 달이나 결장했던 스카티 피펜이 팀에 가세했는데도 불구하고, 1-2쿼터까지 워리어스에 지고 있었고, 3쿼터에서는 동점과 역전을 거듭하는 시소게임을 벌였다.
- 그러나 이 경기 역시 **슈퍼스타 마이클 조던**이 4쿼터에서 17점을 몰아넣음으로써 87대 82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 게임의 역전(逆傳)

- 계시록 1-6장은 독자에게 **슈퍼스타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 **감독이신 하나님**은 게임을 승리로 이끌 명장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언제 투입해야 할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다.
- 또 **그리스도는** 감독의 기대에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게임을 승리로 역전시킬 가장 확실한 우리의 영웅**이시란 점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끝까지 그리스도의 깃발을 떠나지 않은 자들은 이기고 포상을 받지만,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들은 엄한 벌을 받는다는 것이 7-9장과 14-16장의 말씀이다.

## 게임의 역전(逆傳)

- **계시록 7장과 14장은** 고난 당하던 성도가 구원을 받고 천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이다.
- 이들은 큰 환난에도 불구하고 어린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희게 한 자들이다.
-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다.
- 어린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한다(14:4-5).

## 구원받은 천국백성

- 이들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 보좌 앞에 계신 어린양이 이들의 목자가 되사, 이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7:16-17).
- 그리고 그들은 천상에서 네 생물과 24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14:2-3).

## 저주받은 지옥백성

-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위협과 거짓 선지자의 호리는 말에 유혹을 받아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상에게 절한 자들은 하나님의 엄한 보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들이 받게 될 재앙이 8-9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 재앙이요,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 재앙이다.
- 이들 재앙은 피 섞인 불, 땅과 바다와 강과 천체가 피해를 입거나 황충의 피해나 전갈의 쏘임과 같은 괴로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저주, 독종, 지진, 우박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와 고통과 죽음을 가져온다. 이들 재앙은 지옥 또는 지옥에서 처럼 당하게 될 극형을 표현한 것이다.

## 구원받은 천국백성

- 이들 재앙들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과 흡사하다. 다른 것이 있다면, 열 가지가 일곱 가지로 바뀐 것이다. **이들 재앙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혀 미치지 않는다.**
-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7장과 14장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하나님의 백성은 천상에서 **구원의 기쁨을 승리의 노래로 찬양하고 있다.**

## 천국백성 대(對) 지옥백성

- 반면에 사탄의 백성은 지상에 남아 이 재앙을 받고 아비규환의 소동에 빠지게 된다.
- 이는 “**천상과 지상**” 또는 “**천국과 지옥**”의 대조적인 모습이다.
- **천상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있고, **승리의 노래와 즐거움**이 있고, **안도의 한숨**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평화와 위로**가 넘치지만,
- **지상에서는** **저주와 재앙**과 **비극과 슬픔**과 **괴로움**만이 있다.

## 천국백성 대(對) 지옥백성

- 계시록에서 천상과 지상은 문자적으로 천상과 지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천상에만 있고, 재앙이 반드시 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죽은 후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에는 천국에서의 구원의 기쁨과 지옥에서의 저주의 슬픔이 확연히 구별되겠지만, 그 때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있을 수 있다.

## 천국백성 대(對) 지옥백성

- 계시록 7장과 14장의 **천상의 백성**과 8-9장과 16장의 **지상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의 **완전한 구별과 분리를** 미켈란젤로(1475-1564)가 그린 '최후의 심판' 프레스코화, 아드리엔 콜레르트(c. 1560-1618)가 그린 '최후의 심판' 판화, 오귀스트 로댕(1840-1917)이 조각한 '지옥의 문'처럼, 한 눈에 보여준다.

**Right(구원, 천국) vs. Left(저주, 지옥) Up(구원, 천국) vs. Down(저주, 지옥)**

## 천국백성 대(對) 지옥백성

- **그 장면의 절반에는**, 마치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고 있는 모습처럼, **사탄을 추종하던 자들이 무서운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받고 있고**,
- **다른 절반에는**, 마치 고센 땅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고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

#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의 역전(逆傳)

## Sinner Saved by Grace

- 하나님께서 내리는 **무서운 재앙들은** 적대 세력인 사탄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요, 저주이지만, 고난(환난)을 당하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요, 사랑이다.
- 그것이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타난 천상의 백성의 모습과 8-9장과 16장에 나타난 지상의 백성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이유이다.
- 계시록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의 역전**을 보여준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 요한계시록 9장 1-21절

- [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 [2]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 [3]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 [4]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 요한계시록 9장 1-21절

[5]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같이 사람을 쏘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6]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7]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 요한계시록 9장 1-21절

[8]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9]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10]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11]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 요한계시록 9장 1-21절

[12]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13]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며,

[15]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 요한계시록 9장 1-21절

[16] **마병대의 수는 이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7] 이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향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향이 나오더라.

[18]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향**으로 말미암아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

## 요한계시록 9장 1-21절

[19]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20]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계시록 8-9장(Luther의 신약성서, 152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CRANACH, Lucas the Elder의  
공방에서 만든 계시록의 삽화 2장 가운데 하나이다. 일곱 나팔  
재앙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8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제단 곁에 선 금함으로  
 가진 천사와 천사들의 네가지 나팔재앙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8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나팔재앙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9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난 환상을 묘사하였다.



**황충**(smoke locusts, 메뚜기)를 묘사한 그림

**황충**  
(메뚜기)를  
묘사한 그림



‘파괴자’  
아바돈 (Abaddon)  
혹은 아볼루온  
(Apollyon)를 묘사한  
〈천로역정〉의 삽화.  
그리스도인이 아볼루온과  
싸우는 장면.

박해자들이었던  
갈리굴라, 네로,  
도미티아누스가 자신들을  
아폴론의 화신(계시)으로  
주장하였다.



운명의 신  
아폴론과  
다투는  
헤라클레스



‘이억 명의 마병대’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으로 무장.

사자 머리, 뱀 꼬리,  
꼬리에 머리를 가진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꼬리의 머리에서  
**맹독(?)**이 뿜어져 나옴.



# 요한계시록 9장 1-21절

- 천국백성과 지옥백성의 극명한 **분리와 대조**를 통해서 요한이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인내의 중요성**이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했다.
-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요즘처럼 크게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의 인내가 더욱 요구된다.**

# 보응의 하나님

-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님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 시편 54장 7절을 보면,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나로 목도케 하셨나이다.**”
- 시편 118장 5-9절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 나팔재앙과 일곱 인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 **첫째**, 일곱 번 인봉된 두루마리에서 일곱 개의 인을 한 개 한 개 차례로 떼시는 분은 **어린양 한 분 뿐**입니다. **첫 번째부터 넷 번째** 인까지는 역사의 악순환으로써 국내외 전쟁과 기근과 각종 질병과 사고들로 인해서 닥친 죽음을, **다섯 번째 인**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거룩한 죽음(순교)**을, **여섯 번째 인**은 **천체와 지구의 죽음**을 보여주었다.
- 일곱 나팔재앙은 나팔수들인 일곱 천사들이 한 분씩 차례로 여섯 번째까지 나팔을 불 때마다 지상에 쏟아지는 재앙들을 보여주고 있다.

# 나팔재앙과 일곱 인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 **둘째**,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다른 여섯 개의 인이 소개된 6장에 함께 나오지 않고, 한 장을 건너 뛴 8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일곱 번째 나팔재앙**도 나머지 여섯 개의 나팔재앙이 소개된 8-9장에 함께 나오지 않고 한 장을 건너 뛴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15-19절).
- **셋째**, **일곱 번째 인**이 앞선 여섯 개의 인들에서 언급된 '죽음의 향연' 또는 역사의 악순환을 배경으로 **천상과 지상** 모두에 적용되는 **이중적 의미**를 갖는 것처럼, **일곱 번째 나팔**도 **이중적**이다.

- **일곱 번째 인**은 8장 1절에 나오는데, 반시간 정도의 침묵을 말한다. 여기서 **반시간 정도의 침묵**은 제7장에 언급된 대로 큰 환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구원 받은 성도들이 죽은 후 낙원에서 누리는 **참 안식을 말한 것일 수 있고**, 또 폭풍전야의 고요처럼 세상을 심판하는 **일곱 나팔재앙이 내리기 직전의 무거운 침묵을 말한 것일 수 있다**.
- **일곱 번째 나팔**은 11장 15-19절에 나오는데, 일곱 번째 인의 침묵과는 달리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는 나라가 될 것과 상벌에 관한 큰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였고, 이어서 천상의 성전이 열리고, 지성소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보였다.

- 그리고 나서 10-13장에 소개된 중간계시들을 잠시 보여준 후에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강도로 14-15장에서 구원받은 천상백성의 모습을, 16장에서 무서운 일곱 대접재앙들을 보여준다.
- 넷째, 일곱 번째가 의미하는 것은 ‘안식’과 ‘죽음’이다.
- 중요한 것은 일곱 나팔재앙이나 일곱 대접재앙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 받은 성도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란 점이다. 그것은 마치 고센 땅에서 고통 당하던 히브리인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안식의 상징인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완고한 이집트인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과 같다.

# 나팔재앙과 일곱 인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 요한계시록 8장 1-5절은 일곱 나팔재앙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란 점을 보여준다.
- 일곱 번째 인을 떼신 이후의 일을 보면(8:1),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받고(8:2), 나팔 불기를 예비하는 장면(8:6)과 다른 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 담는데, 이 향들은 성도의 기도들과 함께 보좌 앞 금단에 드러질 것들이었다(8:3). 그리고 향의 연기와 성도들의 기도들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8:4). 이 일을 하는 천사의 이름이 '라파엘'로 알려져 있다.

# 나팔재앙과 일곱 인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보좌 앞에 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거문고(찬양)와 향(기도)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갖고 있는데, 금 대접에 담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였다.

- 5장 8절과 8장 3절을 종합해 볼 때, 금 향로에 담긴 향은 예배의 향, 곧 향기로운 예배 그 자체이거나 성도의 기도들이거나, 또는 금 향로 속에 예배의 향과 성도의 기도들이 함께 담긴 것을 말한 것일 수 있다.

# 나팔재앙과 일곱 인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 이것은, 광야시대 때, 성막 뜰 제단에서 피어나는 **제물의 향기**와 성막 지성소 앞 금 향로에서 피어나는 **향의 연기**가 합하여 지성소 서편 끝 법궤 뚜껑 위 시은소 곧 하나님의 보좌에로 피어 들었던 것의 원형과 실체로써
- 천상의 성막 지성소의 보좌를 옹위한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의 손에 들려진 금 향로에서 피어나는 향은 다름 아닌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상달되어지는 것**임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이다.

# 나팔재앙과 일곱 인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 그 한 예로써 소개된 기도가 주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때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제단 아래 영혼들이 흘린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한 것이다(6:9-10).
- 이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상징인 흰옷을 주시며 11절에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곱 나팔재앙이다.

구약신약  
성경에서  
성도에게  
요구하는  
덕목들은

회개, 믿음, 인내  
이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 요한계시록 9장 1-21절

- [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 [2]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 [3]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 [4]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 요한계시록 9장 1-21절

[5]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같이 사람을 쏘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6]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7]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 요한계시록 9장 1-21절

[8]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9]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10]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11]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 요한계시록 9장 1-21절

[12]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13]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며,

[15]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 요한계시록 9장 1-21절

[16] **마병대의 수는 이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7] 이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

## 요한계시록 9장 1-21절

[19]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20]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계시록 8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일곱 번째 인을 떼낼 때의 고통과 제단 곁에 선 금 향로를 가진 천사와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들과 네가지 나팔재앙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9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이루진 것이다.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난  
환상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9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이므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다섯 번째 나팔재앙  
이자 첫 번째 화를 묘사하였다.

## 요한계시록 9장 1-21절

- 요한 계시록 8장 3-5절을 보면, 제단 곁에 서서 **성도들의 예배의 향과 기도의 향을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 앞 금단에 드렸던 천사가
- 이번에는 **같은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 **일곱 번째 나팔**을 불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는 11장 19절의 말씀과 동일하다.

# 금향로에 담긴 교훈들

- 첫째, 천사가 손에 든 금향로에 담긴 것이 두 가지이다.
- 한 가지는 **향**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 향을 태우는 **불**이다.
- 그런데 **향**은 태워져 그 향기가 천상의 보좌에 상달되고,
- **불**은 향을 태운 후에 잿더미에 버려지게 되고, 버려진 불은 잿더미의 쓰레기들을 태우게 된다.



## 금향로에 담긴 교훈들

- 예루살렘에는 힌놈골짜기란 곳이 있었는데, 헬라어로는 ‘게헨나’(Gehenna)라 불렸다(마 5:22, 막 9:47).
- 이곳은 쓰레기를 내다 버리는 곳이었고,
- 또 동물과 죄인의 시체를 화장하는 곳이었을 뿐 아니라,
- 자식들을 몰렉 신에게 불살라 바치기까지 했던 부정하고 음산하고, 늘 불과 연기가 피어 오르는 잿더미 골짜기였다.
- 그래서 이곳 ‘게헨나’는 지옥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다.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히놈의 올리브밭(게헨놈, 게히놈, 게베히놈) 한때 바알에게 분향했던 곳이고, 보릭에게 어린자녀들을 산 채로 불살라 제물로 바쳤던 곳이다. 오시아(648-609BC) 때부터 이방인의 무덤과 쓰러진 조각상으로 쓰였다. 이후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의 상징이 되었다.

## 금향로에 담긴 교훈들

- ‘다가올 세상’ (올람하바)에 대한 유대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원과 천국 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갖는 견해 만큼이나 다양하다.
- 반면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에덴동산(Gan Eden)에 연결되고, **지옥**은 ‘게힌놈’(Gehinnom) 곧 ‘힌놈의 골짜기’에 연결되는데, ‘게힌놈’은 심판의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을 말하며, **‘게힌놈’의 불은 지상의 것보다 60배나 더 뜨겁다**는 이야기가 후대에 첨가되었다.

## 금향로에 담긴 교훈들

- 다만 '계힌놈'은 가톨릭교회가 주장하는 **연옥과 같아서** '다가올 세상'이 도래하기 전까지 만 존재하며, '계힌놈'에서 머무는 기간도 **최장 12개월로 한정**된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다가올 세상'에 들어가지 못한다.
- 둘째, 금향로에 담긴 **향은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의 상징**이고, 향을 태우는 **불은 그들을 연단하는 박해를 상징**한다.
- 그러나 **연단의 불이 강할수록 향은 더 빠르게 타고, 그 향도 진하게 하늘로 피어 오르게 된다.** 그러나 향을 태운 불은 쓰레기더미에 버려지게 되고, **불과 연기를 피어 오르게 한다.**

# 금향로에 담긴 교훈들

- 셋째, 금향로에 담긴 **향과 불은** 천국과 지옥의 백성, 천상과 지상의 백성을 각각 상징한다.
- 또 **향은 구원과 축복을, 불은 저주와 심판을 상징** 한다.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에 성도들의 예배의 향과 기도의 향을 담아 보좌 앞 금향단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받으시고, **성도들을 환난에서 구원하시지만, 성도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던 자들을 위해서는 성도들을 연단시켰던 제단 위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고 있다.**

# 금향로에 담긴 교훈들

- **불을 쏘는 천사의 행위**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펼치기 위한 무대의 막을 여는 징소리와 같고, 그 불로 인해서 무서운 재앙들이 쏟아지게 된다.
- 넷째, 이런 점들 때문에
  - **향로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분향하는 그릇이지만,
  - **악인들에게**는 재앙의 불을 쏘아내는 그릇이다.
  - **평상시에는** 성도들의 예배의 향과 기도의 향을 태우는 그릇으로 쓰이지만,
  - **심판의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쏟아진 불처럼 **저주의 불을 쏘아내는 진노의 그릇**으로 쓰인다.

# 금항로에 담긴 교훈들

- **민수기 16장은** 계시록의 향로와 불의 의미를 밝혀주는 **모형적 사건**이다.
- 민수기 16장은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운 다음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성막 문 앞에서 생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모험을 펼치는 장면에 관한 기사이다.
- 사건의 발단은 **레위 자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을 추종하는 250명의 족장들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데서 비롯되었다.
- 이에 모세는 그들 가운데서 **250개의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우게 한 다음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하였고,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하였다. **<250+2=252개 향로, 250 대 2의 대결>**

## 금향로에 담긴 교훈들

- 결과는 모세와 아론의 향로들 위에 피운 향기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받으시고, 나머지 250인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소멸되었다.
- 이 일을 원망하다가 염병에 걸려 추가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다. 족장들의 죽음은 향로의 불에 의한 것이고, 염병에 의한 죽음은 불티와 재(바이러스)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 **향로(예배와 기도)**는 염병을 멈추는 일에도 쓰이고 있어서 생사를 결정짓는 그릇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천국



향

금향로에  
담긴 교훈



지옥

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자,  
땅이 갈라져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서,  
항로에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항을 피우셨던 250명은 불에 타셨다. 추가로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한 14,700명이 열병으로 사망하셨다(민 16장).

# 일곱 나팔재앙

- **나팔은** 전투에서 공격과 퇴각 등의 신호에 쓰인다.
-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쏟아지는 재앙은 심판과 저주를 의미하지만, **계시록의 기록 목적으로 볼 때, 재앙은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메시지이다.**
-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주고, 불신자들과 박해자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쓰였다.**
- 따라서 나팔재앙은 그 첫 번째 경고가 된다. 첫 번째이기 때문에 **강도는 33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

# 일곱 나팔재앙

- 강도가 약해서 일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9장 20-21절에 적고 있다.
- 이 말씀의 모형은 출애굽 당시 바로의 강박한 마음에서 찾을 수 있다. 강박한 마음은 결국 더 큰 재앙, 곧 100퍼센트 강도의 재앙을 불러오게 되고,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나팔재앙 다음에 대접재앙이 뒤따라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일곱 나팔재앙

- 재앙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는 기도의 응답이다.
- 재앙은 출애굽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탈출시키기 위한 공격전 개시사격과 같은 것이며, 재앙이 소낙비처럼 쏟아진다 해도 그것은 적진에 국한된 것이다. 9장 4절에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일곱 나팔재앙

- 계시록의 재앙은 그 모형을 출애굽 사건 때의 열 가지 재앙에서 찾을 수 있다.
- 출애굽 사건에서 **열 가지 재앙이** 히브리인들에게 오랜 노예생활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주고,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을 가져다 주었듯이,
- **계시록에서의 재앙은**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하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최후 승리**와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요, **믿음과 인내를 촉구하는 경고의 메시지**이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 요한계시록 10장 1-6절

- [1]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3]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 요한계시록 10장 1-6절

[4] 일곱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5]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독일어 성경(Das Neue Testament,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선 힘센 천사가 묘사되었다.



계시록 10장(Luther Bible, 153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Hans Burgkmair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손에는 퍼 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선 힘센 천사를 묘사하였다.



계시록 10장(Otth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손에는 퍼 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선 힘센 천사를 묘사하였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1-6)

## 힘센 천사=힘 있는 천사

- 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에서 ‘힘센 천사’(another mighty angel)는 5장 2절의 ‘힘 있는 천사’(a mighty angel)와 동일한 천사일 가능성이 높다.

‘힘센’=‘힘 있는’=‘mighty’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1-6)

## 힘센 천사

-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했다.

‘힘센 천사’에 대한 이들 표현들에서,

-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는 재림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는 4장에서 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닮았다. 또 ‘그 얼굴은 해 같고’와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는 1장에서 본 ‘인자’의 모습과 닮아 있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1-6)

## 힘센 천사=미가엘(?)

- 이들 묘사들은 영광과 주권과 권세를 말한 것으로서 높은 위치의 천사임을 말한다.
- 이 **‘힘센 천사’**는 미가엘일 가능성이 크다.
- 그가 5장 3절에서 큰 음성으로 외친 질문,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는 ‘미가엘’의 뜻풀이인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와 비슷하다.

**Michael**

**מִיכָאֵל**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Who Is Like God?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1-6)

## 힘센 천사=미가엘(?)

- 13장 4절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겠느냐?”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힘센 천사’가 미가엘일 것이라는 믿음이 커진다.
-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와 그 책과 연관된 ‘힘센 천사’는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외쳤고,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의 뜻을 가진 미가엘 천사가 한 팀을 이뤄서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1-6)

- 사탄과 그로부터 권세를 받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는 이름을 가진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팀=용과 짐승의 팀을 영적인 싸움에서 물리쳐 이기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13장 4절의 말씀, “온 땅이 짐승을 따르고” 그를 향해 외친,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겠느냐?”는 **허풍에 불과한 종이호랑이**였다는 것이 밝혀진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1-6)

사탄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VS

그리스도와 '힘센 천사'(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최후 패배

최후 승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롬8:31-37]



터키 아나톨리아의 고대 카리아(Caria)의 수도 카우노스(Kaunos, c. 410-390 BC)의 주화.

전면에 날개가 있는 여신이 무릎을 꿇은 채 손에 카두케우스와 월계관을 들고 있는 모습을 새겼고, 뒷면에 헬라어로 D와 G를 새겼다.

**미가엘(Michael)는 승리자(Nika)이므로  
승리의 여신 니케(Nike)와 연결이 된다.**



안토니누스 피우스(AD 138-161,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청동 트라크마  
전면에 월계관을 쓴 안토니누스 피우스(Antoninus Pius) 황제를  
새겼고, 뒷면에 헤라클레스가 헤스페리데스(Hesperides) 정원  
에서 용(라돈, Ladon)을 죽이고, 황금사과를 따는 모습을 새겼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승리자(Nika) 그 이상  
이므로 헤라클레스와 이아손(Jason)에 연결 된다.**



안토니누스 피우스(AD 138-161,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청동 드라크마  
전면에 월계관을 쓴 안토니누스 피우스(Antoninus Pius) 황제를  
새겼고, 뒷면에 헬리오스(태양신 아폴로), 별, 사자를 새겼다.

**헬리오스(아폴로), 별(카이사르), 사자(그리핀, 로마)**  
**헬리오스(하나님), 별(그리스도), 사자(유다지파, 교회)**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1-6)

사탄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최후 패배

사탄(용)/적그리스도(바다 짐승)/거짓선지자(땅 짐승)  
666(거짓/실패/허무)

VS

그리스도와 '힘센 천사'(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최후 승리

그리스도/미가엘/주의  
종들(모세/엘리아)  
777(거룩/승리/영광)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1-6)

- 계시록 10장 2절 상반절,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에서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 책’은 아마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양 그리스도께서 6장에서 인봉을 떼고 내용을 밝힌 그 두루마리 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 5-6장에서 본 두루마리가 작은 책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작다 크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측컨대, 그리스도께서 책을 다 펼치신 후에 ‘힘센 천사’에게 넘기신 것이 아닐까,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1-6)

- 인봉되어 내용이 감춰져 있던 **두루마리 책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서 인류의 속죄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되어 그 내용이 계시되었고, 그것을 ‘힘센 천사’가 받아 들고, 하나님께 지체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 후에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여 먹게 하였고, 또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해서 먹게 한 것이다.
- 이것은 사도 요한이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밝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한 말씀과도 일치한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1-6)

- 계시록 10장 2절 하반기절,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에서 **바다는 사탄(용)이 지배하는 음부의 상징**이고, **땅은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가 지배하는 음란한 세상의 상징**이다(13장).
- 이 둘을 밟고 설만큼 ‘힘 있는 천사’라면, 미가엘 천사(?)
- 12장 7절 이하를 보면, **사탄이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하늘에서 쫓겨난다.

# 용=사탄/ 용은 사탄이 부리는 전차(케루빌?)



좌측: 바다와 폭풍의 신 포세이돈을 새긴 마케도니아 왕국의 데메트리우스 1세 폴리오르케테스 왕의 테트라크램 주화(300-295BC).

우측: 바다와 폭풍의 신 포세이돈이 바다와 폭풍의 상징인 용을 부리는 주화.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오디세우스는 폭풍의 신 포세이돈의 저주로 10년간 바다에서 괴롭힘을 당한다.

태양신이자 신들의 왕이며 바람(폭풍)의 신이자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두크(Marduk)가 혼돈(흑암)과 바다의 여신이자 바다의 토인 티아마트(Tiamat)를 버락으로 공격하는 바벨론의 부조(대영 박물관)

# 용=사탄/ 용은 사탄이 부리는 전차(케루빔?)



안토니누스 피우스(AD 138-161,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청동 드라크마  
전면에 쫓겨간을 쓴 안토니누스 피우스(Antoninus Pius) 황제를  
새겼고, 뒷면에 트리프트올레모스(Triptolemos)가 낱개 달린 두  
마리 뱀(용)이 끄는 Biga(두필의 말이 끄는 전차)를 몰고 있는 모습을 새겼다.

안토니누스 피우스(AD 138-161,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청동 드라크마  
전면에 쫓겨간을 쓴 안토니누스 피우스(Antoninus Pius) 황제를  
새겼고, 뒷면에 제우스가 독수리를 올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새겼다.

# 야훼 하나님의 전차(케루빔/그룹)



날개 달린 바퀴에 앉으신 야훼  
에돔-유대인들이 주조한 쿼터 쉐겔 (주전 333, 영국박물관)로서  
뒷면에 날개 달린 바퀴에 앉으신 야훼께서 왼손에 새를 바치고  
계신 모습과 하단 오른쪽에 수염을 기른 유대인 얼굴을 새겼다.

## 짐승=박해자, 황제

고대의 황제들은  
짐승(수호신=라마  
수, 스펡크스,  
그리핀 등)으로  
묘사되었다.



계시록 13장(Luther Bible, 153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Hans Burgkmair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 뿔에 왕관을 쓴 첫째 짐승 적 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두 뿔을 가진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666)와 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묘사되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족에 속하는 마르두크(Marduk) 태양신이자 신들의 왕이며 바람(폭풍)의 신이다. 또한 창조신이자 네 개의 날개를 가진 바벨론의 수호신이다. 손에 동과 술방울을 쥐고 이 마르두크는 바벨론왕 느부갓네살(네부카드네자르 Nebuchadnezzar) 자신이다. 머리에 황소의 뿔 세 쌍이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라마수(Lamassu) 석상(범루드 출토, 대영박물관 소장). 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721-705 BC) 궁전 코르사바드(Khorsabad)의 수호신으로서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약 4천년 전에 등장한 아시리아 제국 도시의 성문이나 궁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황소 몸체에 세쌍의 날개와 사람의 두상을 가진 이 라마수는 아시리아의 왕 사르곤 자신이다. 머리에 황소의 뿔 세 쌍이 새겨진 관을 쓰고 있다.



로마를 헤라클레스와 동일시한 데나리온(주조: C. Publicius Q. F., 80BC).  
 전면: 로마를 의인화한 여신 그리핀(독수리+사자)이 장식된 투구를 쓰고 있다.  
 뒷면: 헤라클레스가 네메아의 사자를 목 졸라 죽이는 모습. 주조자의 이름인 C. Publicius Q. F.와 헤라클레스의 곤병과 활과 화살통이 새겨져 있다.

주전 113-112년의 로마 은화 데나리온  
 전면에 그리핀(독수리+사자)이 장식된 투구를 쓴 여신 로마를 새겼으며,  
 뒷면에 검투사들의 대결 장면을 새겼다. 그 밑에 쓴 T[itus] DEIDI[us]는 주화 발행자의 이름을 새긴 것이다(티투스 데이디우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1-6)

## 힘센 천사=미가엘(?)

- 힘센 천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천사이다.
-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과 짐승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가 악한 영적 세계의 최고수들이라면, 그리스도와 미가엘은 선한 영적 세계의 최고수들이다.
- 계시록 10장 3-4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1-6)

## 힘센 천사=미가엘(?)

- 일곱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에서 주목할 점은 ‘**힘센 천사**’가 사자의 우는 소리처럼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일곱 뇌성들이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1-6)

## 힘센 천사

- 6장 1절에서 네 생물 가운데 한 생물이 뇌성 같은 소리를 낸 적이 있지만, 10장에서 말하는 일곱 뇌성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기가 쉽지 않다.
- 분명한 것은 뇌성들이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것이다.
- 유대인들에게 뇌성은 번개와 함께 종종 하나님의 임재나 음성으로 간주된다(출 19:16, 20:18).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1-6)

## 힘센 천사

- 실제로 앞에 나온 수식어 ‘일곱’이 뇌성을 하나님의 음성과 연관시켜 준다.
- 계시록에서만 세 번이나 보좌에서 나는 소리를 뇌성과 번개와 음성으로 묘사하였기 때문이다(계 4:5, 11:19, 16:18).
- 일곱 뇌성이 발한 소리들은 기록하지 말라하였으니, 그 비밀을 알 자가 없다. 기록이 없으니 해석이 있을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에 대한 암시가 7절에 있고, 그 해답이 11장 15-19절, 곧 일곱 번째 나팔에 있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1-6)

## 힘센 천사

-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힘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에서 ‘사자’를 5장에서는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칠 때에 24장로들 가운데 한 장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로 “**유대지파의 사자**”란 표현을 썼다는 점이다. 5장과 10장의 ‘힘센 천사’에 어떤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안토니누스 피우스(AD 138-161,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청동 트라크마  
전면에 월계관을 쓴 안토니누스 피우스(Antoninus Pius) 황제를  
새겼고, 뒷면에 헬리오스(태양신 아폴로), 별, 사자를 새겼다.

## 거짓과 참

- ❖ 헬리오스(아폴로), 별(카이사르), 사자(그리핀, 로마)
- ❖ 헬리오스(하나님), 별(그리스도), 사자(유다지파, 교회)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1-6)

## 힘센 천사

- 계시록 10장 5-6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에서 ‘힘센 천사’의 행동은 일종의 서약 혹은 맹세에서 볼 수 있는 행동이다.
- 천사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지체하지 않겠다” 고 맹세하고 있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1-6)

- 무엇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일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임박하였음을 선포한 것이며, 이 말이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불신자들에게는 공포를** 주기에 충분하다.

**이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회개와 믿음과 인내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 요한계시록 10장 7절-11장 2절

[7]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8]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9]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갓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하거늘,

## 요한계시록 10장 7절-11장 2절

[10]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1]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기록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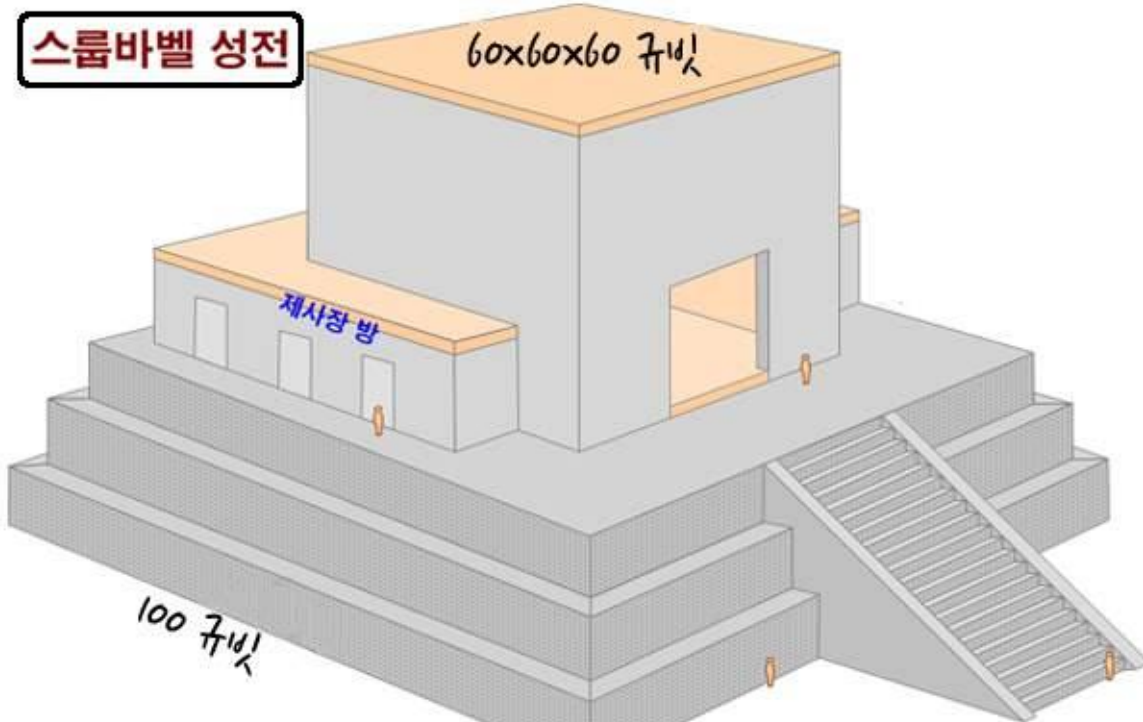


계시록 그리스 우표(1995)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본 환상, 나팔재앙을 묘사하였다.

가로 x 세로 x 높이 x 기단  
 27m x 27m x 27m x 45m

스룹바벨성전은 동시대의  
 고레스 대왕 무덤과 형태가  
 비슷하다. \*고레스는 530BC  
 사망하였고, 스룹바벨성전은  
 512BC 완공되었다.



[스] 6:3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의고는 육십 규빗으로, 광도 육십 규빗으로 하고  
 [스] 6:4 큰 돌 세 켠에 새 나무 한 켠을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솔로몬 성전과 비교  
 지성소 20x20x20 규빗  
 성소 40x20x30 규빗



고레스 대왕의 무덤과 비교

# Apocalipse.



프랑스 성경(La sainte Bible en Francoys, 1530)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  
하는” 요한과 “두 증인” 및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묘사하였다. 16세기의 성당과 사제 복식을 엿볼 수가 있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7-11:2)

-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는 말씀은 일곱 번째 나팔재앙이 기록된 **11장 15-19절에서 성취** 되고 있다.
- 그러나 일곱 번째 나팔을 재앙으로 보기는 어렵고,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의 큰 음성들의 내용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실 것이다”는 것이다.

세상(박해자들, 황제들) 나라가  
그리스도(그리스도인들)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그리스도인들)가 영원토록 왕 노릇하실  
것, 상황 곧 삶의 역전 혹은 최후 승리를  
일컬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이방인들이  
회원이 되는 교회와 성도의 부활을 일컬어  
“하나님의 비밀” 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에서 “비밀”은 ‘신비’ (mystery)란 뜻. ‘신비’는 신비롭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란 뜻, 곧 앞에서 말한 **상황역전**을 말한 것이다.

## 사 례

십자가 수난	➡	하늘 보좌의 영광
어린양	➡	심판주
이방인	➡	하나님의 백성
옛 사람	➡	새 사람
구약	➡	신약
세상 나라	➡	그리스도의 나라
석을 육체	➡	영화로운 몸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7-11:2)

- 이때에도 11장 19절을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했는데, 언약궤 덮개 위 시은소가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상징한 것이고, 그 보좌(언약궤 곧 말씀이 담긴 상자)에서 나는 소리를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으로 묘사한 것이다.
- 그렇다면, 4절의 일곱 뇌성이 발한 음성들의 비밀은 7절의 하나님의 비밀과 같은 것이고, 그 비밀의 성취는 이 땅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7-11:2)

- 그 때가 멀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용사인 미가엘 천사가 '지체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 계시록 10장 8-11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7-11:2)

-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의 **평행구가 에스겔 2장 8절부터 3장 3절에 있다.**
-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7-11:2)

-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7-11:2)

- 이 두루마리가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와 같은 책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하다.
- 다만 에스겔서의 말씀들로 보서는 동일한 책일 가능성이 크다. 동일한 책이라면, 그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관한 것이 된다. **배에 쓴 이유**가 그 때문이 아닐까?
- 그 내용의 일부가 이미 일곱 인과 일곱 나팔재앙들에서 드러났다.

## 요한계시록 10장 7절-11장 2절

- **책의 내용이 입에 꿀처럼 단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며, **그 내용이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배에 쓴 것은** 그 내용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며, 불신자들을 심판할 저주의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배에 쓴 것은** 악한 자들의 멸망을 통쾌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회개와 구원을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기 때문**이며, **그들로부터 당하는 환란과 핍박** 때문이다.

## 두루마리의 말씀이 달거나 쓴 이유

- 단 이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상황역전, 곧 구원 하시겠다는 선포이기 때문에.
- 쓴 이유: 그 때까지 견디고 이겨야 할 환난 때문에. 또 회개의 끈, 인내의 끈, 믿음의 끈을 놓아버린 자들이 받아야 할 재앙과 저주 때문에.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7-11:2)

## 힘센 천사

- 계시록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는 1장 1-3절에서 밝힌 대로, 구원과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경륜의 뜻이 구세주 그리스도의 계시로 밝혀졌고, 그 내용을 천사가 요한에게 전달하였고, 요한이 계시록에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말한다. **지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 계시와 예언과 신약의 말씀

- 계시: 하나님(theophany: 현현) 또는 그분의 뜻을 보여준 것(성육신, 기적, 성경 등으로)
- 예언: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
- 목적: 회개, 믿음, 인내를 조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상황역전, 구원, 최후승리를 선포하기 위한 것
- 신약: 육적, 문자적 구약(옛 언약)을 영적으로 재해석 또는 그 성취를 말한 것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7-11:2)

## 힘센 천사

- 10장 6절에서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지체하지 않고 이루겠다.’고 맹세하고 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뤄진다. 우리의 구원도 반드시 이뤄진다.
- 계시록은 회복(回復)과 반전(反轉)에 관한 말씀이다. 따라서 11장 1-2절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짓밟힌 예루살렘과 성전회복에 연관된 말씀으로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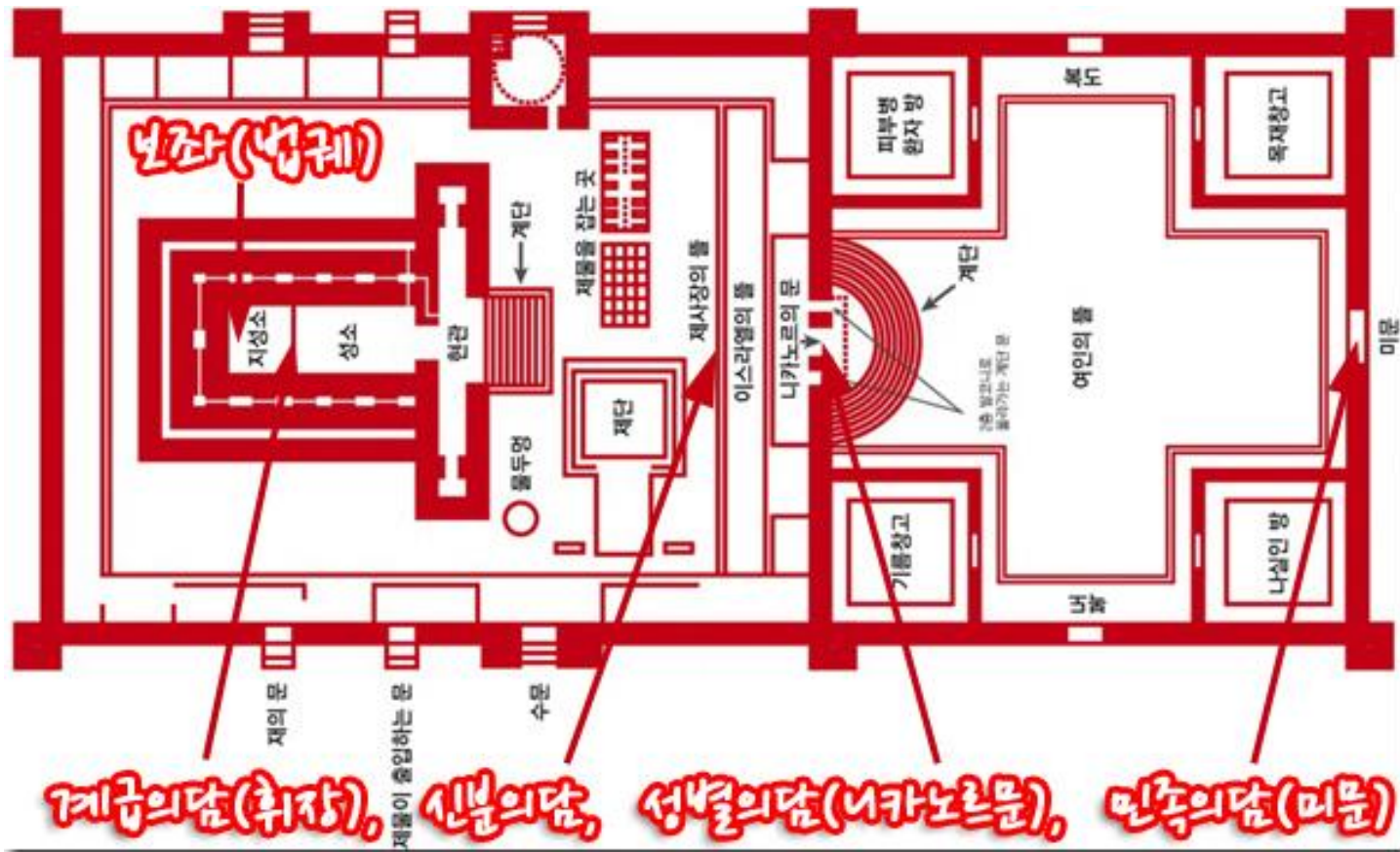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7-11:2)

-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는 **에스겔 40-43장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곳에는 바벨론 군대가 파괴한 예루살렘 성전회복에 관한 환상이 나온다.
- 이 환상은 제2차 유배(597 B.C.) 후 25년, 제3차 유배(586 B.C.) 후 14년이 된 **주전 572년에 에스겔에게 나타난** **것**으로써 재건될 성전의 뜰들과 부속 건물들과 각 방들의 길이와 폭을 ‘측량’하는 장면이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7-11:2)

## 두 증인

- 성전은 이 환상이 있고난 후 56년이 지난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었다.**
-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에서 **“성전 바깥마당”은 성전의 여러 뜰들 가운데 이방인들의 출입이 허용된 광장을 말한다.** 주전 605년, 597년, 586년에 각각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능욕을 당했던 곳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육체가 찢기신 것을 휘장이 갈라져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로 통합된 것에 비교하였다. 성전은 우주의 축소판이고 성소 휘장은 지상의 모든 담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성소 휘장이 갈라진 것은 지상의 담들 곧 이방인을 차별하는 민족의 담, 여성을 차별하는 성별의 담, 신분의 담 및 계급의 담이 허물어졌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분이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7-11:2)

###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

- 로마제국시대에는 이방인들이 허용된 뜰을 넘어 미문 안쪽 성전영내 곧 '여성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에 들어갈 수 없었다.
- 이들 뜰을 침범하는 이방인들은 사형에 처해졌다.

- 성전 영내의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 바깥뜰의 이방인들로 구별한데서 계시록의 천상과 지상백성의 분리의 모형을 찾을 수 있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7-11:2)

- 1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씀과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말씀은 **구원 받은 백성과 심판 받을 백성**의 구별과 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 구원 받은 사람은 **성전 영내에 속한 자들**이고, 심판 받을 사람들은 **성전 바깥마당에 속한 자들**이다.
- 어린양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성전 영내에 들어갈 자격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지 아니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7-11:2)

### 두 증인

- 계시록 5장과 7장은 이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성전과 예배하는 자들을 보여줬고, 그들의 수가 '144,000'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바가 있다.
- 따라서 11장에서의 '측량'은 7장에서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란 말씀과 동일개념의 반복으로 볼 수 있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7-11:2)

- 그러나 2절에서 '이방인의 뜰과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게 두라'는 말씀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거룩한 성전에 들지 못한 자들로서 닥쳐올 세 번째 화인 일곱 대접재앙을 받아야 할 자들이다.
-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기간을 42개월 곧 3년 6개월로 설정해 놓은 것이다.
- 이들 하나님의 적대세력에 의해서 3년 6개월 동안 핍박 받게 될 자들은 11장에서 '두 증인,'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 13장에서는 '성도'들이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0:7-11:2)

- ‘두 증인’(목회자들), ‘해를 입은 여인’(교회)과 ‘사내아이’(그리스도), ‘성도들’이 받는 **박해기간**을 42개월, 한 때와 두 때와 반, 1260일 곧 3년 6개월로 언급한 것은 박해기간이 짧다는 것 곧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을 강조한 것이다.

- 정상에 계셨던 하나님은 바닥에도 계시고, 낮에 계셨던 하나님은 밤에도 계신다. 좋은 때에 계셨던 하나님은 나쁜 때에도 계신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시련의 기간이 짧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믿음의 끈, 희망의 끈, 인내의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 Do Not Lose Your Faith in God!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 요한계시록 11장 1-4절

[1]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기록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4]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계시록 11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고, 성전 축적, 두 증인,  
뿔이 뿜아내었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1:3-4)

## 두 증인

- 3년 6개월은 성도들이 겪는 환란의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교훈하는 역사성을 가진 기간이다.
- 이 기간에 일어나는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와 ‘미가엘’과 ‘증인’(목회자)과 ‘성도’로 구성되는 하나님의 팀과 ‘용’(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와 ‘악한 자들’로 구성되는 사탄의 팀 사이에서 이뤄진다.
- 여기에 나타난 한 가지 특징은 사탄의 팀이 짧은 3년 6개월간 승세를 잡는다는 점이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1:3-4)

## 두 증인

- **두 번째 특징**은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들의 권세도 일시적으로 허용된 것에 불과하여, **때가 되면** 머리 깎인 삼손처럼 무력해지기 때문에 싸움은 **반전(反轉)** 되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점이다.
- 계시록 11장 3-13절은 **두 증인**에 관한 환상이다.
- 이들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이다.
- 각각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대표한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1:3-4)

## 두 증인

- 1-2절에서 **이방군대의 약탈기간이 월단위(42개월)로 표시된** 반면, 3-13절에서는 **두 증인의 예언활동 기간이 날짜단위(1260일)로 표시되었다.**
-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영웅들이며, **두 분 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표상들이었다.** 그렇지만, **복음서에서는 엘리야를 침례 요한의 모형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고할 자로 본 경향이 있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1:3-4)

## 두 증인

-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렵던 시기에 등장한 인물들이다. 그런 만큼 이 분들은 하나님께 강력하고 특별한 권능을 받아 활동했다.
- 이 분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표현은 그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망선고를 받은 때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각각 **바로와 아합을** 대항해서 싸웠다.
- 그들은 각각 자기 시대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싸우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1:3-4)

## 두 증인

- 4절에서 이분들이 **“두 감람나무와 두 등잔대”**로 묘사된 것은 이분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밝힌 등불이었기 때문이다.
- **감람나무는** 등잔대의 등잔에 넣을 기름을 짜는 올리브가 열리는 나무이고,
- **등잔대의 등잔은** 어둠을 밝히는 불이다.
- 예수님께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고 말씀하신 것처럼 **땅의 모든 성도, 특히 주의 종들은 어둔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1:3-4)

## 두 증인

- **성도는** 성령님을 기름으로 채워 세상을 밝히는 등잔이다.
-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는** 성령님을 기름으로 채워 세상을 밝히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
- **계시록 11장 4절에 언급된 “두 감람나무와 두 등잔대”는 이어지는 말씀들로 볼 때 모세와 엘리야가 분명하지만, 두 감람나무와 등잔대에 관한 환상의 모형은 스가랴서 4장에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두 감람나무(숙 4장)



여호수아  
모세  
다윗  
엘리아  
그리스도

스룹바벨  
여호수아  
솔로몬  
엘리사  
사도

Illustration by Helena Lehman  
of the Pillar of Enoch Ministry:  
<http://pillar-of-enoah.com>

두 금관과 순금 등잔대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1:3-4)

## 두 증인

- 스가랴 4장에서 메노라(일곱 개의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원통그릇에 금 기름을 채우는 두 감람나무는 무너진 솔로몬성전을 재건축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다.
- **스룹바벨 성전은** 20년(536-516 BC)만에 완공을 보았지만, 솔로몬성전보다 작고 불품은 없었다.
- 하지만, 토박이들의 극심한 방해와 극한 가난 속에서 일궈낸 값진 열매였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1:3-4)

## 두 증인

- 이 두 사람은 주전 537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42,360명을 이끌고 고국에 돌아와 파괴된 솔로몬 성전을 재건축한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 혹은 하나님의 편에 선 일군들로서 여호수아는 기초자이고, 스룹바벨은 건축자였다.
- 이들은 이스라엘이란 마차를 끄는 쌍두 또는 그 마차의 두 수레바퀴와 같은 존재들이었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1:3-4)

## 두 증인

-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스도와 사도들, 사도들과 장로 목사들이 모두 문자적이든 영적이든 이스라엘이란 마차를 끄는 쌍두 또는 그 마차의 두 수레바퀴와 같은 존재들이었다.
- 이들은 이스라엘로 상징된 메노라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고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금 기름을 공급하는 자들이었다.
- 성소의 메노라에 불을 밝히지 못하는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였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심심(막 9:1)

모세  
(율법)  
엘리아  
(예언)  
구약  
(모형)  
●  
그리스도  
(복음)  
신약  
(실체)



여호수아  
(율법)  
엘리사  
(예언)  
구약  
(모형)  
●  
사도들  
(복음)  
신약  
(실체)

기초자

건축자

이스라엘의 국장: '토라'의 왕관, '율법'나무가지, '메노라'

이스라엘의 문장:

토라(תּוֹרָה)의 왕관(כִּתְרוֹן), 월계수화환, 메노라(등대)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1:3-4)

## 두 증인

- 따라서 “두 감람나무와 두 등잔대”는 등불이 커지는 상황을 막고 등불이 지속적으로 밝혀지는 상황을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 계시록 11장 4절에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등잔대”란 구절이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지칭한 것이다.
- 모세는 이스라엘에 땅과 율법을 갖게 해주었고, 엘리야는 그것들을 제자리에 되찾아 놓은 인물이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1:3-4)

## 두 증인

- 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사역의 지속성과 관련 있다. 예를 들면,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 엘리야와 엘리사, 예수님과 사도들, 바울과 장로목사들로 이어진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의 연속성과 관련 있다.
- 가나안땅을 희망한 최초의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그 희망을 성취시킨 인물이 모세인데, 모세는 떠돌이노예들이었던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요단 강변까지 인도한 첫 번째 그리스도였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1:3-4)

## 두 증인

-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땅의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떠돌이노예들인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땅으로 쳐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여 떠돌이노예들에게 안식처를 마련해준 용사였다.
- 모세와 여호수아가 협력하여 히브리 열두 부족에게 빵과 명예와 주권을 갖게 해준 것이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1:3-4)

## 두 증인

- 여기서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여호수아와 히브리인들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며, **출애굽기는 누가복음의 모형**이고, **여호수아서는 사도행전의 모형**이다.
- 생명의 양식과 하늘 가나안땅의 시민권과 하나님가족의 식구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 **다윗은** 열 두 부족동맹을 통일시켜 예루살렘 시온을 중심으로 강력한 왕국을 이룬 왕이었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1:3-4)

## 두 증인

- 또 시온 산에 하나님을 모실 성전건축을 희망하고 준비한 최초의 왕이었다.
-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희망을 성취시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최초의 왕이었다.
-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에 다윗왕국과 솔로몬성전을 모두 빼앗긴 채 또다시 떠돌이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다.
-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혹은 스룹바벨에게 메시아적 희망을 품었을 수 있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1:3-4)

## 두 증인

-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2천 6백 년째 **제2모세** 혹은 **제2다윗**을 기다리고 있다.
- 그가 오시면 빼앗긴 주권과 추락한 명예와 성전예배를 복원시켜 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 곧 **다윗왕국과 성전재건과 성전예배가 복원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이스라엘나라를 회복된 나라로 보지 않는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1:3-4)

## 두 증인

- **엘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야훼신앙이 붕괴되고 있을 때 혜성처럼 나타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인물이다.
- 주전 885년 **오므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국제사회에 알린 강력한 왕이었지만, 아들 **아합**(874-853B.C.)을 옛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동맹을 맺게 한 인물이었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1:3-4)

## 두 증인

- **솔로몬**의 가장 큰 실수가 이방민족들과 결혼동맹을 맺은 것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방종교들을 예루살렘에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 게다가 나이든 솔로몬은 젊고 예쁜지만 사특했던 이방인 부인들이 요구하는 신당(神堂)행사 참여를 뿌리치지 못하였다.
- **오므리**가 아들 아합과 결혼시킨 옛바알의 딸 **이세벨**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교활한 여인이었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1:3-4)

## 두 증인

- **솔로몬**이 이방여인들 한테서 그랬던 것처럼 **아합은** 이세벨의 사특함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 전역에서 **야훼신앙이 폐지되고 바알 신앙이 강권**되었다.
- 이 위기의 때에 **엘리야**가 나타나 영웅적인 활동을 펼쳤다.
- 그렇다고 엘리야가 상황을 깔끔히 종결 시킨 것은 아니다.
- 모세와 다윗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것처럼 엘리야의 역할도 제한적이어서 여호수아와 솔로몬처럼 마무리작업은 **엘리사**가 처리하였다.

# 천국백성의 짧은 환난(계 11:3-4)

## 두 증인

- **엘리사**는 예후라는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 예후는 이세벨의 후손들과 바알 사제들을 처단하여 이스라엘에는 단 한명의 바알 사제가 남지 않게 하였다.
- 그렇다고 성경은 예후를 개혁 또는 혁명의 완성자로 보지 않는다. 야훼의 발등상으로 세운 두 곳(단과 벰엘)의 황금송아지 상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이처럼 **개혁이나 혁명은** 실패 또는 미완성으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 **16세기 종교개혁은** 그것이 아무리 위대했더라도 여전히 미완성으로 끝났다.
- 그 미완성을 완성시키려고 일어난 운동이 19세기의 **‘환원운동’**, 일명 **‘스톤-캠벨운동’**이었다. **이 운동으로 생긴 교회들이 ‘Christian Churches’, ‘Churches of Christ’, ‘Disciples of Christ’이다.**
- 그러나 여기가 개혁(회개운동)의 끝이 될 수는 없다. 개혁은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 **개혁(회개운동)은 ‘그 왕’(The King)이 오실 때까지 지속 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 요한계시록 11장 5-19절

[5]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 요한계시록 11장 5-19절

[7]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8]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9]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 요한계시록 11장 5-19절

[10]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11]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 요한계시록 11장 5-19절

[13] 그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칠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14]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6]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이십사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 요한계시록 11장 5-19절

[17]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18]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두 감람나무와 등잔대(모자이크, 스크 4장, 기계 11장)



계시록 12장 11-14절(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고, 성전 축적, 두 증인, 용이 묘사되었다.

## 요한계시록 11장 5-19절

- **예수님은** 오실 자 제2모세 혹은 제2다윗이었다. 그러나 그분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의 추락한 명예와 빼앗긴 주권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았다.
- 대신에 인류를 하늘 가나안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나라의 시민과 하나님가족의 식구가 되게 할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기획하셨다.
-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잇돌과 머리 또 몸이 되시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직접 그리스도의 교회를 시작하신 것은 아니다.

## 요한계시록 11장 5-19절

### 두 증인

-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은 사도들이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모세, 다윗, 엘리야처럼 제자들과 이취임식을 가졌다.
- 그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19-23절**에 나온다.
- 부활하신 날 밤에 가진 식(式)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며, 하늘 가나안땅 정복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셨다.**

## 요한계시록 11장 5-19절

- 이것은,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
- 또 모세가 지상 가나안땅 정복을 위해서, 다윗이 성전건축을 위해서, 엘리야가 야훼신앙복원을 위해서 **후임자에게 능력을 덧입게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자요 전임자였던 바울도 건축자요 후임자인 장로들을 성령님이 교회의 감독으로 삼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필 목사로 삼은 자들이라고 칭하였다.

## 요한계시록 11장 5-19절

### 두 증인

-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자와 건축자 혹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는 세상을 밝힐 기름공급을 위해서 이 땅에 뿌리를 박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편에 선 두 감람나무이다.
- 그들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과 솔로몬, 엘리야와 엘리사,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예수님과 사도들, 바울과 장로목사들이었다.

## 요한계시록 11장 5-19절

### 두 증인=두 감람나무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를 놓고 건축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교회를  
돌보고 감독하며, 교회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감람나무들이었다.

## 요한계시록 11장 5-19절

두 증인

-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 이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4:6).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투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4:10). 또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니, 온 땅의 주님 앞에 서있는 자들이다**”(4:14).

## 요한계시록 11장 5-19절

### 두 증인

-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0-12절의 말씀에서 평행구를 찾을 수 있고,
- 6절 상반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는 열왕기상 17-18장의 상황에서 평행구를 찾을 수 있다.

# 요한계시록 11장 5-19절

## 두 증인

- 또 6절 하반기,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는 출애굽기 7-12장의 열 가지 재앙들에서 그 평행구를 찾을 수 있다.
- 이들 구약성서의 평행구들은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

## 요한계시록 11장 5-19절

### 두 증인

- 모세와 엘리야는 승천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부활승천을 대표한다.
-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곧 사탄에게 죽임을 당한다.
- 사탄은 음부의 사자이다. 8절에서 증인들이 죽어 시체로 있던 곳을 영적으로 '소돔' 혹은 '애급'이라 부른 예루살렘,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했다.

‘파괴자’  
아바돈 (Abaddon)  
혹은 아볼루온  
(Apollyon)를 묘사한  
〈천로역정〉의 삽화.  
그리스도인이 아볼루온과  
싸우는 장면.

박해자들이었던  
갈리굴라, 네로,  
도미티아누스가 자신들을  
아폴론의 화신(계시)으로  
주장하였다.



운명의 신  
아폴론과  
다투는  
헤라클레스



## 요한계시록 11장 5-19절

두 증인

- 이 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이 싫어했다.
- 그래서 10절에서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고 하였다.
- 주의 종들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배척당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 예수님께서서도 이 땅에 계시는 3년 6개월 동안 배척당하시고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 요한계시록 11장 5-19절

### 두 증인

- 그러나 무덤은 주님을 가뉘 두지 못했고,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토해낸 것처럼, **무덤은 삼일 만에 주님을 토해냈고, 주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셨다.**
- 비슷한 맥락에서 **모세와 엘리야도 승천**하였다.
-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 수레와 불 말들 사이에서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했고(왕하 2:11),
- **모세는 죽어서 시체로 승천했다는 설이 있다.**

# 요한계시록 11장 5-19절

## 두 증인

- 신약성서 유다서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는 기록이 있듯이, 고대의 유대인들은 모세의 시체가 땅에 묻혀 썩지 않고 승천했다는 **‘몽소승천’** (Assumption of Moses)을 믿었다.
- 11-12절의 말씀이 이들의 승천을 반영한 글이다.



[요한계시록 11:11]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요한계시록 11:12]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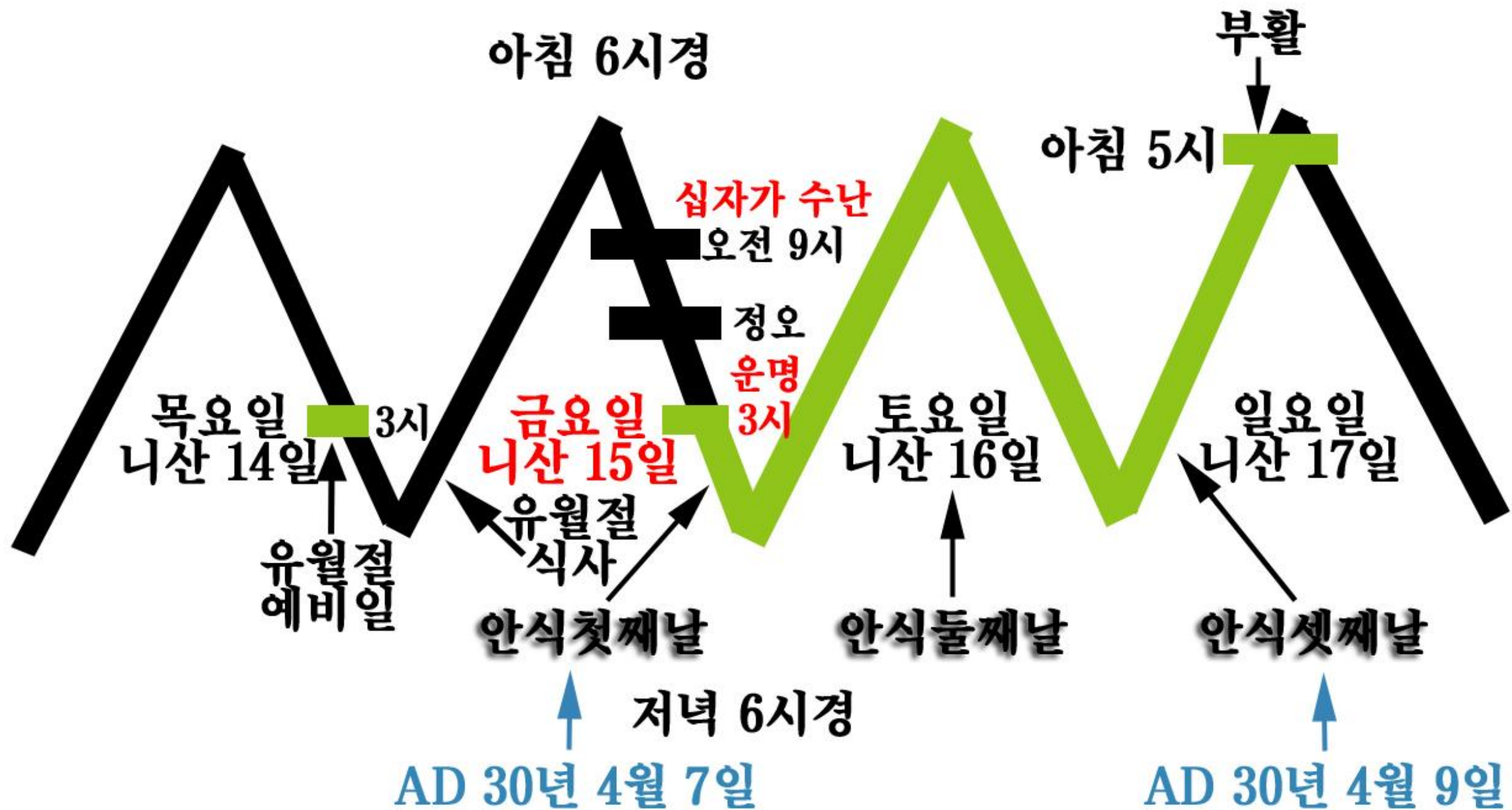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시간  
기존주장: 38시간 정도, 날짜로 삼일(금,토,일)

**요한복음 5장**

[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테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3]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5]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 예수님의 수난과 무덤에 계신 시간 - 기존의 주장(38시간)



예수님께서서 무덤 속에 계신 시간  
새 주장: 62시간 정도, 날짜로 나흘(목금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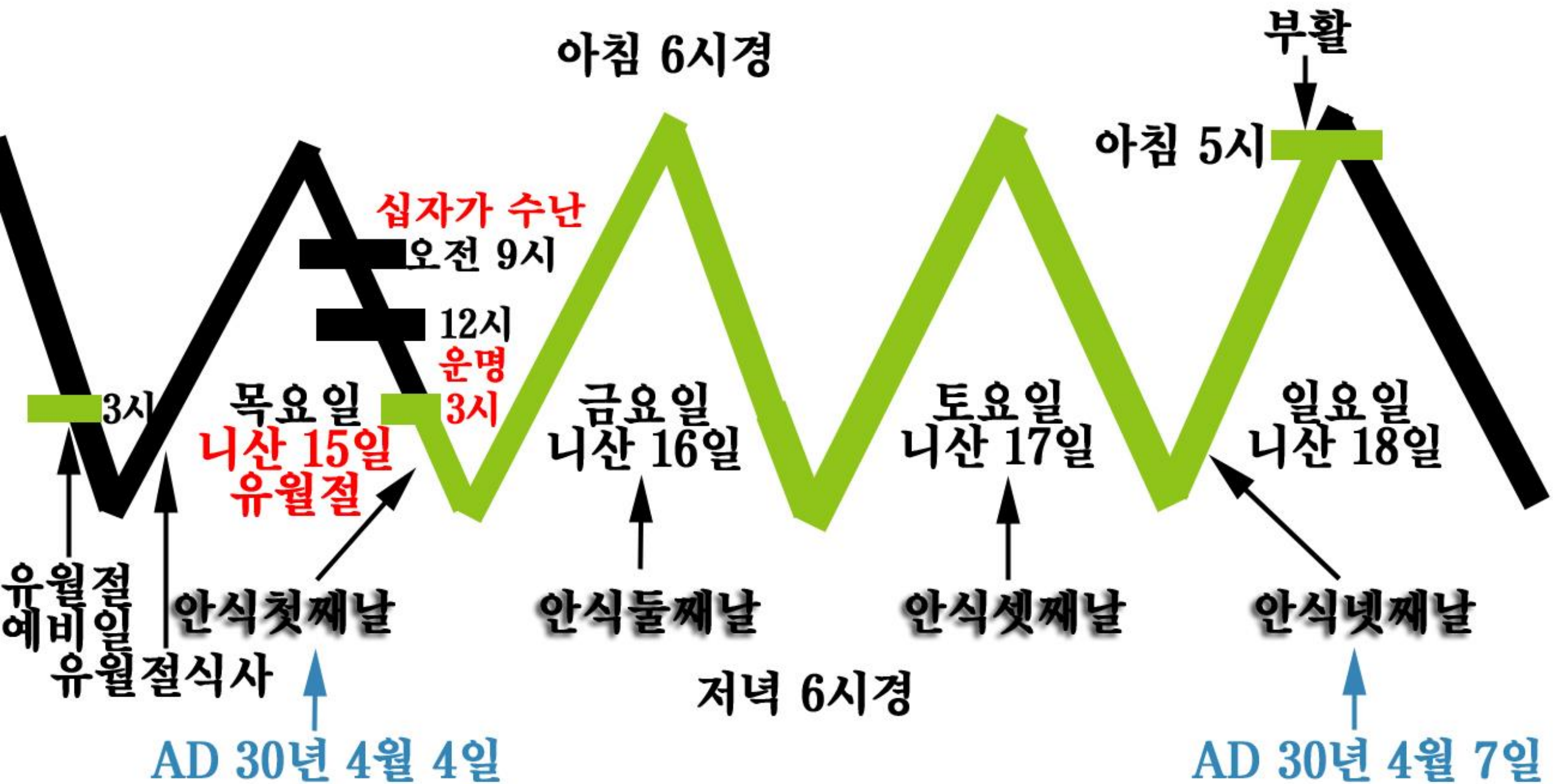
**요한복음 11장**

[17]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지 이미 나흘이라...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태복음 12장 40절**

[40]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 예수님의 수난과 무덤에 계신 시간 - 새로운 주장(62시간)



# 요한계시록 11장 5-19절

## 두 증인

- 14절 이하는 일곱 번째 나팔에 관한 내용이다.
- 계시록 8장 13절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다.”는 말씀이 있다.
- 9장에 이들 세 번의 ‘화’들 가운데 두 개가 나온다.
-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재앙이 바로 그것들이다.



계시록 9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난 환상을 묘사하였다.

# 요한계시록 11장 5-19절

## 두 증인

- 그리고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는 선포가 있고, 15-19절에 세 번째 ‘화’인 일곱 번째 나팔이 나온다.
- 그러나 일곱 번째 나팔은 재앙이라기보다는 더 무서운 재앙, 나팔재앙보다 강도가 훨씬 더 강한 일곱 대접재앙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 그것은 마치 일곱 번째 인의 침묵이 일곱 나팔재앙을 끌어드리기 위한 고요였던 것과 같다.

## 요한계시록 11장 5-19절

두 증인

- 15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실 것이다”라고 외친다.
- 일곱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침묵이 흘렀던 것과 대조적이다.
- 이어서 16-17절에서는 24장로들이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고, 지금이 심판과 보상의 때임을 선포하고 있다.

# 요한계시록 11장 5-19절

두 증인

- **심판**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받을 몫이고, **보상**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몫이다.
- 그리고 19절 마지막 절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소리, 곧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을 했고,

## 요한계시록 11장 5-19절

-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하였다.
-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고백이요, 핵심 메시지이다.
-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시련기간을 짧게 정하시고, 그 기간을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로 잘 참고 끝까지 이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셨다.

# 요한계시록 11장 5-19절

두 증인

- 그래서 시련은 짧고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 짧게 표현된 시련의 상황이 영원한 영광의 상황으로 반전(反轉)되고, 회복(回復)되며, 기도와 소망이 이뤄지고, 구원이 이뤄진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 요한계시록 12장 1-4절

[1]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 두 별의 관을 썼더라.

[2]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3]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 요한계시록 12장 1-4절

[4]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게시록 12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발 아래에 달과 머리에 열두 별의 관을 쓴 해를 입은 여인과 일곱 머리 열 발과 일곱 왕관을 쓴 큰 붉은 용을 묘사하였다.



게시록 12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발 아래에 달과 머리에 열두 별의 관을 쓴 해를 입은 여인과 일곱 머리 열 발과 일곱 왕관을 쓴 큰 붉은 용을 묘사하였다.



프랑스 성경(La sainte Bible en Francoys, 1530)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게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쓴 여인과 일곱 머리 열 발에 일곱 왕관을 쓴 붉은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삼십의 일을 끌다가 땅에 던지는 모습과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 요한계시록 12장 1-4절

###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

- 계시록 11-13장은 박해자와 박해를 당하는 자들에 관한 계시로써 그 기간을 **삼년 반**으로 묘사하였다.
- 11장에서는 **이방인 군대의 압제기간과 두 증인이 박해를 당하며 활동하는 기간을 각각 삼년 반으로 묘사**하였다.
- 삼년 반에 관한 언급은 12-13장에서도 나온다.
- **삼년 반은 '마흔 두 달,' '일천 이백 육십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란 단어로 각각 다르게 표기하였다.

# 요한계시록 12장 1-4절

##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

- 삼년 반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시련의 기간이 짧다’**는 상징적인 의미이다.
- 삼년 반은 **엘리아 시대**에 아합(874-853 BC)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숭배를 강요하던 기간에서 유래된 것이다(왕상 18:1).
- 삼년 반은 **다니엘서**에도 언급되었는데, 이는 마카비 독립전쟁 시대에 헬라제국의 안티옥커스 4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야훼신앙을 말살하려 했던 삼년 반(167-164 BC)에서 나온 것이다.

# 요한계시록 12장 1-4절

##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

- 이들 사건들은 역사적 사건들로써 모두가 심각한 **배교의 위협을 받았던 때였다.**
- **예수님도** 공생애 삼년 반(AD 26-30) 동안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 **네로 때**에도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대략 삼년 반(AD 64-68) 동안 몹쓸 박해를 받았다.

# 요한계시록 12장 1-4절

##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

- 계시록의 **삼년 반은** 성도들이 악의 세력에게 당하는 **시련의 기간**이지, **재앙의 기간**은 아니다.
- 성경에는 재앙의 기간을 삼년 반으로 언급한 곳이 없다.
- 성경에 나오는 재앙은 악의 세력을 응징하기 위한 것이다.
- 재앙과 환난을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

**환란(인내) ≠ 재앙(심판)**

# 요한계시록 12장 1-4절

##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

- 계시록에서 말한 **‘큰 환난’** (7:14)은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당한 **시련**을 말한 것이고, **나팔재앙**이니, **대접재앙**이니 하는 것들은 박해세력인 악의 무리를 멸하시고, 그 들로부터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구출**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군사작전이다.
-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내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과 같다.

## 요한계시록 12장 1-4절

###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

- 군사전술에 ‘공격개시 전 사격’이란 것이 있다.
- 보병의 진격명령이 있기 전에 소나기처럼 퍼붓는 포사격을 말한다. 보병의 공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보병의 진격 전에 적의 진지를 완전히 축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 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다름 아닌 악의 무리들에 포로로 잡힌 성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소나기처럼 퍼붓는 공격개시 전 사격과 같다.

**재앙** ≡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

## 요한계시록 12장 1-4절

###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

- 재앙이 성도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 요한계시록 12장은 호사다마(好事多魔), 곧 하나님께서 세운 좋은 계획 속에도 사탄의 꾀계가 숨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그러나 사탄의 세력은 반드시 무너지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 교훈이다.

## 요한계시록 12장 1-4절

###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

- 1-2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탄생에 극심한 산통이 있음을 말해준다.

- 좋은 일에 어찌 시련이 없겠는가? 히브리 민족의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사내아이가 극심한 진통 후에 출생되었듯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교회'란 이름의 사내아이가 극심한 산통, 곧 '큰 환란'을 겪으면서 탄생된다는 점을 말해준다.

## 요한계시록 12장 1-4절

###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

- 따라서 **해와 달을 입고 머리에 열두 별의 관을 쓴 여인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말함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교회**를 말하며, **이스라엘이 그 모형**이다.
- **이 여인이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탄생, 마치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극심한 진통 속에서 탄생하였듯이, 교회의 탄생도 **핍박 가운데서 이뤄질 것이고, 또 그렇게 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 요한계시록 12장 1-4절

###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

- 이 여인이 해를 옷 삼아 입고 달을 신 삼아 신은 것은 의의 빛이신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님의 광명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을 잉태한 것**이고, 머리에 열두 별의 관을 쓴 것은 그가 잉태한 민족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요, 그 모형이 구약시대의 히브리 민족임을 보여준 것이다.
- 유다왕국의 회복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도 66장 7-9절에서** 나라의 회복 또는 탄생을 출산의 고통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다.

## 요한계시록 12장 1-4절

### 이사야서 66장 7-9절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 계시록 10-13장의 교훈

이스라엘(교회)이라는 사내아이가  
태어나 잘 성장하기 위한 충족조건

- 산통 - 옥동자가 태어나기 위한 고통
- 두 감람나무 (지도자들: 기초자와 건설자) -  
등불을 밝힐 기름공급 (성장에 필요한 영양공급)
- 회개+믿음+인내=불굴의 믿음

# 요한계시록 12장 1-4절

##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

- 3-6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탄생을 방해하는 세력의 배후에 흉악한 사탄이 있음을 말해준다. 사탄은 구약성서에서 용으로 묘사되었다(사 27:1, 시 74:13).
- 그것의 붉은 빛은 예수님의 보혈을 모방한 분열과 파멸의 피를 상징한다.
- 용은 구약성경에서 해롭고, 포악하고, 잔인한 존재로서 때로는 바다(험한 세상)에, 때로는 사막(험한 세상)에 기거하면서 삼킬 자를 찾는 사악한 존재로 묘사되었다.

## 요한계시록 12장 1-4절

###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

- 3절,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다.”는 말씀은 모든 제국들과 황제들의 권세를 상징한다.
- 이들이 바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성도들을 탄압하는 박해 세력들이다.
- 일곱 머리 열 뿔에서 ‘일곱’은 완전수이며, ‘열’(10)도 삼(3)과 칠(7)이 합하여 만들어진 완전수이다.

## 요한계시록 12장 1-4절

###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





- 그들의 권세가 완벽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권세들은** 그들의 것이 아니며, 언제라도 하나님이 거두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허락된 것에 불과하다.
- 일곱 머리 열 뿔이 사람들 눈에는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좌우되는 종이호랑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요한계시록 12장 1-4절

##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

- 요한계시록 12장의 **일곱 머리 열 뿔은** 다니엘서 7장에 묘사된 **네 짐승**에서 그 모형을 찾을 수 있다.
- **네 짐승(일곱 머리)**은 역사 속에 등장한 네 개의 제국들을 말한다.
- 사자는 **바벨론제국**, 곰은 **메데 파사제국**, 표범은 **헬라제국**, 열 뿔을 가진 짐승은 **로마제국**을 상징한다.
- 단 헬라제국은 알렉산더 사망이후 **마케도니아왕국**, **소아시아왕국**, **시리아왕국**, **이집트왕국**으로 갈라졌으므로 머리와 날개가 네 개인 표범으로 묘사되었다.

# 네 짐승 환상(단 7장)

순서	짐승 이름	모습	짐승 그림
첫째 바빌론	사자 아시리아	독수리 날개가 달렸음 / 그리핀(사자+독수리)	
둘째 페르시아	곰 메데, 바빌론, 이집트	몸 한편을 들었고 잇 사이에 세 갈 빛대를 물었음	
셋째 헬라	표범 마케도니아, 아시리아, 시리아, 이집트	새의 날개 넷이 달리고 머리가 넷임	
넷째 로마	무섭고 놀랍고 강한 짐승	철 이를 가졌음 열 뿔이 달렸음	

# 바빌론 제국

- 함무라비 BC 1700년경
- 느부갓네살 BC 580년경



이집트  
시내

0 500  
킬로미터





카산더

리시마커스

셀류커스

프톨레미



## 요한계시록 12장 1-4절

###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

- 이들을 다 합한 머리가 일곱이다.
- 열 개의 뿔을 가진 짐승은 로마제국이며, 열 뿔은 권력을 가진 로마황제들을 상징한다.
- 그런데 계시록 12장의 ‘큰 붉은 용’은 일곱 머리 열 뿔을 한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가 이들 네 짐승들(제국들과 황제들)의 배후 세력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일곱 머리 = 제국들, 열 뿔 = 황제들**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 요한계시록 12장 5-17절

- [5]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 [6]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천이백육십 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 [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 [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 요한계시록 12장 5-17절

[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 요한계시록 12장 5-17절

[11]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 요한계시록 12장 5-17절

[13]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며





[15]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 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16]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 네 짐승 환상(단 7장)

순서	짐승이름	모습	짐승 그림
첫째 바빌론	사자 아시리아	독수리 날개가 달렸음 / 그리핀(사자+독수리)	
둘째 페르시아	곰 메데, 바빌론, 이집트	몸 한편을 들었고 잇 사이에 세 갈빗대를 물었음	
셋째 헬라	표범 마케도니아, 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새의 날개 넷이 달리고 머리가 넷임	
넷째 로마	무섭고 놀랍고 강한 짐승	철 이를 가졌음 열 뿔이 달렸음	



계시록 12장(Luther Bible, 153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Hans Burgkmair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발 아래에 달을, 머리에 열두 별의 관을 쓴 해를 입은 여인과 일곱 머리 열 별과 일곱 왕관을 쓴 큰 붉은 용을 묘사하였다.

## 요한계시록 12장 5-17절

###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

- **일곱 머리와 그 위에 왕관이** 있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완벽해 보이는 **권력을 상징**한다.
- 그러나 **그들의 권력은** 그들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허용된 모방 또는 위임 권력**일 뿐이다.
-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탄압하는 자들**이고,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들**이지만,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노는 종이 호랑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요한계시록 12장 5-17절

###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

- 사탄의 사악한 계는 제국들의 황제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 4절에서 사탄이 해와 달을 입은 여인이 생산하는 사내아이를 삼키려 하는 것은 제국들과 황제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것을 상징한다.
- 사내아이는 그리스도이며, 모세가 그 모형이다.

## 요한계시록 12장 5-17절

###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

- 따라서 사내아이의 출생은 모세의 출생에 연결되고, **영아살해를 시도하는 사탄의 발악**은 이집트의 **바로**와 유대의 **헤롯**이 저지른 역사적 사건에 연결된다.
- 그리고 해와 달을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는 교회와 교회가 낳아 양육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한다.
- 5절에서 해와 달을 입은 여인이 낳은 **사내아이**는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의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한다.

## 요한계시록 12장 5-17절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

- 그 아이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으로 올라간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 보호받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 이 사내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표현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란 뜻이며, 시편 2편 9절에 예언되어져 있다.

## 요한계시록 12장 5-17절

- 6절에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천이백육십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는 말씀은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탈출에 성공한 후에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말한 것이다.
- 광야로 피신한 여인은 히브리 민족의 광야생활에서 그 모형을 찾을 수 있고, 1290일은 짧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북 이스라엘 왕국의 아합과 헬라제국의 에피파네스 안티옥커스 4세에 의해서 야훼 하나님 신앙이 극심하게 탄압을 받았던 삼년 반에서 그 모형을 찾을 수 있다.

## 요한계시록 12장 5-17절

###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

- 모세와 여호수아의 영도아래 히브리 민족이 모든 환란을 끝내 이기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듯이,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면 끝내 이기고 영원한 안식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교훈한다.
- 그리스도의 철장권세가 상징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 철장은 왕의 홀로써 문자적으로 쇠몽둥이이며 권력의 상징이다.
-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이기고 영원토록 왕 노릇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 요한계시록 12장 5-17절

-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늘에서의 전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맛보신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 피조물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울 수 없다.
- 사탄을 비롯한 그 어떤 악의 세력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허락된 시간만큼만 노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사탄이 이기는 것 같고, 우세해 보일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다.**

## 요한계시록 12장 5-17절

###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

- 만일 하나님이 사탄과 천사와 인간과 같은 피조물과 싸우실 일이 있다할지라도, 그 싸움의 결과는 이미 예정된 운명이고 숙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피할 수 없다.
-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동굴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아주 잠시 동안만 사탄이 승리감에 빠질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서 무덤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 사탄의 죽음의 권세는 마치 태엽 풀린 시계처럼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 요한계시록 12장 5-17절

###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

- 따라서 7절과 9절의 ‘싸울 새’와 ‘내어 쫓기니’와 같은 표현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
- 하나님의 적대세력은 다 내어 쫓긴 자들이다.
- 그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것은 그들이 멸망 당할 자들이란 것을 의미한다.
- 땅은 심판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 요한계시록 12장 5-17절

- 그러므로 성도들은 10-11절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 요한계시록 12장 5-17절

###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

- 그러나 다 이겨 놓은 싸움일지라도 방심하면 역전패하는 경우가 생긴다.
- 그래서 **시합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까지 방심은 금물이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12-17절이다.
- 12절은 하늘의 영역과 바다와 땅의 영역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다.
- 하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역이요, 바다와 땅은 저주와 심판 받을 자들의 영역이다. 물론 상징적이다.

## 요한계시록 12장 5-1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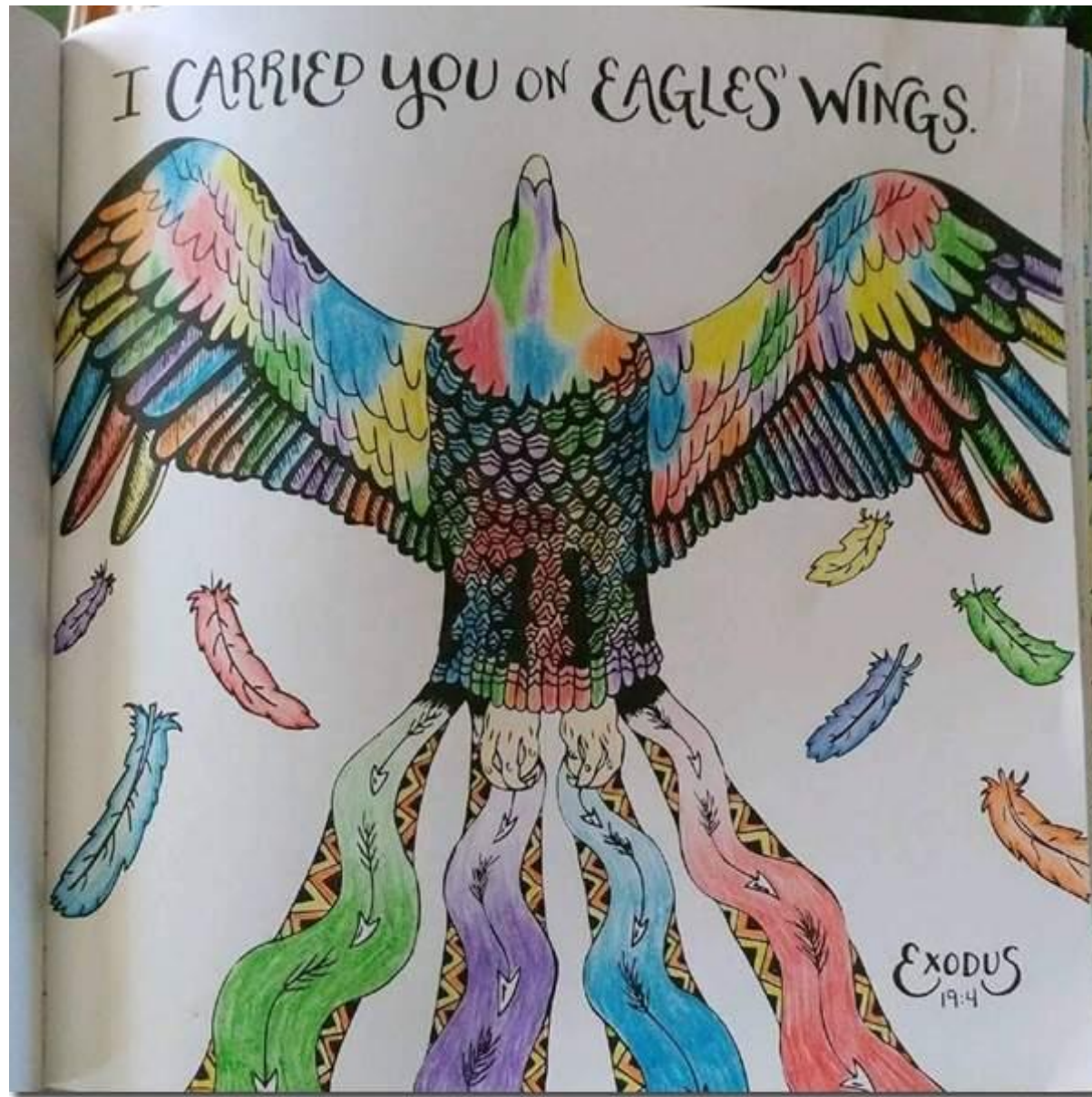
###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

- 계시록은 하늘과 땅의 환상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구원 받은 자들과 심판 받을 자들**을 엄격히 구별한다.
- 이것은 궁극적으로 천국과 지옥의 구분을 상징한다.
- 사탄과 그의 무리도 심판의 대상이므로 땅으로 내어 쫓겼고, 더 이상 성도들과 함께 낙원에 있지 못함으로 그들을 참조할 기회를 잃게 된다.

# 요한계시록 12장 5-17절

## 해를 입은 여인과 사내아이

- 13-17절은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이 땅의 교회와 그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악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 13절에서 사탄이 사내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한다는 뜻이고, 14절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는다.”**는 말씀은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간 연단 받았던 것에 연결된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의한 독수리 묘사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 하나님께서 떠돌이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시켜 **독수리의 날개로 얹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출 19:4)**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고백이다.
- 이 **환란기간 곧 박해기간이 짧다**는 의미를 삼년 반으로 묘사하였다.
- **이 짧은 기간을 참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다 이겨 놓은 싸움을 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경고한 말씀이 계시록 12장 12-17절이다.**

밤이 가장 길고 엄동설한에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이유는 밤이 깊고 추위가 혹독할수록 낮과 봄은 우리에게서 멀지 않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3]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 요한계시록 13장 1-5절

[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나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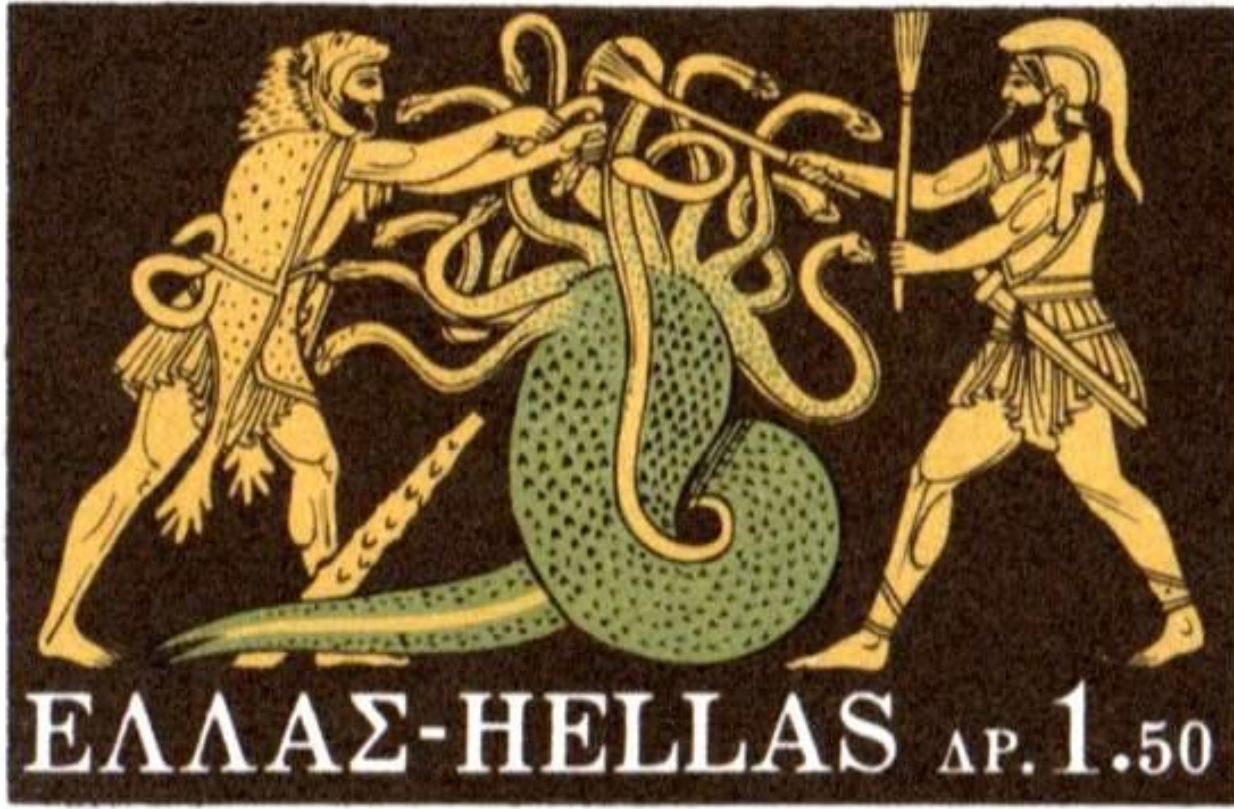
[5]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계시록 13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고,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 발에  
왕관을 쓴 첫째 짐승, 적 그리스도를 클로즈업한 것이다.



태양신이자 신들의 왕이며 바람(풍)의 신이자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두크(Marduk)가 혼돈(흙암)과 바다의 여신이자 바다의 용인 티아마트(Tiamat)를 벼락으로 공격하는 바벨론의 부조(대영 박물관)



헤라클레스와 레르나이아 후드라(그리스 우표, 1970)  
 헤라클레스가 자신의 운명에 부과된 두 번째 과업인 레르나이아 후드라를 퇴치하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첫 번째 과업 때 죽인 네메아의 사자 가죽을 쓴 헤라클레스가 후드라의 목을 베는 모습과 투구를 쓴 사촌 이올라오스가 잘려나간 목을 화살로 지지 후드라의 목이 재생되는 것을 차단하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후드라의 9개의 머리 가운데 한 개는 불사의 머리였는데 헤라클레스는 그것을 거대한 바위로 눌러 봉인해버렸다.

# 요한계시록 13장 1-5절

##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다.
- **바다는 음부 곧 혼돈과 죽음의 세계를 상징한다.**
- 복음서에 실린 예수님의 표현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상징한다.
- 따라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악하고 음란하고 혼돈한 세상의 괴수를 상징한다.**

# 요한계시록 13장 1-5절

##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 이 괴수는 사탄의 오른팔로써 칼의 권세를 가진 ‘악하고 음란하고 혼돈한 세상’의 통수권자인 제왕(帝王)을 말한다. 계시록은 그를 적그리스도로 표현했다.
-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란 표현은 제왕들과 제국들을 상징한다.
- 열 뿔에 있는 왕관들과 일곱 머리에 있는 신성모독의 이름들은 악하고 음란하고 혼돈한 세상의 제왕들이 자칭 신이라 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모방하고 그 영광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요한계시록 13장 1-5절

##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 일곱 머리 열 뿔의 모형은 다니엘서 7장에 있다. 일곱 머리에서 머리는 제국 또는 왕국을 상징한다.
- 여기서 일곱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마케도니아, 소아시아, 시리아, 이집트), 로마를 합한 숫자이다. 열 뿔은 이들 나라들의 제왕들을 말한다.
- 계시록에서 용은 사탄을 상징한다.
- 사탄도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일곱 머리 열 뿔의 소유자로서 일곱 머리에 왕관들을 쓰고 있다.

## 요한계시록 13장 1-5절

- 사탄의 일곱 머리에 있는 왕관들은 패권을 쥔 악하고 음란하고 혼돈한 나라들의 머리/조종자를 상징한다.
- 열 뿔은 악하고 음란하고 혼돈한 나라들의 제왕들, 곧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써 뿔에 왕관을 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권력은 사람을 살리는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권력이고, 세상을 살리는 권력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과 재앙에로 몰아넣는 권력이다.

## 요한계시록 13장 1-5절

- 계시록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의 백성을 탄압하는 자들을 '짐승'으로 묘사하였는데, **왕, 황제=적그리스도**를 말한다.

- 이들 제왕들의 머리에 신성모독의 이름들이 있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신성을 모방하고 그 영광을 찬탈했기 때문이다.
-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유한한 것들이 스스로 신성을 주장하고 신전을 만들며 자신들을 본떠 만든 우상들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절하고 분향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

## 요한계시록 13장 1-5절

###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율리우스 시저, 로마의 황제들인 아우구스투스, 클라우디우스,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가 사후에 로마 상원에 의해서 신으로 선포되었다.
- **박해시대에는 신전에 나와 분향한 사람들에게 증서를 발부하기도 하였다.** 요한이 밧모 섬에 유배되어 환상을 봤던 때의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는 **‘주와 하나님’ (DOMINUS ET DEUS)**이란 이름을 참칭하였다.

# 요한계시록 13장 1-5절

##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지적하였다.
- 계시록 13장 2절의 ‘짐승의 모양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에서 표범은 헬라, 곰은 메데 파사,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한다.

## 요한계시록 13장 1-5절

- 그런데 **사탄인 용**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고 있고,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위임 받고 있다.

인간 조직의 권위와 권력은 하나님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도 하나님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 해야 옳겠지만, 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탄이 위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 요한계시록 13장 1-5절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대항하는 권위와 권세는 사탄의 위임에 의한 권세이지, 하나님의 위임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를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세상권세에 복종하라는 바울과 베드로의 정치 윤리적 권면은 이 점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요한계시록 13장 1-5절

- 계시록은 오히려 인내와 믿음으로써 성도들이 끝까지 거짓 진리에 대항하여 맞설 것을 권면하고 있다.
- 3-4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겠느냐?** 하더라.”에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은 **도미티아누스의 선임자이자 박해자였던 네로를 암시한 것으로서 어린양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방과 표절**이다.

# 요한계시록 13장 1-5절

##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적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무지몽매함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귀머거리 됨을 의미한다.
-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는 미가엘 천사장이 맞서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표절하고 있다.

## 요한계시록 13장 1-5절

###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 이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로부터 나온 자로 기술되고 있으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겠느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 “죽게 되었던 상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죽임을 당한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방과 표절이다.
- 설사 짐승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복주는 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죽이는 능력이다.

## 요한계시록 13장 1-5절

###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 따라서 그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불행하게 될 것이고,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겠느냐?”라는 것은 대천사인 미가엘 이름의 뜻인 “누가 하나님과 같겠는가?”와 “누가 그와 겨루어 싸우겠는가?”를 모방하고 표절한 것이다.
- 이들 모방과 표절은 모두 다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 계시록의 메시지

- 적그리스도=짐승은 자기가 마치 추종자들에게 빛과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고, 큰 권능을 소유한 것처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기만술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이다.
- 용과 짐승은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고, 그것을 줄 수 있는 분들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의 곁에 계신 속죄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다.

# 계시록의 메시지

-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스도의 편에서 용과 짐승의 괴롭힘에 참고 싸워서, 승리자들의 대열에 합류할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구원의 해변에 서서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 해방의 노래를 목 놓아 부르라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이다.
- 계시록 13장 5절의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에서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은 자신을 ‘주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분향하게 하는 뻔뻔스럽고 가증스런 주둥아리를 말하는 것이다.

# 계시록의 메시지

##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탄의 영을 뒤집어 쓴 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역사적으로 헬라제국의 알렉산더, 안티옥쿠스4세 등이 아몬-제우스로 주장한 것을 비롯해서 로마의 황제들이 신성을 주장하였고, 근세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왕이 '가미사마' 또는 '천황'이라 부르며 신성을 주장하면서 '황거요배' 또는 '동방요배'를 강요한 사실이 있다. 정오 사이렌 소리가 나면 예배 중이라도 일제히 일어서서 동쪽을 향해 절을 해야 했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 요한계시록 13장 6-15절

[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9]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 요한계시록 13장 6-15절

[10]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1]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2]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 요한계시록 13장 6-15절

[13]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Tapisseries de l'Apocalypes, Angers, France)  
프랑스 앙제 성 전시실 벽에 걸려있는 거대한 요한계시록 벽걸이  
(높이 5m, 폭 130m) 그림의 하나이다. 낚시줄과 씨실로 짜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태피스트리(Tapestry)라 불린다. 앙제 공 루이 1세  
(재위 1360-84년)의 주문으로, 화가 장 드 브뤼주가 밑그림을 그렸고,  
직물장인 니콜라이 바타유가 직조하였다. 용(사탄)이 표범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은 짐승(적그리스도, 다니엘서 7장, 황제들)  
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는 장면이 묘사되었다.



계시록 13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 뿔에 왕관을 쓴 첫째 짐승 적 그리스도와 땅  
 에서 올라온 두 뿔을 가진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666)와  
 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묘사되었다.



프랑스 성경(La sainte Bible en Francoys, 1530)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 뿔에 왕관을 쓴 첫째 짐승  
 적 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두 뿔을 가진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와 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이 묘사되었다.

## 요한계시록 13장 6-15절

### 바다의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의 짐승 거짓선지자

- 일제 강점기 말엽 신사참배가 심하던 때에는 예배당에 일본에서 가장 높은 신인 ‘천조대신’(天照大神)=짐승의 우상을 벽에다 걸어 놓고 절을 하게 했고, 천조대신(天照大神)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였다.
- 예배당 안에는 ‘천조대신’뿐 아니라, ‘가미사마’ 곧 신(神)으로 신격화된 천황의 사진=짐승의 우상을 강단 뒤 벽에 걸게 하였고, ‘가미나다’라 불리는 이동식 신사(神社)를 예배당 안 동편에 놓게 하였다.

## 요한계시록 13장 6-15절

### 바다의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의 짐승 거짓선지자

-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들을 향해서 먼저 예의를 갖춘 후라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다.
-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강요 받았던 황제(짐승)숭배와 유사한 강요를 일제 강점기 때 조선 그리스도인들도 받았던 것이다.
- **역사적으로** 박해기간에는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박해 후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분열의 아픔을 겪었다. 광복 후에 찾아온 교회분열은 조선기독교교회라고 해서 피해가지 못했다.

# 요한계시록 13장 6-15절

## 바다의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의 짐승 거짓선지자

- 신사참배와 동방요배 모두를 수용한 **배도자**,
- 신사참배만 거부하고 동방요배는 수용한 **고려파**,
- 신사참배와 동방요배 모두를 거부한 손양원 목사와 같은 **재건파**로 나뉘졌다.
- 역사적으로 교회는 쓰나미처럼 밀려온 박해에 직면하곤 했다. 이 **박해를 주도한 자들을 계시록은 적그리스도로 표현**하였다.

# 요한계시록 13장 6-15절

바다의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의 짐승 거짓선지자

적그리스도는

- 사탄의 권세를 받아 **신성을 주장**하면서 **예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훼방한 자들**로서
- 계시록은 적그리스도의 활동기간을 상징적인 숫자인 **마흔두달, 1260일,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곧 삼년 반**으로 묘사하였다.

# 요한계시록 13장 6-15절

## 바다의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의 짐승 거짓선지자

- 그러나 ‘마흔두달’ 혹은 ‘1260일,’ ‘한 때 두 때 반 때’로 표현된 삼년 반은 성도들의 시련기간이 짧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 6-8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

# 요한계시록 13장 6-15절

## 바다의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의 짐승 거짓선지자

...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는 말씀은

- 삼년 반으로 묘사된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활동기간 곧 박해시기에 일어날 **배도**를 말한 것이다.

## 요한계시록 13장 6-15절

- 바다의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의 짐승 거짓선지자
- 배도는 반역행위이다.
- 그러므로 9-10절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하였다.

## 요한계시록 13장 6-15절

### 성도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를 끝내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속죄양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 용과 짐승은 창조주와 부활의 주님을 결코 이길 수 없다.

## 요한계시록 13장 6-15절

### 바다의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의 짐승 거짓선지자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첫째, 그들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피조물은 결단코 창조주가 될 수 없으며, 그 분을 이길 수 없다. 피조물은 아무리 힘이 세고 지혜로워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부족하고 거짓 될 수밖에 없다.
- 짐승을 666으로 묘사한 것도 이 부족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 요한계시록 13장 6-15절

### 바다의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의 짐승 거짓선지자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 둘째,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은 기록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모방과 표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이는 믿는 성도를 현혹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것을 가질 수 없다.  
그들의 가르침은 언제나 거짓되고, 구원에 미치지 못한다.

## 요한계시록 13장 6-15절

### 바다의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의 짐승 거짓선지자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셋째, 그들의 운명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황과 불과 연기로 타는 불 못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
- 계시록은 용과 짐승, 곧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두려움의 존재로 보지 않고 **영멸할 존재**로 본다.

## 요한계시록 13장 6-15절

바다의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의 짐승 거짓선지자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오히려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장차 올  
영원한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롬 8:18;  
고후 4:17)는 사실을 고취하고 있다.
-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요한계시록 13장 6-15절

## 바다의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의 짐승 거짓선지자

- 요한 계시록 13장 11절의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은 거짓선지자**이다.
- “어린양 같이 두 뿔이 있고”는 그가 일곱 뿔을 가진 어린양(계 5:6)을 **모방하고 표절**하고 있는 것이다.
- 그에게 일곱 개나 열 개가 아닌 **두 개의 뿔 밖에 없는 것은 그가 가진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 요한계시록 13장 6-15절

## 바다의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의 짐승 거짓선지자

- 용처럼 말하는 것은 그가 사탄인 용과 용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대언자=거짓선지자=둘째 짐승=종교인이기 때문이다.
- 12절에 나타난 거짓선지자의 역할은 첫째 짐승의 권세를 나눠 받아서 그 권세로=황제의 위임 권세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 요한계시록 13장 6-15절

- 첫째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란 표현은 그가 하나님의 속죄양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표절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며,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황제숭배를 강요한다는 뜻이다.
- 13절에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열왕기하 1장 10-12절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의 권능에 대한 모방이자 표절이다. 거짓선지자가 종교인이란 점을 드러내 보이는 장면이다.

# 요한계시록 13장 6-15절

## 바다의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의 짐승 거짓선지자

- 14절에서 둘째 짐승인 거짓선지자가 “짐승에게 받은 바 능력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한 것은 그가 모세 시대에는 바로의 박사와 박수들, **엘리아 시대에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원형**이란 점을 암시한다.

# 요한계시록 13장 6-15절

## 바다의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의 짐승 거짓선지자

- 계시록 2장 20절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음녀**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황제숭배와 같은 우상숭배를 강요한 자들은 다 거짓선지자이다.

# 요한계시록 13장 6-15절

## 바다의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의 짐승 거짓선지자

- 15절은 둘째 짐승 거짓선지자가 황제숭배와 같은 우상숭배를 강제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 시대를 막론하고 박해시대에 순교한 성도들은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인 제왕들에게 직접 심문 받고 처형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 수하들에 의해서 이뤄진다.

## 요한계시록 13장 6-15절

- 따라서 성도들을 직접 몸으로 상대하는 자들이 바로 둘째 짐승 거짓선지자들인 것이다.
- 그들은 종교박해에 관련해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였다.
-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도 하게 하였다는 뜻은 '검은 것을 보여주면서 희다'는 답변을 하게하고, '죽은 것을 보여주면서 살았다'는 답변을 하게하며, '말 못하는 돌과 나무를 보여주면서 말을 한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막강한 권세가 있음을 뜻한다.

## 시련은 짧다. 그러나 그 영광은 길다.

- 그리스도, 미카엘, 두 증인, 성도로 이뤄진 하나님의 팀은 최후 승리자들이다.
-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이들의 거처는 천국이다.
- 용, 적그리스도(바다의 짐승), 거짓선지자(땅의 짐승), 우상숭배자들로 이뤄진 사탄의 팀은 최후 패배자들이다.
-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이들의 거처는 지옥이다.

[9]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 요한계시록 13장 16-18절

[16]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계시록 13장(Luther Bible, 153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Hans Burgkmaier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 뿔에 왕관을 쓴 첫째 짐승 적 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두 뿔을 가진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666)와 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묘사되었다.

# 요한계시록 13장 16-18절

##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 둘째 짐승은 거짓 종교가와 허탄한 철학가의 상징이다.
- 그가 가진 거짓 진리는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다.
- 그 권세가 브랜드, 돈, 무력, 권력, 메가 또는 다수(多數) 일수도 있다.
- 이런 유의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다.
-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이런 유의 권세가 둘째 짐승 자신의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권한이 있어서 이것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 요한계시록 13장 16-18절

###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10절**에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고,
-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고 권면하였다.

# 요한계시록 13장 16-18절

##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 요한계시록 13장 16-18절은 짐승의 표, 666에 관한 말씀이다.
- 그리스도교 초기에 로마당국이 시민들에게 ‘짐승의 표’라 불릴만한 ‘리벨루스’라는 증명서를 받게 한 사례가 있다.
- 계시록이 기록되고 155년이 지난 후의 일이지만, 데키우스(Decius, 250-251)와 발레리아누스(Valerianus, 253-260) 황제가 시민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명서 ‘리벨루스’(libellus, 250)를 발급받도록 하였는데, 대상은 모든 시민권자들이었다.



## 집승의 표?



데키우스(Decius)가 발행한  
리벨루스(libellus, 250년)  
[내용]테아델피아 마을의 제사관을  
관장하는 자들에게, 페테레스의  
딸 아우렐리아 벨리아스와  
그녀의 딸 카피니스로부터: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신들  
에게 제사를 바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절차를 따라 관제를  
벗고 제사를 드렸으며, 신성한  
예물을 맛보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 증서에 서명해  
주시길 것을 요청합니다.  
[서명]우리 아우렐리우스 세레누스와  
아우렐리우스 헤르마스. 헤르  
마스 본인에 의해서 서명하다.  
황제 카이사르 가이우스 메시우스  
퀸투스 트라야누스 데키우스 피우스  
펠릭스 아우구스투스 1년, 아우니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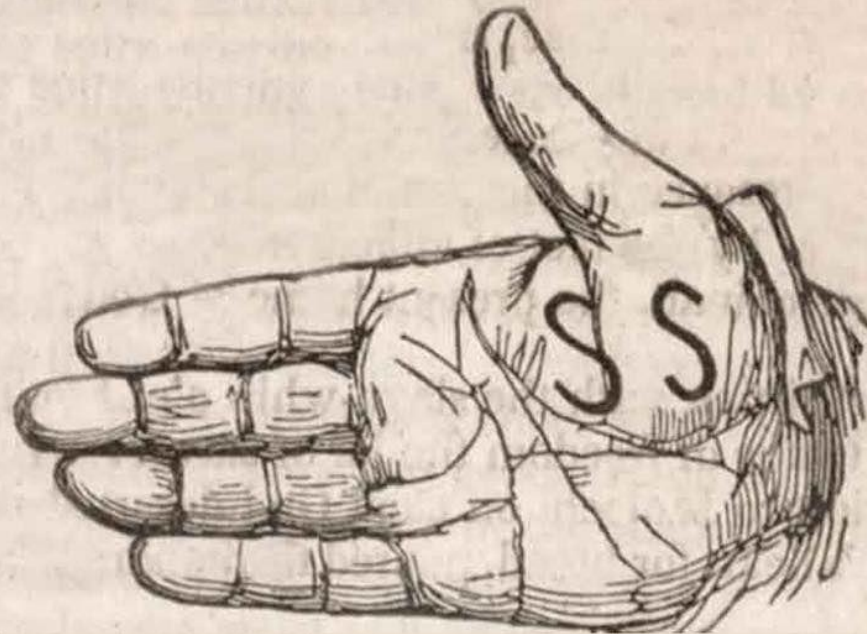


조나단 워커(Jonathan W. Walker)와 SS(Slave Stealer, 노예 도둑)  
낙인이 찍인 그의 오른손 사진(Daguerreotype by Southworth &  
Hawes, 1845. 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 소장).  
프랑스인 루이 다게르(Louis Daguerre, 1787-1851)가 개발해 1839년  
1월 7일 공표한 은판사진법(Daguerreotype)으로 1845년에 촬영되었다.  
선장이었던 워커는 개경의 도망 노예들을 태워 비행마로 보내려다가  
1844년 7월 8일 플로리다 초남단 키즈에서 노예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UNDERGROUND RAIL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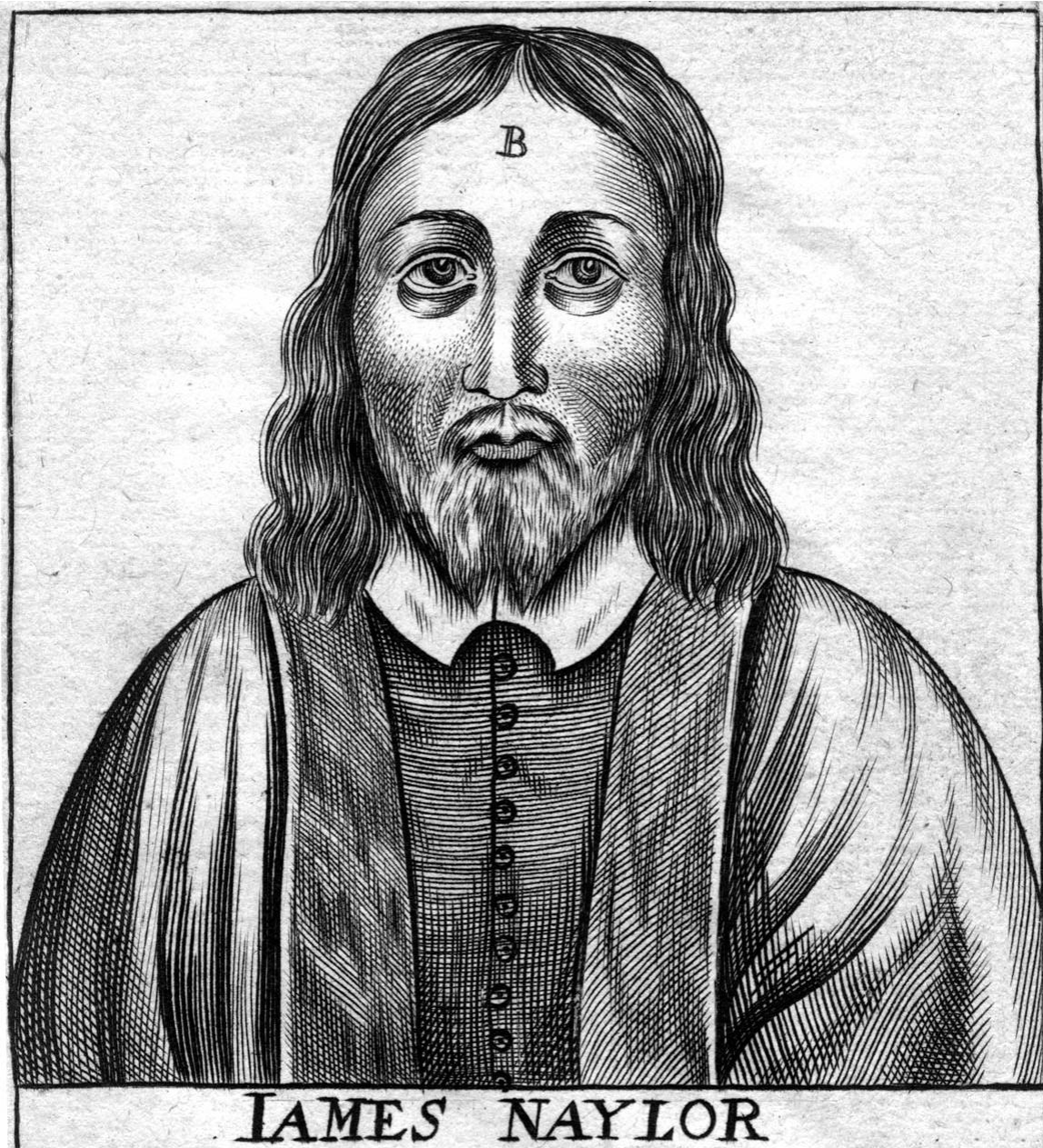
SYMBOLS

THE BRANDED HAND.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의 목에 낙인을 찍었던 불인도들



1656년 초기 퀘이커교도인 제임스 네일러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영국의회로부터 형벌의 일부로 이마에 '신성 모독' (blasphemy)이라는 글자 'B' 낙인을 받았다(판화, 17세기).

# 야훼의 표(777), 그리스도의 표(888), 짐승의 표(666)



(출 28:38)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겔 9:4, 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계 7:3)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 9:4)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계 13:16) 그가...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계 14:1)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계 14:9)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계 17:5)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계 22: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 요한계시록 13장 16-18절

##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 주후 212년에 발효된 **카라칼라의 칙령** 이후 속주민도 로마시민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로마제국에 살던 모든 자유민이 이 법에 따라야 했다.
- 주후 250년에 선포된 **데키우스 칙령**에 따라서 도시와 **마을마다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이곳에 불러 나간 **시민들은 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로마의 신상들에 절차를 따라 관제를 붓고 향불에 분향**하였다.

# 요한계시록 13장 16-18절

##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 그리고 그 향이 타오르는 동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선언을 하였고, 위원들은 사실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증명서 곧 ‘리벨루스’를 발급해 주었다.
- 그러나 계시록에서 말한 ‘짐승의 표’는 이런 증서를 말한 것은 아니고, ‘인침’ 곧 도장(소유와 소속의 개념)을 뜻한다.
- 16-17절,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신약성서가 말한 ‘인침’ 곧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증하는 약정서에 찍힌 인감의 모방이자 표절이다.

# 요한계시록 13장 16-18절

##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 성서가 말하는 ‘인침’과 ‘짐승의 표’는 소속을 증명하는 시민권 개념이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표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에 반대개념이다.
-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박해를 당한 성도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한 ‘굶주림’과 물질적 피해에 관한 언급이다.

# 요한계시록 13장 16-18절

##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다 보면, 고문을 받고 투옥당하는 것은 물론, 재산이 몰수되고 직장에서 파면을 당하기도 한다. 또 체포되기 전에 피신한 경우 깊은 곳에 숨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매매활동을 할 수가 없다. 물리적인 박해는 대개 통제사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해진다. 순교역사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 18절의 '짐승의 수'는 **666**이다. 이 숫자가 사람의 수이기 때문에 **666은 거짓 종교와 진리를 강요하는 권력자**이다.



계시록 13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 뿔에 왕관을 쓴 첫째 짐승 적 그리스도와 땅에서 올라온 두 뿔로 가진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666)와 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묘사되었다.

666=거짓, 거짓, 거짓  
666=부족, 부족, 부족  
666=실패, 실패, 실패

- ⑥ = 용 = 사탄, 마귀
  - ⑥ = 바다 짐승 = 황제
  - ⑥ = 땅 짐승 = 거짓 선지자(종교인)
- } 666

소유와 소속의 개념

777=기록, 기록, 기록  
777=완전, 완전, 완전  
777=승리, 승리, 승리

- ⑦ = 창조주 하나님
- ⑦ = 부활의 주 그리스도님
- ⑦ = 재창조의 신 성령님

} 777

- ⑦ = 그리스도
- ⑦ = 미카엘
- ⑦ = 두 증인

} 777

888=넘침, 넘침, 넘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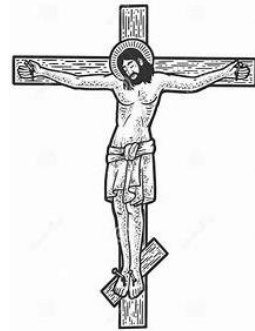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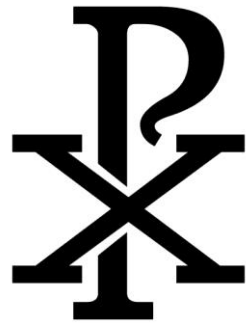
888=복음, 복음, 복음

888=구원, 구원, 구원

● ⑧ = 예수(888)

● ⑧ = 그리스도

● ⑧ = 십자가(+1)



888

소유와 소속의 개념

666=거짓, 거짓, 거짓  
666=부족, 부족, 부족

- 666은 6의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7은 777이 된다. 7은 완전수이다.
- ⑥은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숫자이며, 인간, 천사, 사탄과 같은 고등한 영적 피조물의 숫자이다.
- 인간은 항상 부족한 존재이다. 그는 제6일 째에 만들어졌다.
-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이성의 동물, 언어와 도구를 쓸 줄 아는 만물의 영장, 그래서 ⑥이다.

666=부족, 부족, 부족  
666=실패, 실패, 실패

- 감정을 통제하고 예술로 승화시킬 줄 아는 감성적인 동물이며, 의지적인 결단력을 가진 종교적인 동물이다.
-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언제나 미치지 못한다.
- 따라서 ⑥이란 숫자는 다른 모든 숫자 위에 있으면서도 완전수 7에는 언제나 하나가 부족한 수이다.
- ⑥은 언제나 완전<sup>에</sup> 이르지 못한다. ⑥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고, 표적을 빗나갈 수밖에 없다.

777=거룩, 거룩, 거룩,

777=완전, 완전, 완전

888=넘침, 넘침, 넘침

888=복음, 복음, 복음

- 그래서 666은 인간은 언제나 실패하고, 실패하며, 또 실패한다는 뜻이다. 인간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 예수님은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숫자⑧로 인식되었다. 예수님의 헬라어 이름 '이에수스'(Jesus)를 숫자로 환산하면, 888이 된다.⑧은 메시아 곧 구세주를 상징한다.

777=거룩, 거룩, 거룩,

777=완전, 완전, 완전

888=넘침, 넘침, 넘침

888=복음, 복음, 복음

- 메시아의 예표인 다윗 왕이 8번째 아들이었고,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었으며, 유대인 남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거룩한 공동체에 일원이 되었다.
- 외경 '시빌린 신탁'은 예수님을 8로 표기하였고, 150년경의 순교자 저스틴은 '주일'을 '제8일째 날'로 불렀으며, 중세교회는 침례탕을 팔각형으로 만들었다.

777=거룩, 거룩, 거룩,

777=완전, 완전, 완전

888=넘침, 넘침, 넘침

888=복음, 복음, 복음

- 숫자⑧은 기독교의 복음(7+1)의 성격을 설명하는 숫자이다.
- 따라서 숫자⑧은 넉넉한 구원, 넘치는 복을 뜻하며, 살림과 구원, 즉 삶에 플러스를 주는 복음을 뜻한다.

777=거룩, 거룩, 거룩,

777=완전, 완전, 완전

888=넘침, 넘침, 넘침

888=복음, 복음, 복음

- 구약성경 미가서 5장 5절에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일곱 목자, 여덟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군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다.

777=거룩, 거룩, 거룩,

777=완전, 완전, 완전

888=넘침, 넘침, 넘침

888=복음, 복음, 복음

- 여기에 쓰인 ‘일곱 목자’와 ‘여덟 장군’ 즉 숫자 7과 8은 완전한 승리를 상징한다.
- 숫자 ⑧은 ‘넉넉히 이긴다. 혹은 이기고도 남는다.’ 즉 ‘플러스 1’의 의미를 갖고 있다. 또 마태복음 5장에는 그 유명한 8복에 대한 말씀이 있고, 1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성격을 설명하는 8개의 비유가 나오며, 22-25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에 관련된 8개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다.

777=거룩, 거룩, 거룩,

777=완전, 완전, 완전

888=넘침, 넘침, 넘침

888=복음, 복음, 복음

- 마태복음 13장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성격을 설명하는 비유들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씨앗 비유’, 맨드라미 씨와 같이 아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겨자씨 비유’,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에 관한 비유’ 등이 소개되고 있다.

777=거룩, 거룩, 거룩,

777=완전, 완전, 완전

888=넘침, 넘침, 넘침

888=복음, 복음, 복음

-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며, 우리를 풍성하고 넉넉하게 복 주실 ‘플러스 1’의 존재이시다.
-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되 후하게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실 수 있는 ‘플러스 1’의 하나님이시다.
- 비록 우리 인간이 부족한 ‘마이너스 1’의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필요한 ‘플러스 1’의 요인으로 작용하실 수 있다

777=거룩, 거룩, 거룩,

777=완전, 완전, 완전

888=넘침, 넘침, 넘침

888=복음, 복음, 복음

- 비록 우리가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존재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큰 나무로 자라는데 필요한 '플러스 1'의 요인이다.
- 비록 우리가 밀가루 반죽에 불과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맛 좋은 빵으로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누룩이시다.
-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표시가 플러스 기호**인 점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닌 것 같다.

666=거짓, 거짓, 거짓,  
777=진실, 진실, 진실,  
888=복음, 복음, 복음

-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하기’가 되신다. 그리스도교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하기’가 된다.
- 666은 모든 거짓, 모든 실수, 모든 잘못, 모든 부족, 모든 악행의 상징이다.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오히려 인간을 음부의 구덩이로 몰아넣는 모든 불행의 상징이다.
- 666의 운명은 패배요, 불과 유황과 연기로 타는 불 못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완전하신 777의 하나님과 넉넉하신 888의 그리스도 뿐이다.

“그 짐승(우상, 적그리스도)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황제)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888=예수(복음, 승리, 구원)      

777=야훼(거룩거룩거룩=완전완전완전)

666=율법, 피조물, 우상, 거짓(부족부족부족=죄죄죄)

#### Nron Qsr

The Greek version of the name and title transliterates into Hebrew as נרון קסר, and yields a numerical value of 666,<sup>[44]</sup> as shown:

Resh (ר)	Samekh (ס)	Qoph (ק)	Nun (נ)	Vav (ו)	Resh (ר)	Nun (נ)	Sum
200	60	100	50	6	200	50	666

#### Nro Qsr

The Latin version of the name drops the second Nun (נ), so that it appears as *Nro* and transliterates into Hebrew as נרון קסר, yielding 616:

Resh (ר)	Samekh (ס)	Qoph (ק)	Vav (ו)	Resh (ר)	Nun (נ)	Sum
200	60	100	6	200	50	616



## ‘네로=666’의 문제점

- 계시록의 독자들은 대다수가 헬라인들이었다.
- 계시록은 95-96년경에 헬라어로 쓰였다.
- 네로는 68년(30세)에 자살하였다.
- 도미티아누스(96년 45세 때 암살)가 박해자 네로의 환생으로 여겨졌더라도 666이란 숫자를 히브어 이름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 네로의 공적인 칭호는 Nero Claudius Caesar Augustus Germanicus였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 승리자 그리스도



## 요한계시록 14장 1-11절

[1]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2]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의 같고 큰 우렛소리와의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3]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 요한계시록 14장 1-11절

[4]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6]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 요한계시록 14장 1-11절

[7]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8]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 요한계시록 14장 1-11절

[9]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쉽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계시록 14장(Ottl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시온산에 선 144,000명과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와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묘사하였다.



게시록 14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를 묘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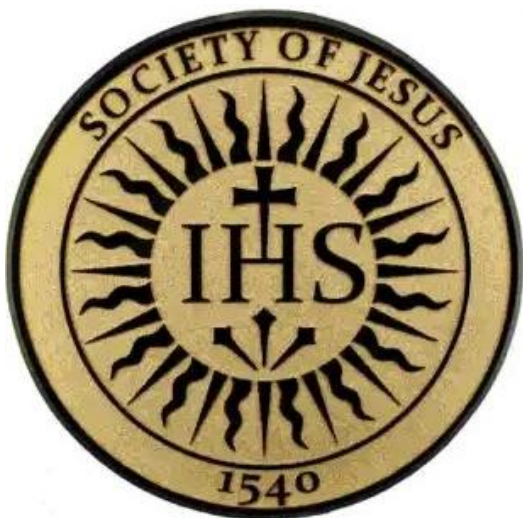
## 요한계시록 14장 1-11절

- 계시록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라는** 선포의 글이다.
- 계시록 14장 1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 곳은 지상이 아니고, 천상의 시온 산으로써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성이 자리 잡고 있는 옛 모리아 산의 원형이다.
-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것’은 그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속한 백성**이란 표시이다.



IHS

IHS



YHWH

יהוה

## 요한계시록 14장 1-11절

- ‘어린양’은 인류 속죄를 위해 희생되신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 ‘십사만 사천’은 7장에 나온 구원받은 성도를 말한다.
  - 그들은 구원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이며, 큰 환란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다.
  - 그들의 빛나는 이름은 ‘크리스티아노스’ (χριστιανός) 곧 그리스도인(Christian)이다.
- ‘크리스티아노스’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등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말로로는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 요한계시록 14장 1-11절

- 2절, 하늘에서 나는 물소리 같고, 우렛소리 같은 거문고 타는 소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시온 산에 도열한 구원 받은 십사만 사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이다.
- 계시록에서 거문고가 등장하는 경우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때이다(계 5:8, 15:2).
-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부른 새 노래,’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밖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는 이 노래’는 15장 2-3절에서 언급된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이다.

## 요한계시록 14장 1-11절

- **가사의 내용은** 7장과 15장에 소개되었다. 7장 9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다.”
- 15장 3-4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 요한계시록 14장 1-11절

- 4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뜻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 속량함을 받은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흰 옷을 입은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를 말한다. 용과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반대 개념.
-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다”는 **우상숭배**를 말한다. 고대 종교들에서 특히 여신들을 섬기는 신전에배에서 있었던 실제 음행과도 연관이 있고,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목신숭배를 강요했던 **이세벨**과도 관련된다.

## 요한계시록 14장 1-11절

- 계시록에서 **이세벨은 음녀의 상징**이다. 계시록 2장 20절은 이세벨을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꺾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짓선지자로 지적하였다.
- 고대 근동과 유럽에서 섬겼던 아프로디테, 아세라, 아스다롯과 같은 여신 전(殿)에서는 예배행위에 성창들과의 성적 접촉이 포함되어 있었다.
-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했던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비로써 상징되는 하늘의 남신과 밭으로 상징되는 땅의 여신 사이의 만남으로 풍요와 다산이 이뤄진다고 보았다.

## 요한계시록 14장 1-11절

-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좇는 **영적인 음행일 뿐 아니라, 실제로 이뤄졌던 음행이다.** 그래서 성서는 **배교를 음행**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
- 계시록은 **짧은 수고, 긴 안식, 짧은 쾌락, 긴 고통**에 대한 경고의 글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라는 전도의 글이다.
- 계시록 14장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자들**이란 뜻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신앙고백

## 요한계시록 14장 1-11절

- ‘신실’은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이고, 성도가 행한 약속은 일차적으로 침례 때에 행한 신앙고백을 의미한다.
- 초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
- 6절 이하는 계시록의 기록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
- 천사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사라지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지, 그 보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대적한 무리들이 어떤 보응을 받게 될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다.

## 요한계시록 14장 1-11절

- 6-7절에 등장한 첫 번째 천사는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선포하고 있다.
- 8절의 또 다른 두 번째 천사는 **배교와 박해를 시행하는 제국 또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일차적으로 로마제국을 의미한다.

## 요한계시록 14장 1-11절

-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는 모든 속주국민들에게 우상숭배 곧 황제숭배를 강요한 것은 영적으로 음행을 주선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뿐만 아니라 함께 한 자들까지도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다.
- ‘진노의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징계를 말한다. 이 천사는 제국의 멸망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탄식한다.

## 요한계시록 14장 1-11절

- 9-11절에 등장한 또 다른 천사 곧 셋째는 **우상 곧 황제를 숭배하고 그 증표를 받으면, 바뀌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면, 불과 유황과 연기로 타는 불 못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경고한다.
- 여기서 **불과 유황과 연기는 지옥의 불을, ‘밤낮 쉬을 얻지 못한다.’는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의 반대개념**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경고한다.

## 요한계시록 14장 1-11절

- 계시록은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글이다. 그것은 마치 노아가 홍수심판을 앞두고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과 같고, 천사들이 유향불 심판을 앞두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과 같다.
- 계시록의 교훈은 죽으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죽은 후에도 그 고난이 세세토록 이어진다는 데 있다. 그리스 신화에 묘사된 **탈타로스처럼, 지옥에서는 영원토록 쉬을 얻지 못하고 고통스런 일들을 끝없이 반복하게 된다.**

## 요한계시록 14장 1-11절

- 10절의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는 물을 섞지 아니한 **독주**를 말한다. 고대 지중해 연안 사람들은 포도주에 물을 희석해서 마셨다.
- 포도주에 물을 섞는 비율은 20대 1에서부터 1대 1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 고대의 문학가들은 3대 1로 혼합한 포도주를 가장 적절하게 보았고, 1대 1로 희석한 포도주를 “독한 술” (strong wine)로 언급했다.

-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표현은 독주란 뜻으로써 심판의 강도나 고통의 강도가 심히 독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 회개하라
  - 인내하라 – Through It All
  - 믿음을 사수(死守)하라
  - 죽도록 충성하라
  -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